

[제목] 로미오와 줄리에트

[페이지] F01

셰익스피어

로미오와 줄리에트

김재남 옮김

Shakespeare

ROMEO AND JULIET

[페이지] F02

장소

베로나와 맨투어

등장인물

에스커러스 베로나의 영주.

패리스 청년 귀족, 영주의 친척.

몬타규 양쪽 원수 집의 가장

캐폴렛 양쪽 원수 집의 가장

캐폴렛의 일가 영감.

로미오 몬타규의 아들.

머큐쇼 영주의 친척, 로미오의 친구.

벤볼리오 몬타규의 조카.

티벌트 캐폴렛 부인의 조카.

로렌스 프란체스코파의 신부.

벨더자 로미오의 하인.

샘슨 캐폴렛 집의 하인.

그레고리 캐폴렛 집의 하인.

몬타규 부인.

캐폴렛 부인.

줄리에트 캐폴렛의 딸

유모 줄리에트의 유모.

피터 줄리에트 유모의 하인.

에이브럼 몬타규 집의 하인.

약방 영감.

약사 3명

패리스의 시동 2명

관리 1명

시종들

야경들

서사배우

[페이지] 019

[장] 프롤로그

((서사 배우 등장.))

[서사배우] 다같이 세도 있는 두 집안이 아름다운 베로나를 무대로 오랫동안 쌓인 원한에서 또 싸움을 일으키니, 시민의 피가 시민의 손을 더럽힌다. 숙명적인 이 두 원수의 집안에서 불운한 한 쌍의 애인이 태어난다. 이들 불행하고 불우한 사랑의 파멸은 죽음으로써 두 집안의 갈등을 매장한다. 죽음으로 끝을 맺는 두 젊은이의 가련한 사랑 이야기. 자식들이 죽고서야 화해가 되는 두 집 부모네의 길고 긴 불화, 이것이 지금부터 두어 시간동안 상연됩니다. 여러분, 참고 들어주시면 부족한 점은 앞으로 노력해서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퇴장)

[막] 1막

[장] 1장

((베로나 광장))

((캐폴렛가의 하인 샘슨과 그레고리, 칼과 방패를 들고 등장.))

[샘슨] 여보게, 그레고리. 이젠 정말 더 못 참겠어.

[그레고리] 아니, 그러다가 석탄집이나 날라먹는 신세가 되려구.

[샘슨] 그게 아니라, 핫김에 칼이라도 쏙 뽑겠단 말일세.

[그레고리] 글썄, 살아 있는 동안은 모가지나 뽑히지 않게 하게나.

[샘슨] 내 약만 올려 봐, 내 칼이 번개처럼 날아갈 테니.

[그레고리] 웬걸, 자네가 어디 그렇게 쉽사리 약이 오를라구.

[샘슨] 천만에. 몬타규네 개새끼만 봐도 분통이 터지는걸.

[그레고리] 화가 나면 야단법석이고, 기운이 나면 버티게 될걸. 그러니까 자

[페이지] 020

넌 화가 나면 뽕소니를 칠밖에.

[샘슨] 그렇지 않다니까. 난 그거네 개새끼만 봐도 화가 치민다구. 몬타규네 것들이라면 연놈 할 것 없이 한길 도랑창으로 떠다박지르고, 담쪽 좋은 길은 내가 차지할 테야.

[그레고리] 무슨 못난 소릴, 오죽이나 못나서 담쪽으로 갈까.

[샘슨] 옳아, 그래서 약한 여자는 늘 담쪽으로 밀려나게 마련이군. 그러니까 난 몬타규네놈

들은 담에서 떠다박지르고, 녀들은 담으로 밀쳐 버릴 테야.

[그레고리] 우리네 주인은 주인끼리, 하인은 하인끼리의 싸움이 아닌가.

[샘슨] 매한가질세. 난 실컷 횡포 좀 부려 볼 거야. 놈들하고 싸움이 끝나면, 녀들도 혼을 좀 내줘야지. 고년들 급소를 찔러 놓고 짓밟을 테야.

[그레고리] 종년들 급소를?

[샘슨] 암, 고년들 급소, 고 처녀막 말야. 자네 맘대로 생각해 두게나.

[그레고리] 맛을 알아야 생각도 나잖나.

[샘슨] 내가 버티고 있는 동안이면, 녀들이 맛을 볼 게 아닌가. 이래봬두 어지간한 살덩이거든.

[그레고리] 생선이 아니어서 다행이지. 생선이었다면 자넨 건대구였지 뭐야. 자, 칼을 빼게. 마침 몬타규네 녀석들이 오네.

(몬타규가의 하인 에이브럼과 또 한 명의 하인 등장.)

[샘슨] 자, 칼을 뽑았다. 덤비게. 뒤는 내가 봐줄 테니.

[그레고리] 뭐? 뒤로 도망치려구?

[샘슨] 내 걱정은 마라.

[그레고리] 천만에, 내가 뭇 뺨에 자네 걱정을 하나!

[샘슨] 하여튼 우리편에는 말썽이 없게 하고, 저쪽에서 시비를 걸게 하게나.

[그레고리] 그럼 놈들이 지나치면 상을 쟁그려야지. 놈들 맘대로 생각하게.

[샘슨] 아냐, 그건 저놈들 담에 달렸어. 나도 엄지손가락을 씹어대겠어. 그래도 가만히 있다면 저것들 망신이지.

[에이브럼] 여보, 왜 우릴 보고 손가락을 씹어대오?

[샘슨] 난 내 손가락을 씹는데요.

[에이브럼] 여보, 우릴 보고 손가락을 씹어댄 게 아니오?

[샘슨] (그레고리에게 방백) 그렇다고 말해도 우리 잘못은 아니겠지?

[그레고리] 아무렴.

[샘슨] 당신네를 보고 씹어댄 건 아니고 그저 내 손가락을 씹어 보는 거요.

[페이지] 021

[그레고리] 여보, 시비를 거는 거요?

[에이브럼] 시비라고? 천만에.

[샘슨] 해볼 테면 한번 해봐. 나도 당신네만큼은 훌륭한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니.

[에이브럼] 더 훌륭하진 못할걸.

[샘슨] 정말 그럴까?

(한쪽에서 벤볼리오, 다른 쪽에서 티벨트 등장.)

[그레고리] (티벨트가 오는 것을 보고) 더 훌륭하다고 그러게. 마침 주인네 친척 한 분이 오니까.

[샘슨] 암, 더 훌륭하고 말고.

[에이브럼] 허튼 소리.

[샘슨] 여보, 대장부라면 칼을 빼 보시지. 그레고리, 자네 그 칼솜씨 좀 부탁하네.

[벤볼리오] (뒤쪽에서 끼어들어와서) 그만둬. 바보들같으니! 칼을 집어넣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티벨트가 달려든다.)

[티벨트] 뭐라구 임마, 이 무식한 하인놈들 축에 끼여 칼을 빼들고 있어? 벤볼리오놈, 날 봐라. 내가 상대해 줄 테다, 이놈.

[벤볼리오] 난 싸움을 말리고 있을 뿐이요. 그러지 말고 그 칼로 나와 같이 이것들의 싸움이 나 뜯어말리시지.

[티벌트] 뭣이 어찌고 어찌? 칼을 빼들고서 싸움을 말린다구? 지옥으로나 갈 몬타규네 족속들도 밍지만 그 말은 더 밍살스럽다. 자, 칼이나 받아라, 이 비겁한 놈아.(이들 둘이서 싸운다. 양편집 사람 수명 등장하여 싸움에 참가한다. 이윽고 곤봉, 창 등을 든 시민 3,4명과 관리 등장.)

[시민들] 곤봉이다! 도끼다! 창이다! 놈들을 때려눕혀라. 캐폴렛 패를 때려눕혀. 몬타규네불이들을 때려눕혀!

[페이지] 022

실내복을 입은 캐폴렛 영감과 그의 부인 등장.

[캐폴렛] 이게 웬 소동이나? 이리 다오, 내 장검을.

[캐폴렛 부인] 지팡이, 지팡이를! 칼은 또 웬 칼이세요.

[캐폴렛] 내 칼을 달라니까! 몬타규 늙은 것이 나를 향해 칼을 휘두르면서 오고 있소.

(몬타규 영감과 그의 부인 등장.)

[몬타규] 너, 이 무례한 캐폴렛녀석아! 놓으시오. 잡지 말라니까.

[몬타규 부인] 싸우시겠다면 꿈쩍도 못하게 하겠어요.

(영주 에스커러스가 부하를 거느리고 등장.)

[영주] 치안을 교란시키는 불온한 것들. 이웃끼리 칼을 피로 물들이는 것들아---. 에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 간악한 분노의 불을 너희들 혈관에서 솟는 붉은 샘물로 끄다니. 고문이 두렵거든 그 잔인한 손에서 흥기를 땅에 던지고 영주의 말을 들어라. 너희 캐폴렛과 몬타규 두 늙은이는 실없는 말 한 마디로 세 번이나 싸워서 조용한 시중을 세 번이나 소란케 했다. 그래서 베로나의 노인들도 자신에게 어울리는 단장을 내던지고 평화에 녹슨 낡은 창을 휘두르며 너희들의 싸움에 끼어들게 되었다. 다시 또 시중을 소란케 하는 날이면, 치안 교란 죄로 너희 둘 목숨은 없으리라. 이번만은 그대로 물러가라. 그리고, 캐폴렛 그대는 나와 같이 가고, 몬타규 그대는 오늘 오후 자유시간에 법정에서 출두하여 이번 사건에 관해서 좀더 내 의견을 듣도록 하라. 한 번 더 일러두나니 죽음이 무섭거든 썩 물러가거라.

(몬타규, 몬타규 부인, 벤볼리오만 남고 모두 퇴장.)

[몬타규] 대체 누가 이 묵은 싸움을 또다시 터뜨려 놓았느냐? 이봐라, 너 처음부터 있었느냐?

[벤볼리오] 저 원수놈의 하인들과 숙부님의 하인들이 이곳에서 막 싸우고 있을 때에 마침 제가 왔습니다. 제가 칼을 빼들고 말리자, 바로 그때 불같은 티벌트가 칼을 빼들고 달려들며 머리 위로 칼을 휘두르고 헛손질을 하지

[페이지] 023

않겠어요. 그러나 그 칼에는 그 무엇이 상하기는커녕, 바람 소리가 그놈을 썩썩 조롱만 했지요. 그렇게 우리가 한참 치고 받고 있는데, 자꾸만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패를 지어 싸웠지요. 그때 마침 영주님이 오셔서 말리셨습니다.

[몬타규 부인] 아, 그런데 로미오는 어디 있을까? 너 오늘 그애를 보았니? 그애가 싸움에 안 끼어서 다행이다.

[벤볼리오] 숙모님, 숭고한 태양이 동쪽 황금 창문을 들여다보기 한 시간 전에, 마음이 산란해서 밖으로 나갔지요. 이 시가 저쪽의 우거진 단풍나무 숲 밑을 그렇게 일찌기 로미오가 산책을 하고 있더군요. 제가 가까이 다가가니까 알아채고 숲 속으로 슬쩍 숨었지요. 저는 그의 심정을 제 경우에 비추어 짐작할 수 있었지요. 마음이 괴로울 때는 가장 인기척이 없는 곳만 찾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의 뒤를 쫓지 않고, 나를 피하려는 사람을 기꺼이 피해 주었지요.

[몬타규] 그애는 아침이면 자주 그곳에 가서 신선한 아침 이슬 위에 눈물을 뿌리곤 한숨을 지어 구름에다 구름을 더 보탠다는 거야. 그러나 만물을 깨우는 태양이 저 머나먼 동쪽 하늘에서 새벽 여신의 침상으로부터 검은 포장을 걷기 시작하면, 우울에 빠진 자식놈은 살며시 돌아와 혼자 방안에 틀어박혀서, 창문을 닫아 밝은 햇빛도 가리고, 일부러 밤을 만들더군요. 이런 심경은 필경 흥한 화근이 되렸다. 잘 충고해서 그 근원을 제거한다면 몰라도.

[벤볼리오] 숙부님, 그 근원을 아십니까?

[몬타규] 모른다. 어디 알 도리가 있어야지.

[벤볼리오] 억지로라도 캐 보셨어요?

[몬타규] 나쁜 아니라, 여러 친구들까지도 졸라 보았지. 허나 그놈은 제 감정에만 충실하고- 그게 어디까지 진실한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저 혼자 비밀을 죽 지키고 있으니, 도저히 짚어 알아낼 길이 없구나. 마치 꽃봉오리가 향기로운 꽃잎을 대기 속에 활짝 펴고 그 아름다운 자태를 태양에 바치기도 전에 심술궂은 벌레에게 먹히는 것과 같다고나 할까. 그 슬픔이 자라난 근원을 알 수만 있다면, 아는 대로 당장 치료를 해주겠다만.

(로미오 등장.)

[벤볼리오] 마침 로미오가 오는군요. 잠깐 비켜 주세요. 그 슬픔의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뭐 거절당하진 않겠지요.

[페이지] 024

[몬타규] 네가 여기 머물러 있다가 그의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오죽이나 좋겠느냐. 여보 마누라, 우린 물리갑시다. (몬타규와 그의 부인 퇴장.)

[벤볼리오] 로미오님! 밤새 안녕하신가--- .

[로미오] 아직도 아침인가?

[벤볼리오] 지금 막 9시를 쳤어.

[로미오] 아, 슬픈 시간은 지루하게 마련이군. 지금 황급히 나가신 분은 집의 어르신네지.

[벤볼리오] 응, 그런데 무슨 시름으로 로미오의 시간은 그렇게 지루할까?

[로미오] 가지면 시간도 잊히는 것을 못 가지니 그렇지.

[벤볼리오] 사랑 말인가?

[로미오] 아냐--- .

[벤볼리오] 사랑이 아냐?

[로미오] 사모하는 여자지만 반응이 없네그려.

[벤볼리오] 저런, 보기엔 그토록 달콤한 것 같은 사랑이, 실제로는 포악하고 몰인정하단 말인가?

[로미오] 아, 항상 눈이 가려져 있다는 그 사랑이란 놈은 눈 없이도 잘만 제 길을 찾아가거든! 그럼, 식사는 어디서 할까--- . 아냐, 이게 웬 소동이었어? 아냐, 말 안 해도 좋아. 나도 다 알고 있으니까. 미움과 관련된 소동도 소동이지만, 사랑과 관련된 고민은 한술 더 뜨는 걸. 싸우는 사랑, 사랑하는 미움이라. 아, 원래 무에서 생겨난 유라! 아, 무겁고도 가볍군. 진실한 허위, 겉치레는 근사하나 꼴사나운 혼돈, 낯덩이의 숨털, 번쩍이는 연기, 차디찬 불, 병든 건강, 늘 눈떠 있는 잠, 그것 아닌 그것, 이것이 내가 느끼는 사랑이지만, 어디 이런 사랑에 만족이 있어야지. 우습잖나?

[벤볼리오] 천만에, 오히려 울고 싶네.

[로미오] 울고 싶다니, 왜?

[벤볼리오] 착한 로미오가 고민을 하니까.

[로미오] 원, 그건 지나친 애정이네. 내 시름만도 이 가슴이 무거운데 자네 것마저 덧붙여서 짓눌러 줄 참인가. 자네의 그런 애정은, 그렇잖아도 복잡한 내 고민엔 설상가상일세. 사랑이란 한숨으로 된 연기. 개면 애인 눈 속에서 번쩍이는 불꽃이요, 흐리면 눈물로 바다가 되네. 그게 사랑 아닌가? 가장 분별을 차리는 미치광이요, 또한 목을 졸라매는 쓰디쓴 약인가 하면, 생명을 돌우는 감로이기도 하네. 그럼 잘 있게.

[벤볼리오] 아냐, 같이 가세. 이렇게 나를 두고 가면 너무 섭섭하잖나.

[로미오] 허, 나야말로 나 자신을 어디다 두고 없는걸. 난 여기 없네. 이 사

[페이지] 025

람은 로미오가 아니네. 그는 어디 딴 곳에 가 있다네.

[벤볼리오] 정말 말해 보게, 누구 사랑하고 있어?

[로미오] 끄끄 앓고 있는 나에게 정말 말해 보라는 건가?

[벤볼리오] 앓고 있다구? 천만에. 하지만 정말 말해 봐. 상대는 누군가?

[로미오] 차라리 환자보고 유서를 쓰라지--- . 거 환자에겐 섭섭한 말일세. 그런데 이봐, 사실 난 어떤 여자를 연모하고 있다네.

[벤볼리오] 나도 그렇게 짐작했더니 어지간히 적중했네그려.

[로미오] 명수로군! 하여간 내가 연모하는 여자는 미인이라네.

[벤볼리오] 옳은 과녁이라면 빨리 쏘아 맞춰야지.

[로미오] 그 여자가 큐핏의 화살에 맞아야 말이지. 그는 월신의 분별심을 가지고 있고, 순결이란 갑옷으로 잘 무장을 하고 있으니, 애들 장난감 같은 사랑의 화살엔 어디 상처를 입어야지. 구애의 공세에도 끄덕없고 눈초리의 집중에도 흔들리지 않거든. 그뿐인가. 성인을 유혹할 황금에도 치마를 안 열어. 아, 대단한 미인이긴 하나, 죽으면 그녀의 아름다움도 종자와 함께 사라질 테니 아까운 일이지.

[벤볼리오] 그렇다면 일평생 독신을 맹세한 여잔가?

[로미오] 응, 그렇다네. 그런데, 그렇게 인색한 것은 오히려 큰 낭비가 아니란 말일세. 미가 금욕 때문에 굶주리면 자손 만대까지 미는 끊어지고 말지 않겠나. 저 어여쁘고 어질고 착한 여자가 나를 이렇게 절망 속에 몰아넣고서야 어디 복을 받을 수 있겠나. 그 여자는 사랑을 앗기로 맹세했다는데, 그놈의 맹세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나는 산송장인 셈이네.

[벤볼리오] 내 말을 듣게나. 그 여자를 생각하지 말게.

[로미오] 아, 어떡하면 생각하지 않을 수 있나, 좀 가르쳐 주게.

[벤볼리오] 보는 눈에 자유를 주어 딴 미인들을 살펴보게.

[로미오] 그건 그녀의 뛰어난 미모를 더욱더 생각해 할뿐일세. 아름다운 여자의 이마에 키스를 하는 멋진 가면을 보게나. 검기에 오히려 그 속에 숨어 있는 흰 얼굴을 생각나게 한다구. 별안간 눈이 먼 자는 시력이라는 귀한 보배를 못 잇는 법이야. 절세 미인을 좀 보여주게. 그 까짓 미모가 무슨 소용이 있을라구? 그 절세 미인을 능가하는 미인을 쉽게 할 주석밖에 안 될걸. 자, 그럼 잘 있게. 어떻게든 나에게 잇을 방법을 가르쳐 주지는 못할 거네.

[벤볼리오] 장차 가르쳐 주겠네. 어디 안 가르쳐 주고 죽을 수야 있나.

[페이지] 026

[장] 2장

((같은 장소에서의 오후))

((캐폴렛, 패리스 백작, 캐폴렛의 하인 등장.))

[캐폴렛] 하지만 나뿐 아니라 몬타규 역시 같은 벌을 받았소. 하긴 우리 같은 늙은이가 평화를 유지하는 일쯤이야 어렵잖은 일이지요.

[패리스] 두 분 다 이름난 분이신데, 긴 세월을 두고 불목하시니 유감이외다. 그건 그렇고 저의 청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캐폴렛] 글쎄, 전에 한 말을 되풀이할 수밖에요. 딸년은 아직도 세상을 모르고, 아직 열네 살이 다 차지도 않았소. 앞으로 두 여름을 넘겨야만 신부감이 되지 않을까요.

[패리스] 더 젊은 나이에 행복한 어머니가 된 분도 있는데요.

[캐폴렛] 하지만 너무 일찍 되면 쉽게 망치잖소. 다른 자식들은 다 죽고 이제 그애만이 나의 희망이라오. 어쨌든 백작이 직접 구매하여 딸년의 마음을 사 보구료. 딸이 승낙하면 내 의향은 들으나마나고, 딸이 동의하면 나는 개가 택한 대로 승인하고 기꺼이 찬성할 수밖에요. 오

늘밤 내 집에서 관례대로 연회를 열게 되어 친한 분네들을 많이 초대해 놓았으니, 백작께서도 최고 귀빈으로서 왕립해 주신다면 한층 빛나는 자리가 되겠소. 누추한 집이지만 오늘밤 참석하셔서 킁킁한 하늘도 환하게 하는 기라성 같은 여인들을 만나 보시지요. 성장을 한 4월이 절뚝거리는 겨울 뒤통치를 쫓아오고 있을 때에, 팔팔한 젊은이들이 느끼는 것 같은 기쁨을 오늘밤 내 집에서 꽃봉오리 같은 처녀들 사이에 끼어 맛보게 되리다. 두루 듣고 보신 다음, 제일 으뜸가는 여자를 사랑하시오. 잘 눈여겨보시면, 딸년도 그 중엔 끼겠지만, 어디 손에 꼽힐 수야 있을라구요. 자, 그럼 같이 갑시다. (하인에게) 여봐라, 어서 아름다운 베로나를 뛰어다녀라. 여기 이름들이 적혀있으니 (하인에게 쪽지를 준다.) 찾아가서 내 집에 왕립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해라. (캐플렛과 패리스 퇴장.)

[하인] (종이쪽지를 만지작거리면서) 여기 적혀 있는 양반네들을 찾아가라고! 구두쟁이는 잣대를, 양복쟁이는 구두틀을, 낚시꾼은 화필을, 그림쟁이는 그물을, 제각기 자기네 연장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고 책에도 써어 있으려다. 여기 적힌 양반들을 찾으라고 날 보내지만, 제기, 뉘 이름이 적혀

[페이지] 027

있는지 알 수가 있나. 글 아는 분한테 가 봐야겠군. 아따, 마침 잘됐다!

(벤볼리오와 로미오 등장.)

[벤볼리오] 첿, 이 사람아, 어디 등불이 햇빛을 당할 수야 있나. 하나의 고통도 다른 고통이 오면 덜어지네. 빙빙 맴돌다가도 거꾸로 돌면 좋아지는 법이고, 하나의 고민도 다른 고민이 오면 나아지는 법이야. 자네 눈이 무슨 새 병에 걸려 보게. 고약한 현 눈병은 가져질 테니.

[로미오] 그것에는 저 질경이잎이 묘약이거든.

[벤볼리오] 묘약이라고, 뭘에?

[로미오] 정강이가 활짝어진 데는 말이네.

[벤볼리오] 아니, 로미오, 자네 미쳤나?

[로미오] 미치다니, 천만에. 하지만 미치광이 이상으로 묶여 있네. 감옥에 갇혀 얻어먹지도 못하고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있네. 자, 그럼 잘 있게.

[하인] 안녕하십니까. 나으리, 저, 읽으실 줄 아시죠?

[로미오] 암, 내 불행한 운명쯤은 읽을 수 있지.

[하인] 그거야 읽지 않아도 다 아는 일입죠. 그게 아니라, 글을 읽을 줄 아시느냐 이 말씀인

템쇼.

[로미오] 아무렴, 글자와 말만 안다면야.

[하인] 솔직한 말씀이군요. 그렇다면 안녕히 계십시오. (하인 돌아선다.)

[로미오] 여봐, 게 있게. 난 입을 줄 알아. (명단을 읽는다.) '마티노님과 동 영부인 및 동 영애들, 앤셀모 백작과 동 영매들, 비트루비오 미망인, 프레첸쇼님과 동 영질들, 머큐쇼와 동 사제 벨런타인, 캐폴렛 숙부님과 동 영부인 및 동 영애들, 질너 로잘라인과 리비어, 벨렌쇼님과 동 중제 티벌트, 로쇼와 헬레나양.' 신남 신녀들의 모임이군. 어디로 모이나?

[하인] 집으롭죠.

[로미오] 어디로?

[하인] 우리네 집 만찬회입죠.

[로미오] 뉘 택이지?

[하인] 권택입니다.

[로미오] 참, 그걸 먼저 물었어야 했구나.

[하인] 그럼 이제 안 물으셔도 대드리죠. 우리 권네는 대감부 캐폴렛 택입니다. 저, 나으리께서도 몬타규네 사람만 아니심, 부디 오셔서 한잔 나눠 보

[페이지] 028

시죠.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퇴장)

[벤볼리오] 캐폴렛택 잔치에 자네가 것처럼 연모하는 로잘라인도, 베로나의 이름난 못 미녀들과 같이 참석한다네. 그리로 가서 공정한 눈으로 내가 대주는 얼굴과 비교해 보게. 소위 자네의 백조는 까마귀격이 될 거네.

[로미오] 내 눈의 거룩한 신앙이 그런 사교를 믿는다면, 눈물은 불로 변하리라. 곧잘 눈물 속에 빠지면서 죽지 않는 이 두 눈이 멀쩡히 이단자 짓만 해보라지. 그런 거짓말장이는 불살라 버리겠네. 내 애인보다 미인이라구! 만물을 내려다보는 태양도 천지개벽이래 그런 미인은 못 봤을걸.

[벤볼리오] 첻! 옆엔 아무도 없고, 자네 두 눈의 저울에 그 여자만을 달아보았으니까 그녀가 미인으로 보인 거야. 하지만 오늘밤 회석에서 판 미인을 대줄 테니 그 여자를 그 수정 같은

두 눈으로 자네가 연모한다는 여자와 저울질해 보게. 그 여자가 지금은 제일로 보이겠지만 별것도 아닐 테니.

[로미오] 가기로 하세. 하나 대주겠다는 그 미인을 보자는 것이 아니라, 빛나는 내 애인의 모습을 즐기기 위해서 말일세. (두 사람 퇴장.)

[장] 3장

((캐플렛 집의 한 방))

(캐플렛 부인과 유모 등장.)

[캐플렛 부인] 유모, 줄리에트가 어디 있지? 그애를 좀 불러다 줘요.

[유모] 글썄, 내 열두 살 적 숫처녀를 두고 말하지만, 오라고 했는데요. 여봐요, 어린양, 참새 같은 아가씨! 요런 색시가 있담? 줄리에트 아가씨!

(줄리에트 등장.)

[줄리에트] 왜, 누가 부르세요? 무슨 일이 있어요?

[유모] 엄마가요.

[줄리에트] 엄마, 여기 왔어요. 왜요?

[캐플렛부인] 판게 아니다. 저 유모는 잠깐 비켜 줘요. 우리끼리 얘기 좀 해야겠으니. 아냐, 그냥 있어요, 유모. 참, 유모도 같이 들어 줘요. 유모도 알다시피 이애도 이럭저럭 결혼할 나이가 찼나본데.

[페이지] 029

[유모] 그럼요, 따님 나이라면 전 시간까지도 댈 수 있읍죠.

[캐플렛 부인] 열네 살은 못 찼지?

[유모] 제 이 열네 개를 곁고 말하지만--- 하지만 아이구, 내 이는 네 개밖에 없구먼. --- 아가씨 열네 살이 안 됐죠. 그런데 8월 초하룻날까지 며칠 남았는가요?

[캐플렛 부인] 두 주일하고 몇 날 남았지.

[유모] 며칠이고 몇 날이고, 일년 모든 날 중 8월 초하룻날 밤이 오면 아가씨 열네 살이 되

조. 수잔과 아가씨--- 하느님 맏소사.--- 동갑이죠. 글썄 수잔은 천당에 가 있지만 내게는 과분한 자식이었습죠. 그러구 저러구 간에, 8월 초하룻날 밤이면, 아가씨 열네 살이 되지요. 정말이지 제가 잘 기억하고 있어요. 지진이 있은 후 2년이 되지만, 따님은 바로 그날 젖이 떨어졌지요.-그 일은 잊혀지지도 않아요.-일년 중 하고많은 날들 중에서 바로 그날이었어요. 전 젖꼭지에다 약쑥 즙을 발라 놓고 비둘기집 담 밑에서 햇별을 찍고 있었지요. 영감님과 아씨는 맨투어에 가 계시고--- 전 푹푹히 기억하고 있습죠! 그런데 글썄, 아가씨 젖꼭지에서 약쑥 맛이 나니까, 귀엽게도 칭얼대고, 젖꼭지와 실랑일 하잖겠어요. 그때 비둘기집이 까딱까딱 흔들렸는데, 정말 이제 절 보고 나가라고 할 필요는 없었지요. 벌써 11년 전 일이지만 그때도 아가씨 혼자서 곧잘 서기도 하고, 비틀비틀 걸음마도 하고 다녔지요. 그 전날만 해도 이마에 상처를 냈는데 우리 집사람-하느님, 보호해 주십사, 그이는 재미있는 사람이었지요.--- 아이를 번쩍 일으켜 안고서 '아이구 앞으로 넘어졌나? 철이 들면 뒤로 넘어질 테지. 안 그러니, 줄리에트 아가?' 하고 말하니까, 글썄 귀여운 것이 울다 말고 '응' 하겠지요. 이제 보니, 농담이 맞는가봐요! 참말로 내가 천년을 살더라도, 그 말만은 안 잊을 거야. 우리 집 양반이 '안 그래, 줄리에트 아가?' 하고 말하니까, 귀여운 것이 울다 말고 '응.' 하잖겠어요.

[캐플렛 부인] 그만 해요. 제발 가만히 있어요.

[유모] 예, 아씨. 하지만 울다 말고 '응.' 하던 것을 돌이켜 생각하니, 웃음이 터지잖아요. 글썄, 아가씨 이마에 병아리 불알만한 혹을 냈지요. 참 위험한 상처였어요. 마냥 울었지요. 우리 집 사람이, '아가, 앞으로 넘어졌니? 철이 들면 뒤로 넘어질 테지. 안 그래, 줄리에트 아가?' 하고 말하니까, 그것이 울다 말고 '응.' 하잖겠어요.

[줄리에트] 유모도 그만 해뒀요, 제발 좀.

[유모] 예, 예. 이제 그만 해두겠어요. 아가씨의 행복을 빌겠어요. 아가씨 내가 기른 아기 중에서 제일 귀여웠지. 살아 생전 아가씨 시집가는 것만 보

[페이지] 030

면 내가 뭘 더 원하려고요.

[캐플렛 부인] 글썄 내가 온 것도 그 결혼 얘기 때문이야. 줄리에트, 말해 보렴. 결혼에 대한 네 의향이 어떠냐?

[줄리에트] 그건 꿈에도 생각 못한 명예예요.

[유모] 명예라니! 아가씨의 유모가 나 혼자니 말하기 뭣하지만, 그런 말재간은 아가씨가 젖꼭지에서 빨아 담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캐플렛 부인] 그럼, 이제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라. 이 베로나엔 너보다 나이가 어린

명문 규수들이 벌써 어머니가 되어 있더구나. 너는 아직 처녀지만 네 나이에 나는 네 어머니가 되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저러나, 저 늙은 패리스 백작이 너를 맞겠다는구나.

[유모] 그분이! 어머니 아가씨, 그분은 온 천지와 같은 분이시지요.--- 글쎄, 신사의 본보기 같은 분이지요.

[캐폴렛 부인] 베로나의 한창 여름에도 그분같이 잘생긴 꽃은 볼 수 없단다.

[유모] 그럼요. 그분은 꽃이죠. 참말로 꽃입죠.

[캐폴렛 부인] 어떠냐?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겠니? 오늘밤 잔치에 그분을 뵙게 될 것이니, 책을 읽듯 젊은 백작의 얼굴을 잘 살펴서, 미의 붓끝이 그려 놓은 기쁨을 찾아보렴. 얼굴 생김 생김이 하나하나 조화되어, 이모저모로 서로 돕고 있고, 그 예쁜 얼굴이 책이라면 안 나타난 점은 눈이라는 여백에서 찾아볼 수 있더구나. 제본이 안 된 애인이랄까, 이 소중한 사랑의 책에 표지만 붙이면 그분의 미는 완성될 거야. 바다도 물고기가 있으므로 좋은 거야.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을 담고 있다면 큰 자랑인 거야. 많은 눈에 영광을 나누는 책이란 황금 표지 안에 황금 얘기를 담은 책이거든. 그러니 그분을 남편으로 모시면 넌 조금도 잃지 않고 그분 것은 모조리 네 것이 되잖니.

[유모] 잃다니, 웬걸요! 여자가 서방님을 모시면 몸이 붓는데요.

[캐폴렛 부인] 간단히 말해 봐라. 패리스님을 사랑할 수 있겠니?

[줄리에트] 보고 정이 드는 것이라면 정이 들도록 잘 보겠어요. 그렇지만 제눈은 엄마가 승낙하신 곳까지만 보고, 그 이상은 안 보겠어요.

(하인 등장.)

[하인] 마님, 손님들이 오셨어요. 식탁은 다 준비되고, 서방님께선 마님을 부르시고, 안에선 젊은 아가씨를 찾고, 부엌에선 유모를 욕하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입니다. 전 가서 접대를 해야겠습니다. 제발 얼른 가 보십쇼.

[페이지] 031

[캐폴렛 부인] 곧 가마. 줄리에트, 백작님이 기다리고 계신단다.

[유모] 자, 아가씨, 행복한 낮과 행복한 밤을 찾으세요.(유모 퇴장.)

[장] 4장

((캐폴렛 집의 바깥))

(로미오, 머큐쇼, 벤볼리오, 가면을 쓴 사람 5, 6명, 햇불을 든 사람들 일행이 등장.)

[로미오] 그런데 무슨 구실을 대고 들어갈까? 아니면 그냥 들어갈까?

[벤볼리오] 그런 수작을 떨 시대는 지났네. 큐핏의 흉내를 내서 수건으로 눈을 가린 채 타타르인의 얼룩덜룩한 장난감 활을 들고, 허수아비같이 아가씨들을 놀라게 할 필요도 없거니와, 등장할 때에 막 뒤의 프롬프터를 따라 간신히 읊어대는 서사도 그만두세. 그쪽 맘대로 생각 하라고 놔두고, 우린 한바탕 춤이나 추고 나오세.

[로미오] 햇불을 이리 주게. 난 기분이 안 나네. 마음이 침울하니까 햇불이나 들겠네.

[머큐쇼] 그래서야 되나. 이봐 로미오, 자네는 꼭 춤을 춰야 하네.

[로미오] 싫어, 정말. 자넨 바닥이 가벼운 무도화를 신고 있지만, 내 마음속 바닥은 납덩어리여서, 땅에 찰싹 붙어 가지고 꿈쩍달싹할 수가 있어야지.

[머큐쇼] 자넨 연인이 아닌가. 그러니 큐핏의 날개라도 빌어 달고 하늘 높이 훨훨 날아 보게 나.

[로미오] 난 큐핏 화살에 워낙 깊이 맞아서, 그놈의 가냘픈 날개론 어디 날 수가 있어야지. 게다가 워낙 심하게 묶여 있으니, 이 괴로움을 뛰어넘을 수도 없고. 난 사랑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밑에 가라앉을 뿐이네.

[머큐쇼] 그럼 자네가 그 짐 밑에 가라앉는다면, 오히려 사랑이 짐만 되겠네그려. 그렇다면 가냘픈 사랑에겐 너무나 큰짐이 되겠는걸.

[로미오] 사랑이 가냘프다고? 사랑은 너무도 우악스럽고, 너무도 억세고, 너무도 모질어 가시처럼 찌르네.

[머큐쇼] 사랑이 우악스럽거든 자네도 우악을 부려 보게. 찌르거든 자네도 찔러 주고, 그리고 때려눕히지. 내 낮쪽에 쇠줄 가면을 이리 주게. 광대같은 낮쪽에 가면이라! 상관있나, 못난 상판을 뚫어지게 불 테면 보라지. 불룩 나온 광대뼈, 이마뼈기가 나 대신 얼굴을 붉힐 테지. (가면을 쓴다.)

[벤볼리오] 자, 노크하고 들어가세. 들어가선 곧 다들 춤을 추세.

[페이지] 032

[로미오] 햇불을 이리 줘. 들뜬 놈팡이들이나 속없는 돛자리에서 뒤꿈치를 비비대게나. 속담에도 있다만 난 촛대를 들고 구경이나 하겠네. 놀이도 한창이니 난 그만 가겠네.

[머큐쇼] 그만 물러가겠다고? 순경 나리의 암호란 말인가. 자, 우리가 구덩이 속에 빠져 있는 자네를 건져내 줘, 미안한 말이지만 귀밑까지 빠져있는 사랑에서 말야. 여, 이건 대낮의 등잔격이 아닌가, 들어가 보세.

[로미오] 아냐, 그렇잖아.

[머큐쇼] 내 말은, 우물쭈물하고 있으면 대낮의 등잔격으로 불이 아깝다는 뜻이네. 말이 진의를 생각해 주게. 인간의 분별력은 다섯 가지 지혜보다 다섯 배나 더 작용하니 말이야.

[로미오] 이 가면 무도회에 가는 진의는 좋지만, 가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인걸.

[머큐쇼] 어째서?

[로미오] 내가 간밤에 꿈을 꾸었네.

[머큐쇼] 나도 꾸었어.

[로미오] 그래, 무슨 꿈을?

[머큐쇼] 꿈을 꾸는 사람은 으레 거짓말을 꾸며대거든.

[로미오] 자면서 참꿈들을 꾸다던데.

[머큐쇼] 아, 그럼 자넨 요녀의 여왕 맵하고 동침했었구먼. 맵은 요정들의 산파요, 시장 나으리 손가락에 번쩍이는 저 보석에 패인 상처보다도 작은 꿀을 하고서 난장이때에 끌려, 자는 사람 코 위를 지나가거든. 맵의 수레는 개암 열매 껍질인데, 아득한 옛날부터 요정들의 수레를 만드는 다람쥐나 좀벌레가 만들었지. 수레바퀴 살은 기다란 거미 다리요, 수레 뚜껑은 메뚜기 날개, 붓줄은 제일 가느다란 거미줄이요, 목걸이는 물기 어린 달빛, 회초리는 귀뚜라미 뼈요, 그 끝은 가는 실, 마부는 회색 외투를 입은 모기 새끼인데, 크기는 게으름뱅이 계집의 새끼손가락에서 비집고 나오는 둥근 꼬마벌레의 절반도 안 되거든. ('게으르면 손톱에서 벌레가 나온다.'는 속담에서 나온 말) 이렇게 맵은 밤마다 행차하는데, 연인들 머릿속을 지나가면 그들은 사랑의 꿈을 꾸며, 벼슬아치 무릎 위를 지나가면 당장에 굶신거리는 꿈이요, 변호사 손가락 위를 지나면 당장에 보수를 받는 꿈, 아가씨들 입술 위를 지나면 당장에 입맞추는 꿈. 그런데 맵은 아가씨들 입에서 과자 냄새가 난다 해서 곧잘 화를 내고 입술에 물집을 만들어 준다나. 때로는 맵이 벼슬아치 콧잔등을 달리면 벼슬아치는 벼슬을 맡아내는 꿈을 꾸며, 혹은 징세될 돼지의 꼬리로 잠자는 목사님 코를 간지럽히면 목사님은

[페이지] 033

현금이 느는 꿈을 꾸거든. 어쩌다가 병사의 목덜미를 지나면 적병의 목을 자르는 꿈으로부

터 시작하여, 돌격, 복병, 스페인 장검의 꿈, 부어라 마셔라 하는 축배의 꿈들을 꾸고, 갑자기 들리는 북소리에 벌떡 잠을 깨어 깜짝 놀라서 한두 마디 기도를 중얼대곤 다시 잠이 들지. 바로 이 땀이 밤중에 망아지 갈기를 땀아 놓기도 하고, 추한 계집 머리털도 뭉쳐 놓곤 하는데, 이게 풀리는 날이면 굉장한 불행이 온다나. 그리고 처녀들이 반듯이 누워서 자고 있을 때에 위에서 짓눌러 무거워도 참도록 익혀 주고, 남편을 잘 받드는 아낙으로 만들어 주는 것도 땀의 장난이라네. 또한 땀은---

[로미오] 췌! 췌! 머큐쇼 췌! 자넨 쓸데없는 소릴 하는군.

[머큐쇼] 그야 꿈 얘기 아닌가. 요 허무맹랑한 공상에서 나온 꿈이란 할일 없는 사람 머리에서 태어난 아기거든. 공기같이 실속 없고 게다가 쫓대 없기론 금방 북쪽의 언 가슴에 정을 보내고 있다가도 발끈 성을 내고 휙 돌아서서 축축한 내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마는 바람보다 더 하지.

[벤볼리오] 자네가 말하는 그 바람 덕분에 우린 할 일을 잊고 있는걸. 이제 만찬도 끝났을 텐데 너무 늦지나 않을까?

[로미오] 오히려 너무 이르지나 않을까 모르겠어. 웬일인지 마음이 자꾸만 설레는군. 지금 저 운명의 별에 걸려 있는 어떤 큰일이 오늘밤 연회를 계기로 무섭게 활동하여, 이 가슴속의 싫증이 나 버린 생의 기한을 엉뚱한 죽음 같은 흉한 형벌로 청산해 줄지도 모르겠네. 하지만, 내 앞날의 키를 잡고 계신 하느님께 나의 인생 향로를 전적으로 맡길 수밖에! 자아, 어쨌든간에 씩씩하게 들어가고 보세.

[벤볼리오] 울러라, 북을.

[장] 5장

((캐폴렛 집의 홀))

(악사들이 대기중, 가면을 쓴 사람들이 등장하여 돌아서 한쪽에 선다. 하인들이 냅킨을 들고 등장.)

[하인1] 설거지도 안 거들고, 포트팬은 어디 갔나? 그러구서도 접시를 치운다나! 접시를 씻는다나!

[하인2] 손님 접대를 한두 사람이 다 해야 하고, 게다가 손은 씻지도 않았으니, 그야 더러울 수밖에.

[페이지] 034

[하인1] 의자는 접어서 치우고, 찬장도 어서 치워. 반상일은 잘 간수하게. --- 여봐, 편도과

자 한 조각만 남겨 놔. 그리고 제발 문지기한테 가서 수잔 그린스톤, 그리고 포트팬!

[하인3] 자, 여기 왔네.

[하인1] 대청에서 자넌 찾고, 부르고, 청하고, 구하고 야단들이네.

[하인4] 한꺼번에 여기 있고 저기 있고 할 수야 있나. 자, 기운을 내세. 잠시 일을 하고, 오래 살고 봐야지. (하인들 퇴장.)

(캐폴렛과 줄리에트가 남녀 손님들과 함께 가면 쓴 자들을 맞는다.)

[캐폴렛]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발가락이 안 부르튼 아가씨들은 여러분과 춤을 추게 되지요. 자아 아가씨들, 이 중에서 누가 춤을 추지 않겠수. 암전빠는 아가씨는 발이 부르터 있겠지. 안 그러우? 잘 왔소, 여러분! 나도 한창때는 가면을 쓰고, 미녀 귀에다 달콤한 얘기를 속삭였다고. 다 옛날이지, 옛날. 잘들 왔소, 여러분! 자, 악사들, 연주를 시작하요. 자리를 넓혀라, 넓혀. 처녀들은 춤을 추세요. (음악이 연주되고, 춤이 시작된다.) 여봐라, 불을 더 밝혀라. 탁자들도 치우고 난롯불은 꺼. --- 방이 너무 덥다. 허어, 뜻밖에 흥겹게 됐군. --- 한데 캐폴렛 일가 어른, 앉으시오, 앉으시라니까. 어른과 나는 춤출 때가 지났습시다그려. 어른하고 같이 가면을 쓰고 마지막으로 춤을 춘 지 몇 해나 되었는지요?

[캐폴렛2] 필경 30년은 되었을 거요.

[캐폴렛] 무슨? 이 어른! 그렇겐 안 됐소, 그렇겐 안 됐어. 그건 루센쇼의 결혼날 후부터니까, 성령강림일이 아무리 빨리 온다 해도 이력저력 25년이나 됐을까. 우린 그때 광대춤을 추었지요.

[캐폴렛2] 더 되오, 더 돼. 지금 그의 아들놈이 그보다 더 나일 먹었소. 30세라오.

[캐폴렛] 그럴 리가? 그애는 2년 전만 해도 아직 미성년이었소.

[로미오] (하인에게) 저기 저 기사의 손을 빚내 주고 있는 여인은 누구냐?

[하인] 모르겠는덱쇼.

[로미오] 아, 저 여자는 햇불에게 더 밝게 타는 법을 가르치고 있구나! 저 여자는 흑인 귀에 달린 값비싼 보석인 양 밤의 불에 걸려 있는 것만 같구나---. 그 아름다움은 쓰자니 너무나 값지고, 속세엔 너무나 아깝구나! 저 여자가 동료들을 압도하는 모습을 좀 봐라. 까마귀 떼 속에 섞인 눈같이 하얀 비둘기가 저럴 테지. 춤이 끝나거든 저 여자 있는 곳을 잘 봐 뒀다가 거

[페이지] 035

친 이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아 보자. 그러면 얼마나 기쁠까. 내 맘이 여태껏 연애를 하고 있었다고? 눈아, 그걸 부정하라! 오늘밤에야 진정한 아름다움을 봤구나.

[티벌트] 저 목소리는 틀림없이 몬타규네 식구다. 애, 칼을 가져오너라. (그의 시동이 나간다.) 이 망할 녀석아, 가면을 쓰고 와서 우리 연회를 망치려는거냐? 문중의 명예를 위해서 저자식을 꽤 죽여도 상관없을 것이다.

[캐플렛] 티벌트! 너 왜 그렇게 화를 내느냐?

[티벌트] 숙부님, 원수 몬타규네 놈이에요. 망할 자식이 오늘밤 잔치를 망치려고 뻔뻔스럽게 와 있군요.

[캐플렛] 로미오 청년 말이냐?

[티벌트] 예, 그 로미오놈이요.

[캐플렛] 잠자코 내버려 뒀라. 저자는 품행이 좋더구나. 사실인즉 베로나는 저자가 자랑이란다. 참 훌륭하고 얌전한 청년이 아니냐. 시중의 전재산을 준대도 내 집에서 저자를 해칠 순 없다. 그러니 참고 모르는 척해. 이게 내 뜻이다. 내 뜻을 존중한다면 좋은 낮을 하고 이맛살을 펴라. 연회엔 당치 않은 상관이니까.

[티벌트] 저런 망할 자식이 다 와 있으니까, 당치 않을 건 없어요. 전 못 참겠어요.

[캐플렛] 가만 뒀라 글썄, 가만 두라니까. 도대체 주인이 나냐, 너냐? 저런, 가만 둘 수 없다고? 별일을 다 보겠네! 손님들 속에서 난장판을 벌이겠다고! 뒤죽박죽을 만들겠다고! 정 그래 볼 테냐?

[티벌트] 하지만 숙부님. 그건 치욕입니다.

[캐플렛] 저런저런, 요놈 버릇없이. 그런 게 다 수치란 말이냐? 그러다간 네게 화가 치밀어 필경 날 거스르고야 말겠구나! 어처구니가 없어. - 불을 더 밝혀라, 불을. 남부끄럽다.-이놈, 혼을 내줄까보다.--- 자아, 여러분 즐겁게들!

[티벌트] 억지로 참자니 성미에 맞잖아 사지가 떨리는군. 나는 물러가야겠다. 하지만 이번 침입은 당장은 달콤하겠지만 머잖아 쓰디쓴 맛을 좀 보게 되리라. (퇴장)

[로미오] (줄리에트의 손을 붙들고) 천하디천한 이 손으로 이 거룩한 성당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라면, 그 죄의 보상으로 내 입술이 낮을 붉힌 두 순례자처럼 대기하고 섰다가 점잖게 키스하여 그 추한 흔적을 씻고자 하오.

[줄리에트] 착한 순례자님, 그건 당신 손에 너무나 욕이 되어요. 당신 손은 것처럼 짐작케 신앙심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성자의 손은 순례자가

[페이지] 036

손을 갖다 대자는 것이고, 손바닥과 손바닥을 맞대는 것이 거룩한 순례자의 키스가 아닌가요.

[로미오] 성자나 거룩한 순례자에게도 입술이 있잖소.

[줄리에트] 아이 순례자님, 그것은 기도를 올리자는 입술이에요.

[로미오] 아, 그럼 성녀님, 손으로 하는 키스를 입술로 하게 해주세요. 입술이 기원하니 허락해 주세요. 신앙이 절망으로 변하면 안 되니까요.

[줄리에트] 성자의 마음은 동하지 않아요. 비록 기원을 들어주는 일은 있더라도.

[로미오] 그럼, 동하지 말고 계시오. 내 기원의 효험을 받으리라, 이렇게 당신의 입술로 내 입술의 죄는 씻어지는구료. (키스한다.)

[줄리에트] 그럼, 제 입술이 그 죄를 짊어지게요.

[로미오] 내 입술에서 죄를? 아, 얼마나 달콤한 꾸밈음인가! 죄를 돌려주오. (키스한다.)

[줄리에트] 키스에도 이유를 붙이시네요.

[유모] 어머니. 이 총각, 아가씨 엄마는 이 집 마님이죠. 훌륭하고 덕이 있으신 마님이죠. 아까 같이 얘기하신 그 따님은 내가 길렀지요. 아가씨를 얻어 가는 분은 정말 돈보따리를 안는 거예요.

[로미오] 캐폴렛 집 딸? 아, 값비싼 거래구나! 내 목숨은 원수의 저당물이 됐구나.

[벤볼리오] 자, 이제 돌아가세. 흥이 한창일 때 사라지는 게 현명하니까.

[로미오] 글썄 그런 것 같아서 더욱 불안하네.

[캐폴렛] 아니오, 여러분 가지 마시오. 간단한 다과도 마련해 놓았소. (가면을 쓴 자들이 캐폴렛 귀에 속삭인다.) 정 그러시겠소? 그럼 다들 고맙소.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들 가시오. 여봐라, 불을 더 밝혀라. 자야! 자리가 불까.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가면 쓴 자들을 밖으로 배웅한다.) 아이구, 이런, 정말 밤이 깊었군. 그럼 자리 가 불까. (줄리에트와 유모만 남고 다 퇴장.)

[줄리에트] 이리 좀 와, 유모. 저기 저 신사는?

[유모] 타이베리오 영감님의 외아들입니다.

[줄리에트] 지금 막 문을 나가시는 분은?

[유모] 글썄, 페트루초댁 도련님인가 본데요.

[줄리에트] 춤도 안 추시고, 지금 그 뒤를 따라나가시는 분은?

[유모] 모르겠는데요.

[줄리에트] 가서 이름을 좀 물어 봐요. 그분이 결혼하셨다면 무덤이 나의 신

[페이지] 037

방이 될 거야.

[유모] 몬타규네 로미오, 저 원수네 집 외아들이라는데요.

[줄리에트] 단 하나의 내 순정이 단 하나의 내 증오에서 싹트다니! 모르는 동안에 너무 일찍 봐 버렸고, 알고 보니 이미 늦었어! 미운 원수를 사랑해야 되다니, 앞날이 염려되는 사랑의 탄생이구나.

[유모] 그게 뭐지요, 뭐지요?

[줄리에트] 같이 춤추던 분한테서 배운 노래예요.

(안에서 '줄리에트' 하고 부른다.)

[유모] 예, 예, 곧 갑니다! 자, 들어가 봅시다. 손님들은 전부 돌아갔어요. (퇴장.)

[막] 2막

[장] 프롤로그

((서사 배우 등장.))

[서사 배우] 이제 낡은 욕정은 무덤 속으로 꺼져 버리고, 젊은 새 애정이 뒤를 이어 움터온다. 죽을 듯 사랑했던 그 미녀도 아름다운 줄리에트에 비교해 보니 미인이 아니다. 이제는

로미오도 사랑을 주고받으며, 서로가 미모에 매혹당한다. 그러나 원수네 집 여자에게 애태워야 하고, 여자도 무서운 바늘에서 달콤한 사랑의 먹이를 훔쳐야 한다. 원수의 몸이니, 그는 가까이 가서 애인들이 늘 하는 맹세도 속삭일 길이 없다. 여자의 연모하는 마음도 그에 못지 않으나, 갓 생긴 애인을 만날 길은 까마득하다. 그래도 정열은 힘을, 시간은 기회를 주어 만나게 하고, 지극히 황홀한 사랑은 극도의 난관도 물리친다. (퇴장)

[페이지] 038

[장] 1장

((캐폴렛 집의 정원))

(담 바깥쪽에는 한길이 보이고 안쪽에는 캐폴렛 집의 이층 창문이 보인다. 로미오 혼자서 한길에 등장.)

[로미오] 마음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이대로 지나갈 수 있단 말인가? 이 흙 같은 몸아, 돌아서서 네 생명의 중심을 찾아가라.

(그는 담에 올라 정원으로 뛰어내린다. 벤볼리오와 머큐쇼가 한길에 나타난다. 로미오는 담 뒤에서 듣고 있다.)

[벤볼리오] 로미오, 여보게 로미오!

[머큐쇼] 참 약군. 필경 자려고 집으로 뺑소니친 게지.

[벤볼리오] 이 길로 달려가다 이 담을 뛰어넘었어. 머큐쇼, 좀 불러 보게.

[머큐쇼] 아냐, 주문을 외어서 불러내겠어. 들뜬 자, 미치광이, 정열의 번뇌, 로미오야, 한숨 짓는 꼴이라도 하고 나오너라. 한 가닥 노래라도 해보라구. 그래야만 내가 안심이 되잖겠어. '아아!' 라고 만이라도 소리질러 봐. 한 마디 '사랑' 이라든지 '비둘기' 라고 만이라도 해봐. 수다장이 비너스한테 한 마디 고운 말이라도 해봐. 비너스의 눈먼 말아들인 저 젊은 에이브럼 큐핏에게 별명 하나라도 지어 줘 보라니까. 코페추아왕은 그 큐핏 화살에 정통으로 맞아서 저 거지 계집을 사랑하게 됐다네. 이 사람아, 안 들리나, 왜 꿈쩍달짝 않나. 이 원숭이란 놈이 죽었나. 정말로 주문을 외어야겠군. 자, 나무야미타불, 로잘라인의 빛나는 두 눈에 두고, 저 높다란 이마와 빨간 입술에 두고, 저 예쁜 발목과 쪽 곤은 다리와 발발 떠는 정강이와 그 여자의 어떤 깊숙한 데에 두고 자네를 부르니, 자아 진실한 모습으로 이리 나오게.

[벤볼리오] 그 말은 들으면 화를 내겠네.

[머큐쇼] 천만에. 가령 그 여자의 둥근 구멍 속에 이상야릇한 혼을 불러 세워놓고, 그자보고 주문을 외어 그것을 쓰러뜨리라고 한다면, 그자가 화를 낼까. 그렇다면 좀 분할 테지. 하나

내 주문은 정정당당하네. 난 그 여자 이름을 빌어 그자를 향해 나오라고 주문을 외고 있는 것뿐이잖나.

[페이지] 039

[벤볼리오] 자아! 로미오는 이슬진 땀을 찾아, 이 수목 속에 숨어 버렸네. 사랑에 눈이 어두우니까 어둠이 가장 알맞을 테지.

[머큐쇼] 사랑이 맹목이라면, 사랑의 화살은 과녁을 쏘아 맞히질 못할 테지. 지금쯤 그자는 비파나무 밑에 앉아서 자기 애인이 비파 열매 같았으면 하고 있을걸. 처녀들은 비파 이름을 불러 보곤 혼자 웃는다나. 아, 로미오 그 여자는 비파 열매가 되고, 로미오 자넨 기다란 배가 됐으면 싶을 테지! 로미오, 그럼 잘 있게. 난 오막 침상으로 가겠네, 이 한테 침상은 너무 추워서 어디 잘 수가 있겠나. 자, 가지 않겠어?

[벤볼리오] 가세, 안 들키려고 숨은 자를 찾아봤자 헛수고지.(두 사람 퇴장.)

[장] 2장

((같은 장소))

[로미오] 상처 맛을 모르는 자만이 남의 상처를 비웃는 법이지. (줄리에트가 이층 창문에 나타난다.) 하지만 췌! 저기 저 창문에서 비쳐 나오는 빛은? 저기가 동쪽이라면 줄리에트는 태양이다. 밝은 태양아, 떠올라서 샘장이 달을 죽여 다오. 달님께 시중드는 처녀인 당신이 달 자신보다 엄청나게 예쁘다 해서 달님은 이미 슬픔에 병이 들어 가지고 창백해 있소. 제발 달의 시녀 노릇은 하지 마시오. 달은 샘장이니까. 달의 시녀 옷은 병이 들어서 창백한 빛깔일 거요. 바보 말곤 누가 그걸 입겠소, 벗어버리시오. 내 아가씨, 아, 내 애인. 아, 저쪽에서도 그렇게 알아주었으면, 입을 여는군. 그래도 말은 없구나. 그러면 어떨까? 저 눈이 말을 하잖는가. 그럼 대답을 해볼까. 그건 너무 뻔뻔스럽지. 내게 말을 거는 것도 아닌데. 온 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별 두 개가 불일이 있어, 저 두 눈에 청하여 자기들이 돌아올 때까지 대신 반짝여 달라고 청한 거야. 만약에 저 두 눈과 그 두 별이 자리를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 저 밝은 뺨은 그 두 별을 햇빛 아래 등불처럼 무색케 할 테지. 하늘로 간 저 두 눈은 온 창공에서 한껏 빛날 테니, 새들도 밤이 아닌 줄 알고 노래할 거야. 저것 봐, 뺨을 손위에 갖다 대는군! 아, 내가 저 손에 낀 장갑이라면 저 불에 닿아 볼 수 있을 것 아닌가.

[줄리에트] 아아!

[로미오] 뭐라 말을 하는군. 아, 빛나는 천사여, 한 번 더 말해 보렴. 오늘밤 내 머리 위에서 빛나는 당신 모습은 날개 돋친 하늘의 천사님이 서서히 흘러가는 구름을 밟고 공중 한복판을 훨훨 지날 때의, 거룩한 모습만 같이

[페이지] 040

빛나는구료.

[줄리에트] 아, 로미오, 로미오님! 왜 이름이 로미오인가요? 아버지를 잊으시고 그 이름을 버리세요. 아니, 그렇게 못 하시겠다면, 저를 사랑한다고 맹세만이라도 해주세요. 그러면 저도 캐플렛의 성을 버리겠어요.

[로미오] 좀더 듣고 있을까, 아니면 이제 말을 걸어 볼까?

[줄리에트] 당신의 이름만이 내 원수예요. 몬타규네 식구가 아니라도 당신은 당신. 아, 딴 이름이 되어 주세요! 몬타규네가 뭐람? 손도 발도 팔도 닳도 아니고, 신체의 어떤 부분도 아니잖아. 도대체 이름이 뭐람? 장미꽃은 다른 이름으로 불리어도 똑같이 향기로울 게 아닌가? 로미오, 역시 로미오라는 이름이 아니라도, 그 이름과 관계없이 본래의 미덕은 그대로 남을 게 아닌가. 로미오님, 그 이름을 버리시고 당신의 신체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 이름 대신에, 이 몸을 고스란히 가져가세요.

[로미오] 그 말대로 당신을 갖겠소. 나를 사랑한다고만 말해 주면, 새로 세례를 받은 것과 같이 이제부터 로미오란 이름을 영영 버리겠소.

[줄리에트] 누구세요, 이렇게 어둠 속에 숨어서 남의 비밀을 엿듣는 분이?

[로미오] 이름으론 댈 수가 없소. 성녀님, 내 이름은 당신의 원수니까, 나 자신한테도 밉소. 만일 종이에 적혀 있다면 그 이름자를 갈기갈기 찢어 버리고 싶소.

[줄리에트] 당신 입에서 나온 말을 들은 것은 채 백 마디도 안 되지만, 그래도 전 그 음성을 알아요. 몬타규덱 로미오님이 아니세요?

[로미오] 당신이 싫다면 그 어느 쪽도 아니지요.

[줄리에트] 하지만 여길 어떻게, 뿔하러 오셨어요? 담은 높아서 오르기 어렵고, 당신의 신분으로 봐서 우리 집 식구에게 들키기라도 하는 날이면 이곳은 죽음의 장소인데.

[로미오] 이까짓 담은 가벼운 사랑의 날개를 타고 뛰어넘었지요, 기껏해야 돌담인데, 감히 사랑을 막을 수 있겠소. 해낼 수 있는 일이라면 사랑은 무엇이건 해내니까요. 그러니까 당신네 집 식구들도 날 막진 못하오.

[줄리에트] 하지만 우리 집 식구들에게 들키면 당신은 죽어요.

[로미오] 아아, 그들의 칼 스무 자루보다 당신 눈이 더 무섭소. 당신만 정다운 눈짓을 보여주면 그들의 악의쯤엔 나는 불사신이오.

[줄리에트] 무슨 일이 있어도 이곳에선 안 들키도록 해주세요.

[로미오] 한밤중의 어둠에 가려 있으니, 그들 눈엔 안 뵈는 것이요. 하나 당신 사랑을 못 받는다면 차라리 이대로 들켜 버리는 게 낫소. 당신의 사랑도 없이 지루하게 사느니보다 그들의 미움에 죽는 편이 낫소.

[페이지] 041

[줄리에트] 누구 안내로 여길 찾아 오셨나요?

[로미오] 사랑의 안내로요. 처음에 찾으라고 재촉한 것도 사랑이고, 지혜를 빌려 준 것도 사랑이요. 난 눈만을 빌려 준 셈이지요. 난 길잡이는 아니지만 당신 같은 보배라면, 머나먼 바닷길, 파도가 출렁거리는 아득한 해안같이 먼 곳이라도 기어코 찾아가겠소.

[줄리에트] 제 낮이 이렇게 한밤의 가면으로 가려져 있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이 불은 수줍은 처녀의 맘으로 빨개져 있을 거예요. 오늘밤 당신이 제 말을 엿들었으니까요, 전 체면도 차리고 싶고, 입밖에 낸 말을 취소도 하고 싶어요. 하지만 체면이여, 안녕! 당신은 저를 사랑하시나요? 그렇다고 대답하실 테지요. 그 말은 믿겠어요. 하지만 아무리 맹세를 하더라도 깨뜨리실는지도 몰라요. 애인들의 거짓말은 조브 신령님도 웃고 마신다잖아요. 아, 그리운 로미오님, 사랑하신다면 솔직히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너무 쉽게 저를 손에 넣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전 심통도 부리고, 찌푸린 상으로 당신을 거절할래요. 그래도 다시 사랑을 애걸해 오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안 그럴래요, 절대로. 그리운 몬타규님, 진정 저는 무척 사랑하고 있어요. 어쩌면 당신은 저를 경박한 여자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더라도 저는 서먹서먹한 채 농간을 부리는 여자들보다는 훨씬 더 진실한 여자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참다운 사랑의 고백을 저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이 엿들지만 애했었다면 정말로 전 좀더 서먹서먹하게 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용서하시고 행여나 들뜬 사랑에서 이처럼 말을 허락한 것이라고 꾸짖지는 마세요. 밤의 암흑 때문에 도리어 탄로된 사랑이니가요.

[로미오] 아가씨, 맹세합니다. 나뭇잎을 온통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는 저 달님을 두고.

[줄리에트] 아, 저 굶주린 달님을 두곤 맹세하지 마세요. 나날이 모양을 바꾸는 변덕스러운 달인걸요. 당신 사랑마저 것처럼 변할까봐 두려워요.

[로미오] 그럼 무엇에다 두고 맹세할까요?

[줄리에트] 행여 맹세는 마세요. 그래도 기어코 맹세를 하시려거든 당신 자신을 두고 맹세하세요. 당신은 저에겐 우상이며 신 같은 존재. 당신을 믿겠어요.

[로미오] 내 가슴에 사무치는 사랑이 흑--- .

[줄리에트] 글썄, 맹세는 하지 말라니까요. 당신이 반갑기는 해도, 오늘밤의 이 맹세는 싫어요. 어쩐지 너무나 무모하고, 너무나 경솔하고 갑작스러워서 '저것 보라.' 고 말할 새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번갯불만 같아요. 그

[페이지] 042

럼 안녕히. 이 사랑의 꽃봉오리는 여름날 바람에 마냥 부풀었다가, 다음에 만날 때엔 예쁘게 필 거예요. 안녕히, 안녕히! 달콤한 안식이 저의 가슴속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신 가슴속에도 깃들기를.

[로미오] 이렇게 아쉽게 헤어져야 하다니.

[줄리에트] 그럼 어떻게 하면 오늘밤이 섭섭하지 않을까요?

[로미오] 서로 진정을 모아 사랑의 맹세를 바꿉시다.

[줄리에트] 그건 청하기도 전에 벌써 드리잖았어요? 그야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요.

[로미오] 그럼 그걸 다시 가져가고 싶단 말ियो? 왜, 무엇 때문에?

[줄리에트] 다만 아낌없이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서예요. 하지만 난 내 사랑을 내가 탐내고 있나봐. 제 맘은 바다같이 한이 없고, 사랑도 바다같이 깊어요. 그래서 당신께 드리면 드릴 수록 제게는 더 많아져요. 두 가지가 한량없이 있으니깐요. 안에서 누가 부르는가봐요. 그럼, 안녕히. --- (유모가 안에서 부른다.) 응. 곧 갈게, 유모! --- 그리운 몬타규님, 변하지 마세요. 잠깐만 계세요. 곧 돌아올게요. (줄리에트 안으로 들어간다.)

[로미오] 아, 참으로 행복한 밤이다! 지금은 밤이니까 이게 모두 꿈이나 아닐까? 너무나 달콤해서 현실이 아닌 것만 같구나.

(줄리에트 다시 이층 창문에 등장.)

[줄리에트] 세 마디만 더 여쭙겠어요. 그리운 로미오님, 이번에는 정말 안녕! 당신의 사랑이 진정이시고 결혼할 생각이시라면, 내일 사람의 보내겠으니, 어디서 언제 결혼식을 올리실 것인지 알려 주세요. 그러면 운명을 송두리째 당신 발 밑에 내던지고, 당신을 낭군삼아 세상 어느 곳이라도 따라가겠어요.

[유모] (안에서) 아가씨이!

[줄리에트] 응, 곧 갈게. --- 그러나 진심이 아니시라면 제발 저--- .

[유모] (안에서) 아가씨이!

[줄리에트] 응, 곧 갈게. 이번 일은 없는 걸로 치세요. 저만 슬픔 속에 빠질 뿐이에요. 아무튼 내일 사람을 보낼게요.

[로미오] 천지신명께 맹세코--- .

[줄리에트] 그럼 천 번이고 안녕히! (줄리에트 들어간다.)

[로미오] 당신의 빛이 사라지니 천 배나 더 흥이 깨져 버렸어. 애인을 만나러 갈 적엔 학교를 파한 아들과 같이 기쁘지만, 애인과 헤어질 때엔 침울한

[페이지] 043

낯짝을 하고 학교에 가는 것과 같다고나 할까.

(줄리에트 다시 이층 창문에 등장.)

[줄리에트] 저, 로미오님, 아, 매 사냥꾼 소리로 저 수매를 다시 불러들였으면! 갇힌 이 몸, 큰 소릴 지를 수도 없고, 그렇지만 앓다면 저 메아리 신이 사는 동굴을 부수고, 공중에 올려대는 그 산울림이 내 소리보다 더 목이 쉴 때까지 되풀이해서 로미오를 불러 보련만.

[로미오] 나의 영혼인 그녀가 내 이름을 부르는구나. 밤에 듣는 애인 목소리, 은방울 소리같이 참 상쾌하구나. 마음이 맑아지는 부드러운 음악 같구나!

[줄리에트] 로미오님!

[로미오] 오, 줄리에트.

[줄리에트] 내일 몇 시에 사람을 보내면 좋을까요?

[로미오] 9시경에 보내 주오.

[줄리에트] 꼭 보낼게요. 마치 그 시간이 스무 해나 앞날같이 기다려져요. 그런데, 왜 당신을 불렀는지 깜박 잊었네요.

[로미오] 다시 생각나실 때까지 이렇게 서 있으리다.

[줄리에트] 그대로 서 계시도록, 나도 이것 이외의 다른 것은 다 잊고 있을래요. 당신 곁에 있어 참으로 기쁘다는 것만을 생각하고요.

[로미오] 그럼, 당신이 그냥 잊고 있듯이, 나도 이것 이외의 다른 것은 다 잊고 그대로 서

있겠소.

[줄리에트] 벌써 날이 새나봐. 이젠 돌아가셔야죠. 하지만 이대로 멀리 보내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장난꾸러기 아가씨는 손에서 새를 놔 주었다가도, 사슬에 얽힌 불쌍한 죄수같이 발에 묶인 비단실을 다시 잡아당긴다나요.

[로미오] 나는 당신의 그 새가 되고 싶소.

[줄리에트]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너무 귀여워하다가 죽이고 말는지도 모르겠어요. 안녕히, 안녕히! 헤어지기가 이처럼 슬프니 날이 쉼 때까지 줄곧 안녕히를 부르고 있을래요.

[로미오] 당신의 두 눈엔 잠이, 가슴엔 평화가 깃드시오! 난 그 잠이 되고 평화가 되어 고요히 당신 위에 깃들고 싶소! (줄리에트가 들어간다.) 이 길로 신부님께 가서 도움을 구하고, 내 행운을 보고해야겠다. (퇴장)

[페이지] 044

[장] 3장

((로렌스 신부의 사제관))

(신부 혼자 바구니를 들고 등장.)

[신부] 회색 눈의 아침이 찌푸린 밤의 얼굴 위에 미소를 던지고 동녘 하늘은 구름을 빗줄기로 물들인다. 얼룩진 어둠은 주정뱅이같이 비틀거리면서, 태양신의 수레바퀴로 난 태양의 길에서 흩어져 달아나는구나. 자아, 태양이 그 불타는 눈을 쳐들고, 낮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어 축축한 밤이슬을 말리기 전에, 독초랑 귀한 약즙이 들어 있는 꽃이랑 이 바구니에 가득 따 담아야지. 자연의 어머니인 대지는 또한 자연의 모태이기도 하거든. 또 그 모태에서 가지각색의 자식들이 태어나, 다정한 대지의 품에서 젖을 빨고 있더군. 훌륭한 여러 가지 약효를 지닌 것이 적지 않을뿐더러, 어느 하나 무슨 약효를 안 지닌 것이 없고, 또한 그 약효는 모두 가지각색. 아, 풀, 나무, 돌 할것없이 그 본질 속에는 한결같이 괴상한 약효가 들어 있어 세상엔 아무리 흉한 것일지라도 무엇인가 특수한 약효를 세상에 주지 않는 것이 없고, 또한 아무리 좋은 것도 그 용도를 그르치면, 본성에 위배되어 악용의 해를 면치 못하는 법. 덕도 남용되면 악으로 변하며, 악도 활용에 따라서는 이득이 될 수 있다. (로미오 등장하여 엿듣는다.) 가련한 이 꽃봉오리 속엔 독도 들어 있거니와 약효도 들어 있다. 냄새는 상쾌하지만, 입에 넣게 되면 온갖 감각은 심장과 함께 딱 멎는다. 어디 초목뿐인가, 인간 내부에도 덕과 악이라는 두 왕이 늘 진을 치고 있으니, 악이 성하면 인간이란 수목은 죽음이란 벌레한테 당장 먹히고 마는 법.

[로미오] 신부님, 밤새 안녕하세요?

[신부] 그대에게 주님의 은총이! 이렇게 일찍 나를 찾아온 분이 뉘시오? 아, 누구라고. 아니 이렇게 일찍 잠자리를 떠나온 것을 보니 네 맘이 괴로운가보구나. 늙은이들 눈은 죄에 대한 심로로 밤을 지새는데, 심로가 있는 곳엔 잠이 없게 마련이지. 허나 근심 걱정이 없는 젊은이가 사지를 펴는 곳엔 황금의 잠이 지배하는 법이거든. 헌데 이렇게 일찍 일어난 것을 보니 필경 넌 무슨 심로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가보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 로미오가 간밤에 잠자리에 들지 않은 게지. 어때, 맞지?

[로미오] 예, 자지 않았어요. --- 하지만 잠보다 더 달콤한 안식을 가졌지요.

[페이지] 045

[신부] 하느님 맙소사! 그럼 로잘라인하구?

[로미오] 로잘라인이라구요? 천만에요, 신부님. 전 그 이름이 주는 고민도 잊어버렸습니다.

[신부] 거 잘했어. 그래 어딜 가 있었니?

[로미오] 다시 물으시기 전에 얘기하죠. 실은 어젯밤 원수네 집 잔치에 갔다가, 뜻밖에도 저에게 상처를 안겨 준 사람을 만났지요. 물론 상대방도 제게서 상처를 입었지요. 그런데 우리 두 사람 구원은 신부님의 조력과 거룩한 치료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신부님, 제겐 아무런 원한도 없어요. 보십시오, 저의 애원은 원수 편에도 약이 됩니다.

[신부] 좀더 솔직 명백하게 말해 봐라. 막연하게 고백해선 막연한 용서밖에 못 받는다.

[로미오] 그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캐폴렛 갑부네 집의 예쁜 따님에게 저는 순정을 바쳤지요. 내가 사랑하듯이 저편에서도 나를 사랑합니다. 인연은 완전히 이루어졌으니, 다만 신부님께서 신 앞에 결혼식 주례를 서주십시오. 우리가 언제 만나 어디서 사랑을 속삭이고, 어떻게 맹세를 나누었는가는 가면서 얘기하겠습니다만, 부디 오늘 저희들의 결혼식을 올리게 해주십시오.

[신부] 프란체스코 성자님! 이게 웬 변괴람! 네가 그렇게도 사랑하던 로잘라인을 이렇게 쉽게 잊었던 말이나? 젊은이들의 사랑은 과연 마음속에 있지 않고 눈 속에 있는가보구나. 원세상에! 너는 로잘라인 때문에 그 파리한 뺨을 눈물로 무던히도 적시지 않았느냐. 맛 잃은 사랑에 간을 맞추려고 공연히 짠 눈물을 무던히도 쏟았었지. 아직껏 태양은 네 한숨을 하늘에서 건질 않았고, 이전에 네가 앓던 소리는 아직도 이 늙은 귀에 쟁쟁 울린다. 저것 봐, 네 볼엔 이전의 눈물 자국이 아직도 안 씻어지고 남아 있잖은가. 너 자신도 변함이 없고, 그 고민도 네 고민이었을진대, 너 자신도 그 고민도 모두 로잘라인 때문이 아니었던가. 아니, 사람이 변했던 말이나? 이런 격언이라도 외어 봐요. --- '사내자식도 못 믿을 세상이니 여자의 타락쯤이야.'

[로미오] 로잘라인을 사랑한다고 신부님은 툭하면 저를 꾸짖지 않았습니까.

[신부] 사랑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빠진 것을 꾸짖었지.

[로미오] 그리고 사랑 같은 건 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신부] 무덤도 아닌데, 하나를 파문고 다른 하나를 파내라는 것인가, 어디?

[로미오] 제발 꾸짖진 마십시오. 지금 제가 사랑하는 아가씨는 정에는 정을, 사랑에는 사랑으로 보답해 주는 여자입니다. 하지만 로잘라인은 그렇지

[페이지] 046

않았습니다.

[신부] 로잘라인이 잘 보았어. 네놈 사랑은 수박 겉핥기로 골자를 모르는 사랑이거든. 아무튼 가자. 이 들뜬 청년아, 나와 같이 가자. 나도 생각이 있으니 너를 도와주겠다. 이 인연으로 다행히 두 집안의 원한이 진정한 사랑으로 풀릴지도 모르지.(두 사람 퇴장.)

[장] 4장

((광장))

(벤볼리오와 머큐쇼 등장.)

[머큐쇼] 제기랄, 로미오 이자가 어디 있담? 간밤엔 집에 안 돌아왔나?

[벤볼리오] 부친 집엔 안 돌아왔다네. 그 집 하인한테 물어 보았네만.

[머큐쇼] 아, 저 희멀겑고 무정한 계집, 저 로잘라인 때문에 하도 고민하는 바람에 필경 미쳐 버리잖을까.

[벤볼리오] 캐폴렛 영감님의 친척 티벌트가 로미오 부친 집에 편지를 보내왔다네.

[머큐쇼] 결투장일 테지, 틀림없이.

[벤볼리오] 로미오는 물론 답장을 하겠지.

[머큐쇼] 그야 글을 아는 사람이면 편지엔 응답하는 것이 당연하지.

[벤볼리오] 그게 아니라, 결투장을 받은 이상 응전의 답장을 쓸 것이라는 말일세.

[머큐쇼] 아 불쌍한 로미오, 그자는 벌써 죽었네, --- 허연 계집년의 까만 눈에 찔리고, 귀는 사랑의 노랫가락에 터지고, 염통 한가운데는 눈먼 소년 궁수놈의 장난감 화살에 찔려 있거든. 그래 가지고 티벨트에게 덤빌 수 있나, 어디?

[벤볼리오] 대관절 티벨트는 뭔데?

[머큐쇼] 고양이 임금보다 단수가 높은 놈이지. 흥, 그녀석 제법 예의 범절을 잘 지킨다더군. 노랫가락이라도 맞추듯이-시간과 거리와 박자를 맞춰서 덤빈다나. 잠깐 쉬었다가-하나, 둘, 세번째는 재깍 가슴이라나. 비단 단추를 치는 백정놈, 칼쓰기론 일류요, 문벌로도 이름난 신사라서 결투에도 일일이 따진다나! 아, 천하 무적의 앞치기 뒤풀이. 으흠 어때!

[벤볼리오] 뭐가?

[페이지] 047

[머큐쇼] 저 되지 못한 말을 괴상하게 떠벌리는 빌어먹을 새끼들, 저 신식 말을 주워대는 새끼들 말이야! '거 참, 어지간한 칼솜씨요! 굉장하시요. 참 훌륭한 똥갈보외다!' 라나. 여보게 영감, 한탄할 일 아닌가. 저 아니꼬운 쇠파리 같은 것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시달려야 하다니, 글썄 원. 저 멧쟁이 놈들, 유행만 따르고 유식한 말만 주워대는 자식들, 줄곧 신식만 따르는, 구식 결상엔 빠가 아파 편히 앓을 수도 없다나. 아이구 저런, 저런.

(로미오 등장.)

[벤볼리오] 로미오가 오네, 마침 로미오가!

[머큐쇼] 얼빠진 게 꼭 말라빠진 청어 같군. 아, 저 사람 좀 보게? 왜 저렇게 생선꼴이난 말 일세! 저자도 페트라르카 같은 연가를 짓는다나. 페트라르카의 애인 로라도 자기 애인에 비한다면 부엌데기라네.-하지만 노래로 보아 로라의 애인은 저자보다는 웃수였지.-그뿐인가, 자기 애인에 비하면 다이도도 추녀일 뿐이요, 클레오파트라는 껌둥이 계집, 헬렌과 헤로도 추잡한 갈보요, 푸른 눈인가 뭔가를 가진 티스비 역시 명함도 못 내민다는 거야. 로미오님! 봉주르! 자네 바지가 프랑스식 나팔바지니까 인사도 프랑스식으로 해야 격에 맞을걸세. 근데 자네 간밤에 어지간히 우릴 골탕 먹였네그려.

[로미오] 야, 두 친구, 다 안녕한가. 아니, 골탕을 먹었다니?

[머큐쇼] 그렇잖구. 골탕 먹인 생각 안 나나?

[로미오] 용서하게, 머큐쇼. 워낙 중대한 일이 있어서 그랬어. 그런 경우엔 실례쯤 할 수 있잖아.

[머큐쇼] 그럼, 자네 같은 경우엔 남더러 무릎을 꿇고 굽신거리란 말이군.

[로미오] 그건 절을 하는 게 아닌가?

[머큐쇼] 그건 그렇지.

[로미오] 참 점잖은 해석인걸.

[머큐쇼] 이래봐도 난 점잖기론 정화일세.

[로미오] 그럼 꽃이란 말인가?

[머큐쇼] 암.

[로미오] 하긴 내 신발에도 꽃무늬가 놓여 있네.

[머큐쇼] 이 친구 여간 아니군. 그럼, 자 이런 농담을 따라와 보겠나? 자네 신발이 닳아 떨어질 때까지야. 그땐 한 꺼풀 신바닥이 다 닳아도 농담만은 끝보기 좋게 남을 게 아닌가.

[페이지] 048

[로미오] 거 참 끝보기 좋게 한 장남은 농담이로군.

[머큐쇼] 이와 벤볼리오, 좀 도와주게. 내 기지는 기진맥진이네.

[로미오] 자네 기지를 막 짜내 보게, 짜내 봐. 안 그러면 결판이 났다고 외칠테니.

[머큐쇼] 그야, 그 바보 거위 쫓기 같은 기지 시험엔 손들었네. 자넨 바보 같은 지혜를 나보다 확실히 다섯 배나 더 갖고 있으니까. 어때, 바보 거위라고 하니까 입맛이 나나?

[로미오] 자네가 그 바보 거위가 아니었나?

[머큐쇼] 그따위 소리 다시 해봐라. 귀를 깨물어 줄 테니까.

[로미오] 착한 거위님, 제발 깨물진 마오.

[머큐쇼] 기지치곤 짹짹하군. 제법 톡 쏘는 양념 같네그려.

[로미오] 글썸 거위 요리엔 좋은 양념이 아니겠나?

[머큐쇼] 아, 양피같은 기지 좀 보게, 한 치를 한 자로 늘이는군.

[로미오] 그럼 실컷 좀 늘어 볼까. 글썄 거위란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암만 보아도 자넨 천하없는 바보 거위라니까.

[머큐쇼] 어때, 실연으로 앓는 것보다는 낫잖아? 오늘은 아주 제법인데. 그래야지. 우리 로미오가 오늘은 본래의 모습을 찾았군 그래. 사랑에 깰깰거리면서 작대기를 구멍 속에 감추려고 축 늘어져서 오르락내리락 뛰어다니는 놈이야말로 천하의 바보지 뭐야.

[벤볼리오] 제발 그만두게, 그만둬!

[머큐쇼] 남의 비위를 거슬러 놓고 얘기를 그만두라고?

[벤볼리오] 그냥 뒀다간 얘기가 한이 없겠는걸.

[머큐쇼] 허허, 자네 잘못 봤군! 난 짧게 하려는데. 사실은 내 얘기도 바닥이 드러났으니 더 이상 늘어놓을 생각은 없네.

[로미오] 거 잘됐네!

(옷을 잘 입은 유모가 하인 피터를 데리고 가까이 오는 것이 보인다.)

[벤볼리오] 배다, 배!

[머큐쇼] 두 척이다, 두 척! 바지와 고쟁이다.

[유모] 피터야!

[피터] 예예.

[유모] 부채를 이리 쥐.

[머큐쇼] 피터야, 얼굴을 가리신단다. 부채가 마님 얼굴보다 곱잖아.

[페이지] 049

[유모] 여러 양반들, 아침 안녕하세요.

[머큐쇼] 마님, 저녁 안녕하십니까.

[유모] 벌써 저녁때가 됐어요?

[머큐쇼] 아요. 저 음탕한 해시계 손목이 지금 정오의 그 대목을 꼭 누르고 있잖습니까.

[유모] 원 상스럽긴! 무슨 사람이 저럴까.

[로미오] 마님, 저 사람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려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유모] 참 근사하군요. '자기 자신을 파괴하려고'라고요! 저 여러 양반님, 어디 가면 로미오 도련님을 만날 수 있을지 이 중에 누가 아세요?

[로미오] 그건 내가 알지요. 허나 로미오 도련을 만나고 보면, 처음 찾았을 때보다는 더 늙어 있을 거요. 그 이름으론 내가 제일 젊지요. 하기가 이만큼 못난 녀석도 없지만.

[유모] 아이 재미있어라!

[머큐쇼] 아니, 못났다는데 재미있다구요? 참 이해가 빠르시군! 약다, 약아!

[유모] 덕이 로미오 도련님이시라면, 친히 여쭙 얘기가 있어 그러는데요.

[벤볼리오] 만찬에 초대할 모양이군.

[머큐쇼] 토끼다, 토끼! 와, 나왔다!

[로마오] 뿔이 나왔어!

[머큐쇼] 보통 토끼가 아냐. 만두에 쓰이는 토끼가 아니라 좀 퀴퀴하게 낡아빠져서 쓰지 못하는 저 갈보 말야.(머큐쇼가 뛰어나가면서 노래를 한다.) 쉬어빠진 늙다리 토끼 갈보. 쉬어빠진 늙다리 토끼 갈보. 만두에 썩 좋지. 쉬어빠진 토끼 갈보한테 누가 돈을 다 쓸까보냐, 쓰기도 전에 쉬어 있는걸. 여보게 로미오, 자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나? 거기서 함께 식사나 하세그려.

[로미오] 뒤에 따라감세.

[머큐쇼]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노래하면서) 마님 마님, 마님. (머큐쇼와 벤볼리오 퇴장.)

[유모] 제발 잘 가요. 횡설수설 늘어 놓고, 무슨 양반이 저렇담?

[로미오] 마님, 저 사람은 자기 혼자 떠드는 소리를 듣고 좋아하는 사람이죠.

[페이지] 050

한 달 걸려도 못다 할 일을 일분간이면 다 지결일 사람이라오.

[유모] 내 욕만 해봐, 가만 안 둘 테니까. 제까짓것 힘이 세더라도 스무 명쯤은 해치울 수 있다구. 내가 못 해내면 해낼 사람을 불러오지 뭐. 망할 자식! 내가 제 놀림감인 줄 아나봐. 나를 백정놈의 짝궁인 줄 아나봐. (피터를 보고서) 헌테 넌 어찌자구 멀거니 서서 보구만 있는 거야. 놈들이 달려들어 맘대로 나를 희롱하는데!

[피터] 아무도 유모를 희롱하진 않던데요. 그런 일만 있다면 내 칼을 번개같이 빼지요. 쌍관이 벌어지고 이쪽의 잘못만 없다면, 정말 칼빠기론 남에게 뒤떨어질 내가 아니니까요.

[유모] 참말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구먼. 망할 자식! 그건 그렇고 도련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집 아가씨가 저보구 도련님을 찾아가 보라고 했읍죠. 아가씨 부탁은 저 혼자만 알고 있어요. 하지만 세상 말마따나 도련님이 우리 아가씨를 바보의 천당으로 띄어 가겠다면, 그건 이만저만한 행패가 아니지요. 짧은 아가씨를 숙여서 농락한다면, 그건 참말로 부녀자에겐 행패지요. 또 사내로서 비겁한 짓이죠.

[로미오] 유모, 아가씨께 이렇게 전해 주오, 유모 앞에 맹세하지만, 저--- .

[유모] 아이구, 예! 꼭 그렇게 전할게요. 아, 우리 아가씨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로미오] 유모, 대체 뭐라고 전하시겠다는 거요? 유모는 내 말을 채 듣지도 않고서!

[유모] 저 보기엔 도련님은 참 신사 양반답게 맹세하시더라고 전하죠.

[로미오] 저, 이렇게 전해 주오. 오늘 오후 어떻게 해서든지 고해성사에 나오시면, 로렌스 신부님의 성당에서 고해를 하고 나서 곧 결혼식을 하기로 한다고요. 자, 이것은 수고값이오.

[유모] 어머니, 한푼도 받지 않겠어요.

[로미오] 자아, 받아 두시오.

[유모] 오늘 오후라고 하셨죠. 예, 꼭 그렇게 전할게요.

[로미오] 그리고 유모는 성당 담 뒤에서 기다려 주오. 한 시간 안으로 내 하인이 사다리같이 엮은 줄을 가지고 갈 것이오. 그건 밤중에 나를 행복의 절정으로 올려다 줄 줄사다리요. 그럼 안녕히 가시오. 단단히 부탁하오. 사례는 하리다. 아가씨께 안부 전해 주오.

[유모] 그럼 하느님의 축복이! 그런데 저 한 가지--- .

[로미오] 뭐 말이죠, 유모?

[유모] 도련님의 하인은 믿음직한 사람인가요? 속담에도 있지만 두 사람은

[페이지] 051

비밀을 지켜도 세 사람은 위험하다구요.

[로미오] 걱정 마요. 내 하인은 강철같이 믿음직한 놈이니까.

[유모] 건 그렇고, 우리 집 아가씨 정말 귀여운 분이시죠. 아이구, 그것이 참으로 귀여운 소리를 하잖았겠어요. 아, 지금도 페리스라는 귀족 양반이 아가씨한테 훌쩍 반해 있지만, 가엾게도 아가씨 그 양반을 보느니 차라리 두꺼비를 보겠다잖아요. 나는 가끔 아가씨 노여움을 사 가면서 페리스 양반이 미남이 아니냐고 말해 봤지만요. 그러나 내가 그 말만 하면 아가씨 참말로 뱃바닥같이 안색이 험썩해지지 않아요, 글썩. 그런데 저 로즈메리꽃과 로미오 도련님은 같은 글자로 시작하는 게 아닌가요?

[로미오] 그렇소. 그건 왜 묻소? 둘 다 아르(R) 자로 시작하오.

[유모] 어머, 농담을 다, 그건 개이름 자인데. 아르자는 저--- . 아냐. 좀더 다른 글자로 시작할 거야. 나도 알지. 그건 그렇고, 아가씨는 도련님의 이름자와 로즈메리꽃을 붙여서 참말로 훌륭한 식귀를 짓겠지요. 도련님이 읽으시면 참 좋아하실 거예요.

[로미오] 그래, 아가씨께 안부를 전해 주오.

[유모] 예, 천 번이라도 전하겠어요. (로미오 퇴장.) 피터야.

[피터] 예예.

[유모] 앞서라, 어서 가자. (두 사람 퇴장.)

[장] 5장

((캐폴렛 집의 정원))

(줄리에트 등장.)

[줄리에트] 9시를 쳤을 때 유모를 보냈지. 반시간이면 꼭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그이를 못 만났는가봐, 그렇진 않을 거야. 아이, 절름발이 유모 같으니! 역시 사랑의 심부름엔 사념을 보내야 해. 사념은 험준한 산 너머로 그림자를 쫓아내는 햇빛보다 열 배나 빠르거든. 그러기에 사랑의 수레는 날개도 가벼운 비둘기가 끌고, 바람같이 재빠른 큐핏 날개가 있지. 지금 태양은 하룻길 맨 꼭대기에 올라와 있고, 9시부터 12시까지 꼭 세 시간이나 되는데, 아직도 유모는 안 돌아오는구먼. 유모에게 정열과 끓는 젊은 피가 있다면 공같이 빨리 왔다갔다해서, 내 말은 그이한테 날아가고, 그이 말은 이리 날아오고 할 텐데. 늙은이들은 마치 송장

같애. --- 다루기

[페이지] 052

힘들고, 느리고, 둔하고, 납같이 푸르고.

(유모와 피터 등장.)

[줄리에트] 어머니, 유모다! 아, 착한 유모, 소식은? 그이를 만났어? 하인은 좀 나가 있으라고 해요.

[유모] 피터야, 넌 문간에 나가 있거라.

[줄리에트] 자아, 착한 유모--- 아니, 왜 그렇게 슬픈 안색이세요? 슬픈 소식이라도 기쁘게 이야기해 줘요. 좋은 소식도 그렇게 슬픈 얼굴로 얘기해서야, 음악같이 달콤한 소식을 망치잖겠어.

[유모] 아, 고단해. 잠깐만 기다려 줘요. 원 왜 이 뼈가 이렇게 아플까! 무던히도 뛰어다녔구먼!

[줄리에트] 내 뼈라도 대신 주겠으니 소식부터 말해 줘요. 자, 얼른 말해 봐요. 착한 유모, 얼른.

[유모] 맙소사, 성미도 급하긴! 잠깐을 못 기다린답? 이것 봐요, 이렇게 내가 숨이 차잖아요?

[줄리에트] 숨이 차다고 말할 숨은 있으면서 뭐가 숨이 차요? 미적미적 변명하는 시간이 대답하는 시간보다 더 기네. 그래, 소식은 좋아, 나빠? 어서 대답해 봐요. 자세한 얘기는 천천히 들어도 좋으니 어서 내 속을 풀어 달라니까. 나쁜 소식, 좋은 소식?

[유모] 참, 아가씨두 바보같이 골랐어. 아가씨 사내를 고를 줄도 모르나봐. 로미오라구! 당치도 않지. 그 양반 얼굴은 누구에게도 안 빠지고 다리는 누구에게도 비할 바 없지. 그리고 손발과 몸 맵시도 말할 나위도 없으니, 이 역시 비할 바 없고. 예의범절의 꽃이라고 할 순 없지만, 참말로 어린양같이 얹전하더구먼. 이봐요, 어서 가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려요. 그래 점심은 먹었어요?

[줄리에트] 아니, 아직. 하지만 그까짓 얘기라면 벌써 나두 다 알고 있어. 우리 결혼 말이야, 그이가 뭐라고 했어, 응?

[유모] 아 골치야! 웬 골치가 이렇게 쑤신담! 스무 조각이라도 난 것처럼 아프구먼. 그리고 또 허리도, 아이구 허리아, 허리! 제기, 아가씨 심부름을 하느라고 이곳 저곳 뛰어다니다가

죽게 됐네.

[줄리에트] 편찮다니 참 미안해요. 이봐요, 착한 유모, 그이가 뭐라고 그러셨지?

[유모] 그이는 참 점잖은 신사답게 말하시더구먼요. 얌전하고, 미남이고, 또

[페이지] 053

참말로 예의 바른 신사답게 말하시더구먼요. --- 그래,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줄리에트] 어머니가 어디 계시냐구? 안에 계시지 뭐. 다른 데 계실라구? 대답도 참 이상해라. '그이는 말하시더구먼요.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라뇨?

[유모] 아이구, 성모님! 그렇게 몸이 다나? 내 참! 이게 내 뼈아픈데 대한 약값인가? 앞으로 자기 일일랑 자기가 하구료.

[줄리에트] 무던히 수선스럽군. 그래, 그이가 뭐라고 하셨어?

[유모] 아가씨 오늘 고해성사에 나갈 승낙을 얻어 놓으셨죠?

[줄리에트] 응.

[유모] 그럼, 어서 로렌스 신부님의 사제관으로 가 봐요. 서방님이 아가씨 아내로 삼으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것 봐, 두 불엔 벌써 피가 올라오는군 그래. 무슨 말만 들어도 금방 빨개지거든. 얼른 성당에 가 봐요. 난 출사다리를 가지러 다른 길로 가 봐야겠어. 밤이 되면 그분은 그 출사다리를 타고 새의 보금자리로 올라가게 되지. 난 아가씨 기쁘게 해드리려고 보람도 없이 고생만 하는군. 하지만 밤이 되면 당장 아가씨가 짐을 받을 차례야. 어서 가 봐요. 난 무엇을 먹어야겠어. 어서 사제관으로 가 보라니까요.

[줄리에트] 행복 찾아 어서 가야지. 착한 유모 안녕히. (두 사람 퇴장.)

[장] 6장

((로렌스 신부의 사제관))

(신부와 로미오 등장.)

[신부] 하느님, 이 거룩한 식을 축복하시와, 후에 슬프게 우리를 책망하지 마옵소서.

[로미오] 아멘, 아멘. 허나 어떠한 슬픔이 닥쳐오더라도 그녀를 만남으로써 맛보는 기쁨을 당하진 못합니다. 신부님, 신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손을 맺어만 주십시오. 사랑을 잡아먹는

죽음더러 무슨 짓이고 하라지요. 그녀를 내 것이라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니까요.

[신부] 그와 같이 격렬한 기쁨은 격렬하게 끝나며, 불과 화약이 서로 닿자마자 폭발하듯이 승리의 절정 속에서 죽는 법. 지나치게 단 꿀은 달기 때문

[페이지] 054

에 도리어 싫어지며, 맛을 보면 입맛도 망치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적당히 해야 한다. 생명이 긴 사랑은 다 그런 법이다. 서두르면 살피 가는 것보다 오히려 더디니라. 아가씨가 오는구먼.

(줄리에트 등장.)

[신부] 자아, 저렇게 가벼운 걸음걸이엔 저 딱딱한 바닥 돌이 조금도 닳지 않겠지! 사랑하는 자는 여름날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거미줄을 타도 안 떨어진다는 거야. 사랑의 기쁨은 그렇게도 가벼운 것이거든.

[줄리에트] 신부님, 안녕하세요?

[신부] 로미오가 우리 두 몫의 인사를 할거다.

[줄리에트] 그럼, 로미오님도 안녕하세요. 그렇게 안해 두면 로미오님의 인사가 너무 황송해서. (로미오와 껴안는다.)

[로미오] 아, 줄리에트, 당신과 내 기쁨의 양은 같더라도, 그 표현에 있어서 당신이 위라면, 제발 당신의 속삭임으로 이 근처 공기를 향기롭게 해 주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만나 서로 맛보는 꿈 같은 행복을 음악과 같이 풍요하게 말해 주오.

[줄리에트] 진정한 사랑은 말보다 내용이 더 충실하니, 겉치레보다 실속을 자랑삼아요. 가난뱅이나 가진 돈을 헤아릴 수 있어요. 저의 순정은 너무나 커서, 그 절반도 헤아릴 수 없어요.

[신부] 자, 나와 함께 가서, 어서 일을 마치자. 좀 안된 얘기다만, 성당이 두 사람을 하나로 맺어 주기 전엔, 너희들만 둘 순 없다. (세 사람 퇴장.)

[막] 3막

[장] 1장

((광장 (살인행진곡 추방령)))

(메큐쇼, 벤볼리오, 그리고 이들의 하인들 등장.)

[벤볼리오] 여보게 머큐쇼, 우린 그만 돌아가세. 날씨는 무덥고, 캐폴렛네

[페이지] 055

것들이 나다니고 있네. 마주치면 씹을 면하지 못할걸. 글썄 이렇게 더운 날씨엔 피도 미칠 듯이 끓을 테니까.

[머큐쇼] 술집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칼을 상 위에 내던지며 '너 같은 건 소용 없어.' 하고 지껄이고는, 두 잔째 술이 돌자 이유도 없이 점대인한테 칼을 빼대는 자가 있다더니, 자네가 바로 그따위로군.

[벤볼리오] 내가 그래 그따위라고?

[머큐쇼] 허허, 이탈리아 천지에 자네같이 화 잘 내는 자도 없으렸다. 금방 성이 나서 발끈 하고, 금방 발끈하다가 성을 내거든.

[벤볼리오] 뭐가 어떻다고?

[머큐쇼] 글썄, 자네 같은 자가 둘만 있다간 서로 죽일 것이니, 둘 다 없어지고 말 거야, 자넨 아마 턱수염이 저편에 한 올 더 많다고 시비를 거는가 하면, 또 호도를 까는 자만 봐도 자네 눈알이 호도 빛깔이란 이유만으로 승강일 할거네. 그야 그런 눈이 아니고서야 어디 그런 싸움거리를 캐낼 수가 있나? 자네 대가린 달걀 속같이 싸움만 잔뜩 차 있는 데다가, 싸움 때마다 얻어맞아 끓은 달걀같이 터져 있네 그려. 언젠가도 거리에서 누가 기침을 해서 양지쪽에서 졸고 있던 자네 개를 깨웠다고 그자와 싸웠겠다. 자넨 또 재봉사가 부활제 전에 새 옷옷을 지어 입었다고 시비하지 않았어? 누구하곤 새 신에 현 끈을 끼웠다고 싸웠지? 그러고서도 나더러 싸움을 하지 말라고 충고를 해?

[벤볼리오] 내가 자네같이 싸우기 좋아한다고 치면, 내 생명은 통틀어서 한시간 15분어치도 안 되게.

[머큐쇼] 통틀어라고? 허어, 기가 막혀!

(티벌트와 그 밖의 사람들 등장.)

[벤볼리오] 저봐, 정말 캐폴렛네 것들이 오잖나.

[머큐쇼] 제기, 올 테면 오라지 그래.

[티벌트] 내 뒤에 바짝 다가서라. 저것들한테 말을 붙여 봐야겠다. 여러분 안녕하시오. 당신

네 가운데 한 사람과 할 얘기가 한 마디 있소.

[머큐쇼] 우리들 가운데 누구하고 한 마디 할 얘기가 있다고? 말쑥을 제대로 채우지그래. 한 마디와 한바탕이라고.

[티벌트] 당신네 편에서 기회만 마련해 준다면 그냥 물러설 이쪽도 아니지.

[머큐쇼]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지 않는다면 그편에서 좀 마련할 순 없나?

[티벌트] 머큐쇼, 임마, 넌 로미오 녀석하구 짝이 돼 가지구--- .

[페이지] 056

[머큐쇼] 짝? 그래 우리가 떠돌이 악사 패거리인 줄 아나? 우릴 거지 악사로 쳐도 좋다. 그렇다면 좀 시끄러운 소리를 들려주마. 자, 이게 악기 채다. 춤이나 좀 춰 봐라. 망할 자식, 짝이 다 뭐냐!

[벤볼리오] 여긴 한길이네. 어디 조용한 곳으로 들어가서 서로 불만을 조용히 따지든지, 이대로 그냥 헤어지든지 하세. 눈들이 죄다 보고 있잖나.

[머큐쇼] 사람의 눈은 보라고 달린 거야, 맘대로 보라지. 난 남의 비위를 맞추자고 물러서는 것은 질색이니까.

(로미오 등장.)

[티벌트] 자, 당신과는 화해해야겠어. 이젠 저 녀석이 나타났으니까.

[머큐쇼] 목을 매 죽을 일이군. 로미오가 네 종놈 옷이라도 입고 있단 말이나? 어서 싸움터로 나서 보지, 로미오가 따라갈 테니! 그래서야 어디 귀하가 로미오를 저 녀석이라고 할 수 있을까.

[티벌트] 이봐, 로미오, 내가 네놈한테 아첨을 한다 해도 이보다 더 좋은 말은 할 수 없다. 이 왕패녀석아.

[로미오] 여보게 티벌트, 나는 자네를 사랑할 까닭이 있어서 그 무례한 인사도 참네. 나는 왕패가 아니네. 그러니 좋게 헤어지세. 자넨 아직 나를 몰라보는가 보이.

[티벌트] 이놈, 일전에 네가 준 모욕이 그 길로 씻어질 줄 아느냐. 어서 이쪽으로 돌아서서 칼이나 빼.

[로미오]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자네를 모욕한 일은 없네. 오히려 나는 자네가 상상도 못 할

만큼 자네를 사랑하네. 그 까닭은 차차 알게 될 거야. 여보게 캐폴렛, 그 이름부터 내 이름만큼이나 소중하네만, 그만 진정하게.

[머큐쇼] 아니, 뭘 그토록 비겁하게 찢찢매며 빌어? 일격이면 끝장이 날 게 아닌가. 티벨트 이 쥐잡이놈아, 좀 기어 나와 보겠나? (칼을 뺀다.)

[티벨트] 날 어떡하겠다는 거야?

[머큐쇼] 고양이 족속의 임금놈아. 네 구생 중 하나만을 내 맘대로 하자 이거다. 앞으로도 네 태도 여하에 따라선 나머지 여덟마저 때려잡겠다는 거다. 칼자루를 쥐고 칼집에서 칼을 좀 빼 보잖겠나? 어서 빼 봐. 빨리 안 빼면 내 칼이 네놈 귀로 날아간다.

[티벨트] 그럼 덤벼 봐라. (칼을 뺀다.)

[로미오] 여보게 머큐쇼, 칼을 집어넣게.

[머큐쇼] 자, 어디 네놈의 칼 숨씨 좀 볼까. (둘이서 싸운다.)

[페이지] 057

[로미오] 여보게 벤볼리오, 칼을 빼 가지고 이자들의 칼을 쳐서 떨어뜨리게. 창피하잖나, 이렇게 난폭한 짓은 하지 말게. 티벨트, 머큐쇼, 베로나의 거리에서 이렇게 싸우지 말라는 영주님의 엄명이 있잖았나. 아서, 티벨트, 머큐쇼! (티벨트가 로미오의 팔 밑으로 머큐쇼를 찌르고 달아난다.)

[머큐쇼] 아이구 찢렸다. 네놈들네 두 집 다 망해 버려라! 난 가망이 없다. 그놈은 달아나 버렸나? 상처 하나도 안 입고?

[벤볼리오] 뭐, 다쳤어?

[머큐쇼] 응, 응, 좀 할퀴었네 할퀴었어. 그래도 심한 상처야, 의사가 와야 될 상처지. 내 하인놈은 어디 있느냐? 임마, 어서 의사 선생을 모셔와. (시동 퇴장.)

[로미오] 이 사람아, 기운을 내게. 상처는 대단찮아.

[머큐쇼] 아냐, 상처가 샘만큼 깊지 않고, 성당 문만큼 넓진 않아도, 이 상처면 충분하네. 내 일 나를 찾아보게. 무덤에서나 만날 수 있을 거야. 정말이지 이젠 세상 하직하는군. 빌어먹을 두 집안 같으니! 제기랄! 개가, 쥐가, 생쥐가, 글썄 고양이가 다 사람을 할퀴어 죽이다니! 산수책이나 들여다보면서 칼싸움하는 허풍장이 악당, 왈패녀석이! 제기, 자네 어찌자고 뛰어 들었어? 난 자네 팔 밑으로 다쳤어, 팔 때문이라구.

[로미오] 좋도록 하자는 것이 그만.

[머큐쇼] 이봐 벤볼리오, 어디 근처 집으로 날 좀 데려다 줘. 난 기절할 것만 같아. 두 놈네 집안 다 망해 버려라! 그놈들이 날 구더기밥으로 만들어 버렸군. 당했다. 당했어, 이렇게 완전히. 네놈들네 두 집 때문이야. (벤볼리오가 그를 부축해 나간다.)

[로미오] 영주님의 근친이요, 내 친구인 저 사람은 나 때문에 저렇게 치명상을 입었다. 내 명예도 티벌트의 욕설에 먹칠을 당했고---. 한 시간 전에 친척 연분이 맺어진 티벌트인데. 아, 사랑하는 줄리에트여, 당신의 미모가 날 열간이로 만들고, 강철같이 용감한 내 성격도 녹여 놓았구료!

(벤볼리오 다시 등장.)

[벤볼리오] 아이구, 여보게 로미오, 용감한 머큐쇼는 죽었다네, 저 늪스런 혼은 너무나 엉뚱하게 이 세상을 마다하고 구름 위로 올라가 버렸다네.

[페이지] 058

[로미오] 오늘의 불행은 두고두고 화근이 되렸다. 이것은 재앙의 시작, 후일 결말은 오고 말렸다.

(티벌트 등장.)

[벤볼리오] 불같이 화가 나 가지고 티벌트가 돌아오는군.

[로미오] 이놈, 머큐쇼를 죽이고 넌 살아서 날뛰느냐! 관용이 다 뭐냐, 하늘에 팽개치자. 눈에서 불을 뿜는 분노에 말기자꾸나! 야, 티벌트야, 아까 내가 나를 '악당' 이라고 불렀지만, 자, 도로 찾아가라. 머큐쇼의 혼은 우리들 머리 위 근처에서 너와 같이 가려고 기다리고 있다. 너 아니면 내가, 혹은 둘이 다 그를 따라가야 한다.

[티벌트] 망할 자식, 여기서 내가 그놈의 짝이었지. 저승에도 같이 보내 주마.

[로미오] 그것은 이 칼이 정할 문제다. (둘이 싸우다가 티벌트가 쓰러진다.)

[벤볼리오] 이봐 로미오, 어서 피해!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네. 티벌트는 쓰러졌어. 멍하니 서있다가 큰일나네. 체포되면 영주는 사형을 내릴 거네. 어서 피하게, 어서.

[로미오] 아, 난 운명에게 희롱당하는 바보로구나.

(로미오 퇴장.)

[벤볼리오] 뭘 꾸물거리고 있어?

(시민들 등장.)

[시민] 머큐쇼의 살해범은 어디로 도망쳤어? 살인자 티벌트는 어디로 달아났어?

[벤볼리오] 티벌트는 저기 자빠져 있소.

[시민] 이봐, 일어나서 같이 가자. 영주님의 이름으로 너를 체포하겠다.

(영주, 몬타규와 캐폴렛, 이들 두 사람의 부인 등 등장.)

[영주] 이 싸움을 시작한 패썹한 것들은 어디 있느냐?

[벤볼리오] 아, 영주 각하, 이 끔찍한 불행한 싸움의 경위를 제가 다 말씀드

[페이지] 059

리겠습니다. 여기 쓰러져 있는 자는 로미오 청년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각하의 친척인 용감한 머큐쇼는 저자가 죽었습니다.

[캐폴렛 부인] 티벌트, 내 조카, 오빠의 아들이! 아, 영주님! 아이구, 영감! 아, 가까운 일가의 피가 쏟아졌어요. 공정하신 영주님, 우리의 피 값으로 몬타규네 피도 흘리게 해주세요. 아, 티벌트, 조카야!

[영주] 여봐라, 벤볼리오, 이 무참한 싸움은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

[벤볼리오] 여기 쓰러져 있는 티벌트는 로미오 손에 죽었어요. 하지만 로미오는 싸움이란 쓸데없는 일이 아니냐고 점잖게 타이르고, 각하의 노염을 살 것이 아니냐고도 말했지요. 부드러운 얼굴에 무릎을 굽혀 가며 점잖은 말로 달랬지만, 막무가내로 흥분하여 덤벼드는 티벌트의 분노가 예리한 칼을 혈기왕성한 머큐쇼 가슴에 겨누자, 역시 흥분한 머큐쇼도 흥측한 칼을 빼들고, 마구 욱질하면서 한 손으론 싸늘한 죽음의 칼날을 쳐 제치며 다른 손으론 되받아 쳤는데, 티벌트도 능란한 숨씨로 되받아 쳤죠. 이때 로미오는 '그만, 이 사람들! 이 사람들아, 그러지말어!' 하고 큰 소릴 치기가 바쁘게 날쌔게 팔로 그자들의 필사적인 칼싸움을 말리려고 두 사람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이때 로미오의 팔 밑으로 티벌트의 흥측한 칼이 늠름한 머큐쇼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여 티벌트는 일단 달아났다가 금방 되돌아왔는데, 이번에는 로미오도 복수심에 불타 있어서, 두 사람은 번개같이 맞붙어 싸웠지요. 제가 칼을 들고 말릴 새도 없이 티벌트는 살해되어 쓰러지고, 로미오는 핵 돌아서서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상이 진상입니다. 거짓이 있다면 이 벤볼리오를 죽여주십시오.

[캐폴렛 부인] 저이는 몬타규네 집사람이에요. 그편을 두둔해서 허위 진술을 하고 있어요.

이 망측한 싸움엔 20명이나 대들어서, 그 20명이 한 사람의 생명을 없앤 것이예요. 영주님, 부디 공정하게 판결해 주세요. 로미오는 티벨트를 죽였으니, 그를 살려 둘 수는 없어요.

[영주] 로미오는 티벨트를 죽였고, 티벨트는 머큐쇼를 죽였소. 그럼 머큐쇼의 값비싼 피 값은 누가 치를 것인가?

[몬타규] 영주 각하, 그건 로미오가 아닙니다. 로미오는 머큐쇼의 친구였습니다. 로미오가 티벨트를 죽인 것은 잘못입니다만, 그는 법률이 행할 일을 대신 했을 뿐입니다.

[영주] 그럼, 그 죄로 로미오를 당장 추방하겠다. 나까지 너희들 싸움에 말려들었고, 너희들의 망측한 싸움 때문에 이렇게 일가의 피를 흘리고 말았구나. 따라서 너희들 모두에게 뉘우칠 만한 엄벌을 내릴 터이다. 소청이나 변명은 이제 안 듣겠다. 울고 빌어도 용서 않겠다. 허니 그런 수작은 일체

[페이지] 060

하지 말라. 속히 로미오를 퇴거시켜라. 그러지 않았다가 만약 발각되는 날이면, 그것이 마지막인 줄을 알아라. 여봐라, 시체는 치우고, 내 처분을 기다려라. 살인범을 용서하는 자비는 살인을 조장할 뿐이다.

[장] 2장

((캐폴렛의 집))

(줄리에트 혼자 등장.)

[줄리에트] 불붙은 다리를 가진 준마들아, 피버스가 머물 방의 숙소를 향해 빨리 달려가거라. 피튼 같은 마부라면 너희들을 서쪽으로 마구 몰아서 당장에 킁킁한 밤을 가져다 줄 것을. 사랑의 무대인 밤아, 빈틈없이 방장을 둘러쳐 다오. 그래야 방랑자의 눈도 가려져 로미오님은 남의 입에도 안 오르고 남의 눈에도 안 띄고서 이 팔 안으로 뛰어들 수 있을 게 아니냐. 애인끼리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등불 삼아 사랑의 행사를 볼 수 있다잖은가. 아니, 사랑이 맹목적인 것이라면 밤이 안성마춤이지. 점잖은 밤아, 마님같이 온통 검은 옷을 잔뜩 차려입는 밤아, 숫처녀 총각이 씨름하여 이기고 지는 법을 어서 와서 부디 좀 가르쳐 다오. 그리고 이 불에서 팔딱이는 순정의 피도 너의 새까만 외투로拭워 다오. 그러면 수줍은 사랑도 대담해져서 참된 사랑의 행위를 정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게 아니냐. 어서 와라, 밤아! 로미오님, 밤을 낮같이 비추시는 당신도 어서 와요! 밤의 날개에 올라타신 당신은 까마귀 등위에 내린 눈보다 더 눈부실테지요! 어서 와라, 정다운 밤아. 빛깔은 검지만 정겨운 사랑의 밤아, 어서 와서 우리 로미오님을 갖다 다오. 그리고 그이가 죽으면 네게 줄 테니 받아서 작은 별로 만들어 다오. 그러면 온 하늘이 참으로 아름답게 빛날게 아니냐. 그래서 온 세계도 밤에 흘러 저 찬란한 태양을 숭배하지 않을 거야. 아, 난 사랑의 집을 사 놓고도 살아 보지 못하고, 팔린 몸이면서 아직껏 귀염도 못 받고 있단 말인가. 오늘은 왜 이렇게 지루할까.

명철 전날 밤에 새 옷을 받아 놓고도 입지 못하는 어린애같이 안타깝구나. 아, 마침 유모가 돌아오네.

(유모 줄사다리를 들고 등장.)

[페이지] 061

[줄리에트] 무슨 기별을 가지고 왔을 거야. 로미오님의 이름만이라도 말하는 입이라면, 천사의 웅변이지. 자, 유모, 무슨 소식? 들고 온 건 뭐지? 그이가 들고 가라고 준 줄사다리?

[유모] 응, 응, 그 줄사다리예요.(줄사다리를 털썩 내려놓는다.)

[줄리에트] 아이 참, 그런데 왜 그렇게 손을 비트는 거야?

[유모] 아, 그이가 죽었어요. 죽었어! 아가씨, 우린 이제 파멸이에요, 파멸. 아, 그이는 세상을 떠났어, 살해당했어, 죽었어!

[줄리에트] 설마 하늘이 그렇게도 무정할 수가 있을까?

[유모] 무정한 건 하늘이 아니라 로미오라구요. 아, 로미오, 로미오, 그런 일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로미오가 글썩!

[줄리에트] 망할 유모, 왜 그렇게 날 못살게 굴어? 그런 잔인한 말은 무서운 지옥에나 가서 떠들어요. 그래 로미오가 자살을 했어? '응' 이라고만 해봐. '응' 이라는 그 단 한 마디, 괴룡의 살기등등한 눈보다 더 지독할 것이니. 그러한 '응' 만 있다면 나는 내가 아니지. 그야 그이 눈이 분명히 감겼기에 유모가 '응' 하겠지. 그이가 죽었다면 '응'허구, 그렇지 않거든 '아니'라고 그래요. 유모의 말 한 마디로 내 행, 불행은 결정되니까.

[유모] 오, 하느님! 나는 상처를, 그 남자다운 가슴에 난 것을 내 눈으로 보았어. 불쌍한 송장, 끔찍하게도 얼굴은 잿빛으로 변하고, 온통 피투성이가 되어, 전신에 피가 엉겨 붙구, 난 그걸 보고 기절을 했어요.

[줄리에트] 아, 이 가슴아, 터져라! 불쌍한 파산자인 이 가슴아, 당장 터져버려라! 이 눈은 감옥으로 가고, 다신 자유를 보지 말라! 더러운 진흙 같은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서 여기선 그만 살고, 로미오와 들어서 하나의 관에 털썩 누워라!

[유모] 아, 티벌트, 티벌트님, 이 세상에서 제일 친한 내 친구! 아, 암전하고 착한 티벌트님, 이 늙은이가 지지리 늦게까지 살아 남아서 당신의 죽음을 다 보게 되다니!

[줄리에트] 이렇게 별안간 거꾸로 붙어대니, 이게 웬 폭풍이오? 로미오가 살해당했다고? 티벌트도 죽고? 나의 가장 사랑하는 오빠와 그보다 더 사랑하는 남편이? 그렇다면 무서운 나

팔아, 최후 심판 날임을 알려라. 그 두 분이 죽고서야 누가 남아서 산다더냐?

[유모] 돌아가신 건 티벨트님이라고요. 로미오는 추방당했어요. 그이를 죽인 로미오는 추방당했어요.

[줄리에트] 아이구머니다! 로미오의 손목이 티벨트의 피를 쏟게 했다고?

[페이지] 062

[유모] 그랬어요, 그랬어요! 아이구. 그랬어요!

[줄리에트] 아, 꽃 같은 낮쪽에 감춰진 독사의 마음! 용이 그렇게도 아름다운 굴속에 산 예가 있었던가? 어여쁜 폭군, 천사 같은 마귀, 비둘기 깃을 단 까마귀, 늑대같이 잔인한 양새끼, 성자 같은 외모에다 더러운 속, 외모와는 정반대인 마귀 같은 성자, 고결한 불한당! 아, 조화된 자연아, 마귀의 혼을 세상의 낙원같이 아름다운 육체 속에 담아 넣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니? 그렇게도 더러운 내용의 책이 그렇게도 아름답게 제본된 예도 있었던가? 아, 그토록 눈부신 대궐 안에 그런 가짜가 살 줄이야!

[유모] 사내는 신용도 명예심도 없구, 믿을 수도 없어요. 모두들 거짓말로 맹세하고, 또 맹세는 안 지키고 모두 진실하지 못하고, 사기꾼들이예요. 근데 하인은 어디 갔니? 술이나 좀 다우. 이렇게 슬픈 불행과 괴로움 때문에 내가 늙는다니까. 로미오란 놈, 빌어먹어라!

[줄리에트] 그런 악담을 하는 유모의 헛바닥이나 빌어먹으려무나! 그인 그런 악담을 받을 분이 아니예요. 그이 이마에 그런 욕설이 부끄러워서 얼씬이나 할 줄 알아. 그이 이마는 명예가 천하에서 으뜸가는 제왕으로서 군림 할 옥좌예요. 아, 사람답지 않게 어찌자구 내가 그이를 책망했던 것일까?

[유모] 그럼, 아가씨 사촌오빠를 죽인 사람을 칭찬하겠어요?

[줄리에트] 내 남편을 욕할 수야 있어? 아! 불쌍한 이, 세 시간 전에 당신 아내가 된 내가 당신의 명예를 망쳐 놓았으니, 무슨 말로 그 명예를 회복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나쁜 사람, 무엇 때문에 오빠를 죽였어요? 하지만 안 그랬다면 나쁜 오빠가 내 남편을 죽였을 지도 모를 일이야. 미련한 눈물아, 어서 네 우물로 돌아가 버려! 슬픔에 흘러야 할 네 눈물이, 잘못 알고 기쁨에 쏟고 있구나. 티벨트가 죽이려던 내 남편은 살고, 내 남편을 죽이려던 티벨트는 죽었다. 이건 전부 기쁨인데, 어찌자고 내가 운담? 하지만 티벨트의 죽음보다 더 나쁜 아까 그 한 마디가 나를 죽였지. 그 한 마디 잊어버렸으면! 그러나, 아 죄진 맘을 흉악한 죄악이 질책하듯, 그 한 마디가 내 기억을 고문하는구먼--- . '티벨트는 죽고 로미오는 추방' 의 '추방', 그 한 마디는 티벨트를 만 명 죽였다는 것이나 다름없지. 티벨트의 죽음,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슬픔인데 쓰라린 슬픔은 동무를 좋아하는지. 다른 슬픔과 꼭 짝을 지어야 하겠다면, 티벨트가 죽었다고 유모가 말했을 때에,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니, 두 분이 다라도 돌아가셨다고 왜 말 안했어? 그랬다면 혼해 빠진 통곡만으로 그칠 게 아니야? 그러나

티벨트가 죽었다는 말끝에 '로미오는 추방!'이라고 했으니, 그런 말을 하는

[페이지] 063

것은 아버지, 어머니, 티벨트, 로미오, 줄리에트가 모두 칼을 맞아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로미오는 추방!'이 한 마디의 살인력엔 밀도 끝도 경계도 없고 무게도 달 수 없어. 그런 슬픔을 표현할 말이라곤 있을 수 없지. 그런데 유모,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유모] 티벨트님 시체를 붙들고 통곡을 하고 계십니다. 나와 같이 가 볼까요? 데려다 드릴게요.

[줄리에트] 부모님은 오빠의 상처 자국을 눈물로 씻으실 텐가? 부모님의 눈물이 마르거든 내 눈물을 로미오님의 추방을 위해서 흘려야지. 그 줄사다리엔 치위 줘요. 가없는 줄사다리야. 너와 나는 속았구나. 로미오님은 귀양가신다는 구나. 그이는 너를 내 침실로 통하는 신작로로 아셨는데, 이제 이 숫처녀는 처녀 과부로 죽을 수밖에. 이리 온, 줄사다리야. 유모 이리와요. 나는 신방으로 가겠어. 그리고 로미오 아님 죽음에게 숫처녀를 바치겠어!

[유모] 아가씨, 어서 방으로 가 보세요. 로미오님을 내가 찾아내서 아가씨 기쁘게 해드릴게요. 그분 계신 곳을 난 알고 있어요. 이것 봐요, 아가씨의 로미오님은 밤에 여기로 오시게 돼요. 난 그분한테 가 봐야지. 그분은 로렌스 신부님 사제관에 숨어 있어요.

[줄리에트] 아, 그이를 만나 줘요! 그리고 그리운 그이에게 이 반지를 드리고 마지막 작별하러 꼭 오시라고 전해 줘요.

(두 사람 퇴장.)

[장] 3장

((로렌스 신부의 사제관))

(뒤에 서재가 있다. 신부 등장.)

[신부] 로미오야, 나오너라. 그 겹에 질린 얼굴을 봐라. 재앙이 네 재간에 만했다고나 할까, 넌 불행과 인연을 맺었구나.

(로미오가 서재에서 나온다.)

[페이지] 064

[로미오] 신부님, 무슨 소식이 있습니까? 영주의 선고는? 아, 제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슬픔이 저와 사귀고 싶어한다는 겁니까?

[신부] 가엾게도, 넌 그런 슬픔과 너무나 가까이 있어! 영주님의 선고는 알아 왔다.

[로미오] 영주님의 선고는 사형 이하는 아니겠죠?

[신부] 그보다 관대한 선고가 영주님의 입에서 떨어졌다. 사형은 아니고 육체의 추방이다.

[로미오] 아니, 추방? 제발 인자하게 '사형'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추방은 사형보다도 훨씬 더 무서우니 '추방'이라곤 하지 말아 주세요.

[신부] 이곳 베로나에서 추방이다. 진정해라. 이 세상은 넓고 크니까.

[로미오] 베로나의 성 바깥엔 세상이 없습니다. 연옥과 고문과 바로 지옥이 있을 뿐입니다. 이곳에서의 추방은 세상에서의 추방이고, 세상에서의 추방은 곧 사형입니다. 그러니 '추방'은 사형의 미명이지요. 사형을 '추방'이라고 하는 것은 금도끼로 이 목을 쳐서 죽이고, 그 숨씨를 자랑하며 빙그레 웃는 격이지요.

[신부] 아, 저런 무서운 죄 될 소리를 하다니! 아, 저런 흉악한 망은의 말이 다 있나! 네 죄는 국법으론 마땅히 사형이지만, 인자하신 영주님은 네 편을 들어 법을 굽히시고 무서운 사형 대신에 '추방'을 선고하셨다. 이같이 관대한 자비를 너는 모르는구나.

[로미오] 그건 고문이지 자비는 아니어요. 줄리에트가 사는 이곳이야말로 천당이지요. 못 고양이와 개와 새앙쥐들과 온갖 하찮은 것들도 이곳 천당에 살면서 줄리에트를 볼 수 있는데 --- . 차라리 썩은 살에 날아드는 파리떼들이 이 로미오보다 훨씬 더 명예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들은 줄리에트의 저 하얀 손위에 앉기도 하고 또 순진한 처녀의 순결한 수줍음으로 위아래 입술이 닿는 것조차 죄라고 여기는지 항상 빨개져 있는 그녀의 입술에서 영원한 축복을 흠치기도 하지요. 파리들조차 허락되는 행복인데 이 로미오는 멀리 도망쳐야 하는군요. 그래도 신부님은 추방을 사형이 아니라고 하십니까? 이 로미오는 행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추방당하는 신세라니. 파리들도 허락되는 행복인데 나는 추방이군요. 신부님은 배합한 독약도, 예리하게 날이 선 칼도, 그 밖에 어떠한 비겁한 방법으로도 당장에 죽일 무슨 방법이 없어서 저를 '추방'으로 죽이시나요? '추방'이라니! 오 신부님, 그런 말은 지옥에 떨어진 악당의 말씨, 그 말엔 아비규환의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성직에 몸을 두시고, 참회를 들으시며, 죄를 용서하시는 신부님은, 더구나 세상이 아다시피 저의 친구이

[페이지] 065

시면서 어찌자고 '추방'이라는 말로 이 몸을 토막토막 잘라 놓으시는 가요?

[신부] 어리석게, 그 무슨 미친 소리냐. 내 말을 좀 들어 봐라.

[로미오] 아이구, 또 추방애길 하시겠죠.

[신부] 그 말을 막아낼 갑옷을 주마--- . 고통을 덜어 줄 것이랄까 철학을 주마. 추방당하더라도 네게 위로가 되도록.

[로미오] 또 추방인가요. 철학은 벽에다 걸어 놔두십시오. 철학이 줄리에트를 만들 수도 있고, 도시를 옮겨 놓을 수도 있고, 영주의 선고를 취소할 수도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못할 바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제발 아무 말씀도 말아 주세요.

[신부] 너 같은 미치광이에겐 귀도 없는가보구나.

[로미오] 물론이죠. 똑똑한 사람에겐 눈이 없잖습니까?

[신부] 어디 네 입장을 함께 얘기해 보자.

[로미오] 직접 느끼지도 않은 일을 신부님은 말씀하실 자격이 없어요. 신부님도 나같이 젊고, 줄리에트 같은 애인하고 결혼한 지 한 시간만에 티벌트를 죽이고, 사랑에 대이 나간 상태에서 나같이 추방을 당해 보십시오. 그때는 신부님도 말씀하실 자격이 있을 겁니다. 머리카락을 뜯으면서 지금의 나같이 땅바닥에 나자빠져서 파지도 않은 무덤의 깊이를 재지 않을 수 없을 테니까요. (밖에서 노크 소리.)

[신부] 일어나라. 누가 문을 두드린다. 로미오야, 어서 숨어라.

[로미오] 싫습니다. 이 비통한 신음의 한숨이 안개같이 나를 둘러싸서 사람 눈으로부터 가려 준다면 모르겠지만. (또 노크 소리.)

[신부] 저것 봐, 노크하잖니! -거 누구시오? 자 로미오, 일어나라, 잡히겠다.- 잠깐 기다리시오!- 어서 일어나라니까. (더 크게 노크 소리.) 얼른 서재로 피하라니까. 예, 예, 갑니다! 아니, 이게 무슨 바보짓이냐? -예, 갑니다! (계속 노크 소리.) 누가 이렇게 요란스레 문을 두드리시오? 어디서 왔소? 무슨 일이요?

[유모] (밖에서) 용무를 얘기하겠으니 어서 문 좀 열어 주세요. 줄리에트 아가씨한테서 온 사람이에요.

[신부] 그럼, 어서 들어오시오.

(유모 등장.)

[유모] 아 신부님, 말씀해 주세요, 제발. 우리 집 아가씨의 서방님은 어디에

계세요? 로미오님이 어디 계신가요?

[신부] 저기 땅바닥에, 제 눈물에 취해 있구요.

[유모] 아이구, 아가씨와 꼭 같구먼. 아가씨가 꼭 저 모양이에요.

[신부] 슬픈 마음의 일치, 가련한 신세들이로군!

[유모] 아가씨도 꼭 저렇게 엎드려서 울고불고 야단이에요. 일어나세요, 어서, 대장부라면 일어나세요. 줄리에트 아가씨를 위해서 제발 얼른 일어나세요. 어찌자구 그렇게 엎드려서 끙끙 앓고 있어요?

[로미오] (일어나면서) 유모!

[유모] 예, 예, 죽으면 세상 만사 다 끝장이잖아요

[로미오] 줄리에트라고 했지? 그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소? 그의 근처의 피로써 우리들의 갓 싹튼 행복을 더럽혀 놓았으니, 그녀는 나를 상습적인 살인자로 알겠지요? 그녀는 어디서 뭘 하고 있소? 내 비밀의 아내는 우리들의 깨어진 사랑을 뭐라고 말하던가요?

[유모] 아, 아가씨 아무말없이 울고만 있어요. 침대에 쓰러지다가 하면 벌떡 일어나 티베트를 부르고 로미오를 부르짖고 또다시 쓰러지는 거예요.

[로미오] 마치 그놈의 이름이, 백발백중의 총구에서 날아온 총알처럼 그녀를 쏘아 죽여 버린 셈이지요. 그 이름을 가진 자의 이 벌어먹을 손목이 그의 일가를 죽였으니까요. 아, 말씀해 주세요. 신부님. 몸의 어느 망측한 곳에 내 이름자가 들어 있는가요? 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밍살스런 부분을 도려내 버리고 말겠어요.(로미오가 자기 몸을 찌르려 하자 유모가 단도를 잡아챈다.)

[신부] 거 무슨 미친 짓이냐! 네가 대장부냐? 외관만은 대장부 같지만 그 눈물은 아녀자의 눈물. 이 미친 짓 또한 분별없는 짐승의 흥분이 아니냐. 남아의 탈에다 당치 않게 아녀자의 속을 하고 있구나. 인간의 탈을 지고서 행동은 보기 흉한 짐승이 아니냐! 기가 막혀. 정말이지 네가 그런 인간인줄은 몰랐다. 너는 티베트를 죽였지. 한데 자살을 하겠다고? 그리고 그런 망측한 짓을 네 몸에 저질러서, 너를 생명으로 아는 네 아내까지도 죽이겠다고--- ? 어찌자고 너는 너의 탄생과 하늘과 땅까지도 저주하느냐 말이다. 탄생과 하늘과 땅, 이 삼자가 서로 어울림으로써 곧 너라는 인간이 존재하게 된 것인데, 너는 그것들을 당장 팽개치겠다 말이나? 허허, 너의 용모와 애정과 이성이 부끄럽구나. 구두쇠처럼 이것들을 죄다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 너의 용모와 애정과 이성을 빛내 줄 올바른 곳엔 하

나도 안 쓰는 구나. 대장부의 용기에서 어긋나면, 네 훌륭한 용모는 한갓 밀랍 인형에 지나지 않는다. 네가 맹세한 애정도 그 상대자를 죽이고 마는 새빨간 거짓말. 용모와 애정의 장식이 될 네 이성도 앞의 두 가지를 잘못 가르칠 경우엔 미숙한 병사의 화약통 속의 화약처럼, 제 자신이 무지한 탓으로 불이 붙어, 제 무기에 제 살을 씻기는 법. 정신을 차려! 금방 네가 죽어도 좋을 듯이 사랑하는 줄리에트는 살아 있으니 네 행복 아니냐. 티벌트는 너를 죽일 뻔했으나, 오히려 네가 티벌트를 죽였으니 이것도 네 행복. 사형을 내려야 할 국법도 너를 두둔하여 추방으로 변한 것이니, 이것 역시 네 행복. 축복의 보따리가 네 등뒤에 쏟아지고, 행복의 여신도 아름답게 성장하고 네게 추파를 보내고 있는 것 같구나. 한테 버릇없는 계집애같이 심술궂게 네 행운과 사랑에 대해 암상이냐? 아서라, 삼가라. 그러다간 비참하게 죽는다. 약속한 대로 어서 애인한테 가서, 그의 방으로 올라가라. 어서 가서 위로해 줘라. 하지만 성문이 닫힐 때까지 있어선 맨투어로 떠날 수 없게 되니 명심해야 한다. 맨투어에 가 있으면 나는 때를 봐서 너희들 결혼을 발표하고, 두 집안을 화해시켜 영주님의 용서를 얻어서 너를 부르겠다. 그땐 네가 비탄 속에서 떠날 때보다 2백만 배나 기쁠 게 아니냐. 유모는 먼저 가서 아가씨께 안부 전하오. 그리고 집안 식구들이 일찍 잠들도록 하라고 아가씨께 전해오. 아롱튼 식구들은 상심에 잠겨 있으니 곧 잠이 들것ियो. 로미오는 곧 뒤따라갈 거요.

[유모] 어머니, 밤새도록 이렇게 좋은 얘기를 듣고 싶네요. 배운다는 것은 좋기도 하죠! 서방님, 그럼 곧 오신다고 아가씨께 전할게요.

[로미오] 그러시오. 그리고 날 꾸짖을 준비도 하고 계시라고 전해 주오.

[유모] (일단 나가려고 하다가 돌아서며) 저, 이걸 아가씨가 서방님께 전해 드리라는 반지예요. 밤도 깊었으니 어서 서두르세요.(유모 퇴장.)

[로미오] 이제 기분도 조금 소생됐습니다.

[신부] 어서 가 보아라. 잘 가라. 한테 네 운명은 결국 이렇다. 성문이 닫히기 전에 떠나든가, 아니면 새벽녘에 변장을 하고 떠나든가 해야 한다. 잠시 맨투어에 가 있으면 네 하인을 찾아 여기서 일어난 좋은 소식을 일일이 기별하마. 밤도 깊었다. 그럼 잘 가거라.

[로미오] 기쁨보다 더한 기쁨에 불려 가니망정이지, 그렇지 않다면 이처럼 섭섭하게 신부님과 헤어지는 것이 슬픈 일이지요. 그럼 안녕히.

[페이지] 068

[장] 4장

((캐폴렛의 집))

(캐폴렛, 그의 부인 패리스 등장.)

[캐폴렛] 뜻밖에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 딸년과 얘기해 볼 짬도 없었구료. 아시다시피 딸애는 티벌트를 무척 사랑했지요. 나도 물론 그랬지요. 하긴 사람은 나서 한 번은 죽게 마련이오. 이제는 밤도 깊었으니 딸애는 내려오지 않을 거요. 정말이지 댁에서 안 오셨다면 나는 한 시간 전에 벌써 잠들어 있을 것이외다.

[패리스] 이렇게 불행한 시기이고 보니 청혼할 때가 아닌 것 같군요. 그럼, 마님 안녕히 주무십시오. 따님께도 안부 전해 주십시오.

[캐폴렛 부인] 예, 내일 아침 일찍 딸의 맘을 떠보겠어요. 오늘밤은 온통 슬픔에 파묻혀 있습니다. (패리스가 나가려고 한다. 캐폴렛이 그를 다시 불러들인다.)

[캐폴렛] 패리스님, 나 결심했소. 대담하게 딸년의 사랑을 드리리다. 내 말이라면 딸애는 뭇이고 들어줄 것이오. 그야 들어주다 뿐이겠소. 정말이오. 여보 마누라, 자러 가기 전에 그애에게 가서 사윗감 패리스님의 사랑을 알려주구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오. 글썄, 오는 수요일에--- 근데 가만 있자. 오늘이 무슨 요일이더라?

[패리스] 월요일이올시다.

[캐폴렛] 월요일이라구? 하하, 그럼 수요일은 너무 다급하군. 목요일로 정하지. -딸애게 이렇게 얘기하오, 목요일에 이 백작님과 결혼식을 올려야 한다고 말이오.- 근데 백작님 쪽의 준비는 어떠하십니까? 이렇게 서둘러도 괜찮으신지? 너무 법석을 떨지 않고, 몇몇 친구만 청하겠소. 티벌트가 죽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너무 성대하게 잔치를 하면, 친척인 고인을 소홀히 한다는 비난도 있을 것이니까요. 그러니 친구들은 대여섯 명 정도만 하겠소. 그러나 댁에선 목요일이 어떠실는지요.

[패리스] 목요일이 바로 내일이기를 바랄 정도입니다.

[캐폴렛] 좋소, 그럼 안녕히 가시오. 목요일로 정합시다. 여보, 당신은 자러가기 전에 줄리에트한테 가서 결혼 준비를 시키시오. 그럼 패리스 백작, 살피 가시오. 여봐라, 내 방에 등불을 켜라. 아이구, 벌써 이렇게 밤이 깊

[페이지] 069

었구나. 좀 있으면 날이 새겠군. 그럼 안녕히.

(모두 퇴장.)

[장] 5장

((줄리에트의 침실))

(한쪽에는 정원이 내려다보이는 창이 있고 다른 쪽에는 문이 있다. 로미오와 줄리에트가 창 옆에 서 있다.)

[줄리에트] 벌써 가시려고요? 밝으려면 아직 멀었는데. 불안에 떠는 당신의 귀에 들려 오는 저 소리는 종달새가 아니라 밤피꼬리 소리예요. 저 밤피꼬리는 밤마다 저 석류나무 위에서 노래를 해요. 정말 밤피꼬리였어요.

[로미오] 아침을 예고하는 종달새였소. 밤피꼬리가 아니었소. 저봐, 저 멀리 동녘 하늘, 흩어지는 구름 사이로 고개를 내미는 저 짓궂은 새벽빛을. 즐거운 아침해는 안개 깊은 산마루에서 발돋움질하고 있소. 난 여기를 떠나 목숨을 건지든가, 그냥 머물러 있다가 죽든가 할 도리밖에 없어.

[줄리에트] 저기 저 빛은 햇빛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더 잘 알고 있어요. 태양이 내딛진 유성인가 본데, 오늘밤 당신에게 길잡이가 되어 맨투어로 가시는 길을 비춰 줄 거예요. 그러니 좀더 계세요. 떠나실 필요 없어요.

[로미오] 그렇다면 난 잡혀도 좋고, 죽어도 좋소. 그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난 만족하오. 저기 저 회색 빛도 아침의 눈(태양) 이 아니라, 달님 얼굴의 하얀 반사 빛이라고 해두지. 머리 위 높이 창공을 울려대는 저 소리도 종달새가 아니지요. 사실은 나도 이대로 있고 싶지 떠나긴 싫소. 자 죽음아, 올테면, 어서 오라! 그것이 줄리에트의 소원이시란다. 여보, 어때요, 얘기나 합시다. 밝으려면 아직 멀었소.

[줄리에트] 밝았어요. 밝았어요! 떠나세요, 어서, 어서 떠나세요! 저 종달새 좀 봐, 저렇게 드높이 불쾌하게 곡조도 안 맞는 소리로 지저귀고 있구먼. 종달새는 달콤하게 노래를 한다는데, 저 종달새는 밍살스럽게도 우리를 떼어놓으려 하는군요. 종달새와 징글맞은 두꺼비는 서로 눈알을 바꾼다지요. 아, 그렇다면 소리마저 바뀌 주었으면! 포옹한 우리를 떼어놓고, 당신의 갈 길을 재촉하는 저주스러운 아침의 노래인걸요. 자, 어서 떠

[페이지] 070

나세요! 점점 더 밝아지네요.

[로미오] 점점 더 밝아질수록 우리들의 슬픔은 점점 더 어두워지는 구료. (유모가 황황히 등장.)

[유모] 아가씨이!

[줄리에트] 유모요?

[유모] 아가씨이!

[줄리에트] 유모요?

[유모] 어머님께서 지금 방으로 올라오십니다. 날이 밝았어요. 잘 살피고 경계하셔야 돼요.
(유모 퇴장.)

(줄리에트가 문에 빗장을 건다.)

[줄리에트] 그럼, 창문아, 빛을 받아들여서 나의 생명을 배웅해 주렴.

[로미오] 안녕, 안녕히! 한번 더 키스하고, 내려가겠소. (로미오는 줄사다리를 타고 내려간다.)

[줄리에트] 로미오, 그리운 서방님, 그렇게 가 버리시겠어요? 날마다 아니, 시간마다 꼭 편지 주셔야 해요. 일각이 여삼추니까요. 정말이지 그렇게 햇수를 헤아리다간 요 다음 별 때까지 난 무척 늙어 버릴 거예요.

[로미오] (정원에서) 안녕히! 내 사랑, 기회 있을 때마다 반드시 소식을 전하겠소.

[줄리에트] 하지만 우리가 다시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로미오] 그야 만날 수 있고 말고. 그리고 지금의 슬픔은 이 다음에 만나면 죄다 달콤한 애깃거리가 될 거요.

[줄리에트] 아, 왜 이렇게 맘이 설렐까! 아래 서 계신 당신이 무덤 속의 시체처럼 보이네요. 제 눈이 나빠서 그런지, 당신 안색이 창백해서 그런지.

[로미오] 줄리에트, 내 눈에도 당신이 그렇게 보이는 구료. 목마른 슬픔이 우리들의 피를 빨아마시는구료. 그럼 안녕히, 안녕히! (로미오 퇴장.)

[줄리에트] 아, 운명의 여신아, 너는 변덕장이라더니만 그렇기로 성실하기로 이름난 그이에 게 네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나? 설사 변덕을 부릴 테면 부려 보라지. 그렇다고 그이를 오래 붙드는 게 아니라 곧 돌려보내 줄 것 아니냐.

[케플렛 부인] (문밖에서) 애 아가, 일어났니?

[줄리에트] (줄사다리를 끌어올려서 감춘다.) 누가 부를까? 어머닌가 보다. 아직까지 안 주무신 걸까? 아니면 벌써 일어나셨을까? 무슨 심상찮은 일이

[페이지] 071

있기에 이렇게 찾아오신 걸까? (줄리에트가 문을 연다.)

(캐폴렛 부인 등장.)

[캐폴렛 부인] 아가, 이젠 좀 괜찮니?

[줄리에트] 엄마, 아직 기분이 좀 언짢아요.

[캐폴렛 부인] 언제까지나 오빠의 죽음을 슬퍼만 하고 있을 거냐? 대체 넌 눈물로 오빠를 무덤으로부터 씻어내려는 거냐? 설사 씻어낼 수 있더라도 다시 살릴 순 없잖니. 이제 그만 울어라. 적당히 슬퍼하는 것은 애정의 표시라고 하겠지만 지나치게 슬퍼하는 것은 분별이 모자라는 것이다.

[줄리에트] 그래도 실컷 울고만 싶어요. 이번의 슬픔은 특별하잖아요.

[캐폴렛 부인] 그럴 거다. 그렇다고 그애가 살아오는 것도 아니잖니.

[줄리에트] 너무나 슬프니까 그이 때문에 울 수 밖에는.

[캐폴렛 부인] 아가, 너는 오빠의 죽음이 슬픈 것보다 오빠를 죽인 왈패 놈이 살아 있는 것이 더 분해서 우는 게로구나?

[줄리에트] 왈패라니 누구, 엄마?

[캐폴렛 부인] 저 왈패놈 로미오 말이다.

[줄리에트] (방백) 왈패와 로미오는 사돈의 팔촌이지. (크게) 하느님, 그이를 용서해 주세요. 저도 진정으로 용서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이만큼 내 마음을 슬프게 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캐폴렛 부인] 그 악당, 살인자가 버젓이 살이 있기 때문이지?

[줄리에트] 응 엄마, 그이가 손이 안 닿는 곳에 살아 있기 때문이에요. 오빠의 죽음을 나 혼자서 복수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캐폴렛 부인] 염려 마라, 기어코 원수를 갚고야 말 테니까. 이젠 그만 울어라. 귀향간 그 거지놈이 살고 있는 맨투어에 누구 사람을 보내서 비상한 독약을 그놈에게 먹여, 곧장 티베트를 따라 황천길로 떠나보내야겠다. 그렇게 하면 너는 흡족할 것 아니냐.

[줄리에트] 그이를 볼 때까지--- 그이가 죽는 것을 볼 때까지 저는 흡족하지 않을 거예요. 가엾게도 제 가슴은 오빠 때문에 무척 괴로워요. 엄마, 누가 독약을 가져갈 사람만 구해 주시면 로미오가 그걸 마시자마자 곧 잠들어 버릴 독약은 제가 조제하겠어요. 아 분해라, 그 이름을 들으면서도 오빠에 대한 애정을 그 살인자에게 복수로 갚을 수 없다니.

[캐폴렛 부인] 조제는 네가 하렴, 가져갈 사람은 내가 찾을게. 아가, 이제 기쁜 소식을 말해주겠다.

[페이지] 072

[줄리에트] 어머니, 이렇게 슬픈 때에 기쁜 소식이라니 무슨 소식? 엄마, 얼른 말해 주세요.

[캐폴렛 부인] 글썄 아가, 네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시구나. 네 슬픔을 덜고자, 뜻밖에도 아버지는 기쁜 날을 택하셨단다.

[줄리에트] 아이 좋아, 엄마! 그건 무슨 날?

[캐폴렛 부인] 실은 다음 목요일 아침 일찍 저 늙음하고 짐작은 청년 페리스 백작님이 성베드로 교회에서 너를 행복한 신부로 맞기로 되었단다.

[줄리에트] 성베드로 교회와 성베드로를 두고 단언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그분과 결혼하지 않겠어요. 왜 그렇게 서두르실까요. 남편될 사람이 구애를 해오지도 않았는데 결혼을 해야 하나요? 엄마, 제발 아버지께 말씀드려 주세요. 진 아직 결혼하지 않겠어요. 정하더라도 페리스보다는 차라리 엄마도 아다시피 제가 미워하는 로미오와 결혼하겠어요. 그런 걸 다 기쁜 소식이라구요?

[캐폴렛 부인] 마침 아버지가 오시는구나. 네가 직접 여쭙고, 네 말을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려무나.

(캐폴렛과 유모 등장.)

[캐폴렛] 해가 떨어지면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게 마련이라더니, 조카의 목숨이 떨어지더니 마구 비가 쏟아지는 꼴이군. 그래, 네가 분수령이란 말이나? 그 작은 몸이 배와 바다와 바람을 겸하였단 말이지. 네 눈은 바다라고나 할까, 항상 썰물과 밀물이 반복되는구나. 배라 할 네 몸뚱이는 이 짜릿한 눈물의 밀물 속으로 항해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한숨을 바람이랄까. 바람은 눈물로 맹위를 떨치고, 눈물은 바람 때문에 넘치고 있으니, 당장에 바람이 자지 않는 한, 폭풍에 시달리는 네 몸뚱이는 뒤집히고 말겠다. 여보, 내 결정은 얘기했겠지?

[캐폴렛 부인] 얘기하고 말고요. 그러나 고맙기는 해도 싫다나요. 바보 같으니, 차라리 무덤하고나 부부가 되는 게 낫겠대요!

[캐폴렛] 가만 있자. 여보, 내가 알아듣게 말해 줘, 알아듣게. 뭐? 싫다고? 고맙지 않다고? 명예가 아니라고? 변변찮은 딸이 애비가 애써서 훌륭한 신사를 신랑으로 마련해 줘도, 행복하게 생각지 않는단 말이지?

[줄리에트] 아버님의 수고를 명예로는 삼지는 않아도 고맙게는 생각해요. 싫은 것을 명예로 삼을 순 없지만, 싫어도 호의이니 고맙게 생각해요.

[캐플렛] 저런, 저런, 저어런. 저 괴변을 좀 보게나! 그게 뭐지? '명예'라

[페이지] 073

느니, '고맙다'느니, '고맙지 않다'느니, '명예가 아니다'라느니, 요 건방진 것 같으니, 고마운 게 뭐 어찌고, 명예가 뭐 어쨌다구? 어서 그 미끈한 팔 다리를 가꾸어서 오는 목요일에 성 베드로 교회에서 패리스와 결혼하러 갈 준비나 해. 정 싫다면 들것에 실어서 끌고라도 갈 테다. 꺼져, 이 푸르딩딩한 송장 같은 것아! 꺼져 버려, 이 무지랭이 같은 것아, 이 파리한 낮짝 같으니!

[캐플렛 부인] 어머니! 여보, 당신 미쳤어요?

[줄리에트] (무릎을 꿇고) 아버님, 이렇게 무릎을 꿇고 빌겠어요, 부디 참으시고 제 말을 한 마디만 들어주세요.

[캐플렛] 목이나 매고 죽어 버려! 버릇없는 것! 막된 딸년 같으니! 분명히 말해 두지만, 목요일에 교회에 가든가, 싫다면 다신 애비 앞에 나타나지 말어. 변명이나 대꾸 같은 건 소용없다! 손끝이 근질근질하는구먼. 여보 마누라, 하느님께서 이 딸년 하나만을 주신 것을 우린 복인 줄로 알았잖소. 그런데 이제 보니 하나도 너무 많아요. 딸년 때문에 이렇게 욕을 보다니. 꼴도 보기 싫다, 못된 것 같으니!

[유모] 아가씨가 가없어요! 영감님, 아가씨 그렇게 꾸짖지 마세요.

[캐플렛] 이건 뭐야, 잘난 체 말고 썩 입 못 다물어? 자넨 가서 수다장이들하고나 지껄여요!

[유모] 제가 뭐 해될 말을 했나요.

[캐플렛] 원, 제기랄.

[유모] 입 가지고 말도 못 하나요?

[캐플렛] 듣기 싫어! 뉘 앞에서 주둥이를 놀리는 거야? 바보같으니! 그런 소릴랑은 수다장이들한테 가서 술이나 훌쩍이면서 뇌까려요. 여기선 소용이 없으니까!

[캐플렛 부인] 당신은 왜 그렇게 화를 내고 계세요?

[캐플렛] 원! 사람 미치겠네. 밤낮 자나깨나 혼자서나 사람들 속에 끼어서나, 늘 딸년의 혼인만을 걱정해 왔는데 그게 이제 가문 좋고 재산 있고, 교양이 있고, 사람들 말마따나 지덕을

겸비하고 나무랄 데 없이 만사가 구비된 청년을 신랑으로 골라 주니까, 바보같이 분에 넘치는 줄도 모르고, 징징 울면서 결혼이 싫다는 등 핑계를 댄단 말이야. 그래 영 결혼하기 싫다면 용서를 해주겠다. 하나 네 맘대로 나가서 살아라. 이 집에서 같이 살수는 없다. 알았어? 가슴에 손을 대고 곰곰이 생각해 봐, 네가 내 자식이 아니라면 나가서 목을 매건, 빌어먹다 굶어 죽건 맘대로 해. 정말이지 나도 너를 자식으로 안 볼 것이고, 재산은 단돈 한냥도 물려주지 않을 테다. 진

[페이지] 074

담이니까 잘 생각해 봐. 실없는 소릴 하는 내가 아니니까. (캐폴렛 퇴장.)

[줄리에트] 이 슬픈 맘속을 곱어보시는 자비의 신은 저 구름 속에도 안 계시나요? 아, 그리운 어머님, 절 버리지 마세요. 이 결혼은 한 달만이라도, 한 주일만이라도 미루어 주세요. 그것도 안 된다면 제 신방을 티벌트가 자고 있는 저 킴킴한 무덤 속에 마련해 주세요.

[캐폴렛 부인] 듣기 싫다. 나도 이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네 마음대로 하려무나. 너하곤 볼일 다 봤으니까. (부인 퇴장.)

[줄리에트] 아, 하느님! --- 아, 유모, 이 일을 어떻게 막나? 내 남편은 이 세상에 살고 있고, 맹세는 하늘에 가 있어요.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가서 도로 보내 주지 않는 한, 그 맹세가 어떻게 이 세상에 되돌아올 수 있겠어? 나를 도와 줘요. 좋은 꾀를 좀 내줘요. 아, 아, 하느님도 무정하셔라,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시다니! 이봐요 유모, 무슨 기뻐할 만한 말은 없어요? 위안이 될 말 좀 해줘요.

[유모] 그렇구먼 참, 로미오는 추방됐으니 하늘이 무너져도 다시 아가씨를 찾으러 오진 못할 것 아니에요. 설사 온다고 하더라도 남몰래 올 수밖에요. 그러니까 사정이 그렇게 되면, 역시 아가씨 백작님과 결혼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아이구 그 어른 참 잘생긴 양반이더군! 그분과 비교하면 로미오는 형겅 조각밖에 아니지. 이봐요, 백작님의 눈같이 푸르고 빛나고 싱싱하기론 독수리 눈도 어림없어요. 참말이지 이번 두 번째 결혼은 행복하실 거야. 이번이 첫번보다 훨씬 낫죠. 설사 안 그렇더라도 첫번 남편은 죽은 것 아니에요. --- 살아 있더라도 아가씨겐 아무 소용도 없으니 죽은 것과 한가지지 뭐예요.

[줄리에트] 유모, 진심에서 하는 소린가요?

[유모] 뭐라구요?

[줄리에트] 아냐, 유모는 정말 좋은 말을 해주었어. 내가 아버님의 노여움을 샀으니까, 이제 로렌스 신부님의 사제관에 가서 참회를 하고 죄를 용서받으러 나갔다고 어머님께 가서 여쭙줘요.

[유모] 예, 그럴게요. 잘 생각하셨어. (유모 퇴장.)

[줄리에트] 망할 할멈! 아 망측한 마귀 같은 것! 그렇게 나로 하여금 맹세를 깨뜨리게 하려 하다니. 수천 번이나 무던히도 칭찬하던 바로 그 혀로 내 남편을 욕하다니. 어느 쪽이 더 죄스러운 것일까? 꺼져 버려! 여태까진 유모를 믿어 왔지만, 이제부터 유모와 내 가슴은 남남이야. 신부님을 찾아가서 처방을 알아보자. 땀 길이 없어도 자살할 힘은 가지고 있잖은가.

[페이지] 075

[막] 4막

[장] 1장

((로렌스 신부의 사제관))

(로렌스 신부와 패리스 백작 등장.)

[신부] 목요일이라고 하셨지요. 시일이 매우 급하군요.

[패리스] 캐폴렛 장인님이 그렇게 서두르는군요. 그렇게 서두르시는데, 나로서도 뒤로 미룰 만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신부] 하지만 아가씨의 맘은 알 수 없다고 하셨지요? 일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걱정되는 구료.

[패리스] 티벌트의 죽음을 너무도 슬퍼하고 있어서, 사랑의 얘기는 별로 못해 봤습니다. 비너스 여신조차도 눈물의 가정에선 웃질 않는다고 하잖습니까. 아버지는 딸이 그렇게까지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이 위험하다고 보고, 또한 딸의 홍수 같은 눈물을 막자는 뜻도 있어, 현명하게도 우리들의 결혼을 서두르는 거죠. 눈물이란 너무 혼자 생각만 하고 있으면 한이 없지만, 동무라도 생기면 거두어질 게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서두르는 까닭을 아시겠지요.

[신부] (방백) 하지만 그것을 미루어야 할 까닭을 나는 알고 있잖은가. --- 아, 아가씨가 이 암실로 오는구료.

(줄리에트 등장.)

[패리스] 아가씨, 그리고 내 아내, 잘 만났소!

[줄리에트] 혹시 제가 아내가 되고 난 뒤에나 그렇게 불러도 좋을지 모르죠.

[패리스] 그 '혹시'가 오는 목요일엔 반드시 실현되오.

[줄리에트] 반드시 실현된다고 하시니까 실현되겠지요.

[신부] 거 명답인데.

[패리스] 신부님께 참회를 하러 오셨지요?

[페이지] 076

[줄리에트] 그 말에 대답하면 당신께 참회를 하게 되게요.

[패리스]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부님께는 숨기지 마시오.

[줄리에트] 당신에게 고백하지만 저는 신부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패리스] 그럼 물론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 고백하시겠죠.

[줄리에트] 고백을 하더라도, 면전에서 하는 것보다 당신 몰래 하는 편이 더욱 값이 있을 거예요.

[패리스] 가엾게도, 당신 얼굴은 온통 눈물로 얼룩져 있구료.

[줄리에트] 눈물 닦만은 아네요. 눈물의 해를 입기 전에도 어지간히 못생긴 얼굴이었으니까요.

[패리스] 그건 눈물 이상으로 얼굴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줄리에트] 사실을 말하는 건 모욕이 아니예요. 그리고, 그 말을 나는 내 얼굴에 대해하고 있어요.

[패리스] 당신 얼굴도 내 것이요. 그런데 그 얼굴을 보고 욕했소.

[줄리에트] 하긴 그럴지도 모르죠. 이 얼굴은 제것이 아니니까요. --- 신부님 지금 틈이 있으세요? 없으시다면 저녁 미사 때에 찾아 뵈을까요?

[신부] 뭔가 걱정거리가 있나보군. 지금 마침 틈이 있다. 백작님, 우린 좀 실례해야겠소.

[패리스] 저는 물론 신부님의 근행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줄리에트양, 목요일엔 아침 일찍 깨우러 가리다. 그럼, 그때까지 안녕히. 그리고 이 성스러운 키스는 잊지 알아주요. (키스를 하고 퇴장.)

[줄리에트] 아, 문을 닫아 주세요. 그리고 이리 와서 저와 함께 울어 주세요--- . 이제는 희

망도, 수단도, 방법도 없어요.

[신부] 아, 줄리에트, 네 슬픔은 나도 알고 있다. 내 지혜론 어쩔 도리가 없구나. 오는 목요일엔 백작과 결혼해야 할 테니 아무래도 연기할 방도가 없는 것 같구나.

[줄리에트] 신부님, 그 일을 막을 방법을 못 가르쳐 주시겠다면, 제발 이 얘기를 들었다고 말씀하지는 마세요. 신부님의 지혜를 가지고도 어쩔 수 없다면, 이 회검으로 당장에 해결을 짓겠어요. 하느님은 제 마음과 로미오의 마음을 맺어 주시고, 신부님은 저희들의 손을 맺어 주셨어요. 신부님에 의하여 그이께 바친 이 손이, 판 짓에 보증 역할을 하거나 또는 제 순정이 판 맘을 먹고 결눈을 팔거나 하느니보다, 차라리 이 회검으로 손과 맘을 둘로 없애 버리겠어요. 그러니 신부님의 오랜 인생 경험으로 어서 무슨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안하시겠다면 보세요. 신부님의 연륜을 가지고도 정당한 해결이 안 되는 제 어려움을 이 잔인한 회검으로 가부를

[페이지] 077

결정짓고 말겠어요. 어서 말씀해 주세요. 신부님의 말씀도 소용이 없다면 차라리 죽어 버리겠어요.

[신부] 잠깐, 줄리에트. 한 가닥의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막을 일이 필사적인 만큼, 그 실행에도 필사적인 결심이 필요하다. 패리스 백작과 결혼하느니 자살이라도 하겠다는 결심이라면, 이번 치욕을 면하기 위해선 죽음과 비슷한 결심도 해볼 수 있겠지, 죽음하고 맞부딪쳐서라도 치욕을 면하자는 너니까. 그러니 네가 그만한 용기만 가졌다면 그 방법을 말해 주겠다.

[줄리에트] 아, 패리스와 결혼하느니 차라리 저보고 어떤 성벽 위에서 뛰어 내리라든지, 도둑의 소굴로 들어가 보라든지, 우글거리는 뱀들 사이에 숨으라든지 하세요. 아니면, 으르렁거리는 곰한테 절 매어 두든지, 덜거덕거리는 송장 뼈며 썩은 정강이며 턱이 떨어진 누런 해골바가지들이 잔뜩 쌓여 있는 납골당 속에 밤마다 절 가둬 놓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절보고 갓 생긴 무덤 속에 들어가서 수의에 덮인 송장과 함께 누워 있으라고 하세요. 전에는 애기만 들어도 벌벌 떨었지만, 이제는 그리운 남편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 불안이나 두려움 없이 해보이겠어요.

[신부] 가만 있자. 그럼 돌아가서 기쁜 얼굴로 패리스와 결혼하겠다고 말해라. 내일은 수요일, 내일 밤은 혼자 자야지, 유모와 같이 자지 말아야 한다. 이 약병을 들고 가서 잠자리에 들거든 약물을 따라 마셔라. 마시자마자 싸늘한 줄림이 혈관 전체에 퍼져서 평소에 뛰던 맥박은 멈추고, 체온과 호흡을 봐도 산 사람 같지는 않을 것이고, 뺨 입술과 볼도 시들어서 허연 잿빛이 되고, 죽음이 생명의 빛을 닫아 버리듯이 두 눈의 창문도 닫히지며, 팔다리도 생기를 잃어 굳고, 차디찬 시체같이 될 것이다. 너는 그렇게 위축된 가사 상태를 24시간 겪은 다음, 상쾌한 잠에서 깨어나듯 눈을 뜨게 될 거다. 헌데 아침에 신랑이 신부를 깨우러 와 보면 넌 죽어 있거든. 그러면 이 나라 습관대로 가장 좋은 옷을 입혀 관에 꾸경을 덮지 않

고 캐폴렛 조상들이 묻혀 있는 저 선산으로 떠메고 가겠지. 한편, 나는 네가 깨어날 시간에 대비하여 로미오에게는 편지로 우리 계획을 알려서 이곳으로 오게 해서 나와 둘이서 네가 깨어남을 지켰다가, 그 길로 당장 너를 로미오와 함께 맨투어로 떠나보내겠다. 그렇게 하면 너는 이번의 치욕을 모면할 수 있을 거다. 허지만 번덕이나 여자의 불안 때문에 막판에 이르러서 용기를 잃어선 안 된다.

[줄리에트] 그럼, 어서 주세요! 어서 주세요! 아, 여자의 불안 같은 건 염려하지 마세요!

[페이지] 078

[신부] 좋다, 가 봐라. 그럼, 결심을 단단히 하고 잘해 봐. 나는 신부 한 사람을 급히 맨투어로 보내서 네 남편에게 편지를 전하도록 하겠다.

[줄리에트] 사랑아, 내게 기운을 다오! 해결될 일 아니냐. 그럼, 신부님 안녕히. (두 사람 퇴장.)

[장] 2장

((캐폴렛의 집))

(캐폴렛, 캐폴렛 부인, 유모, 하인 두세 명 등장.)

[캐폴렛] (종이쪽지를 주면서)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손님들께 초대장을 돌려라. (하인이 그 쪽지를 받아들고 퇴장.) 여봐라, 너는 가서 일류 요리사를 20명쯤 불러오너라.

[하인] 엉터리는 한 놈도 안 불러오겠습니다. 자기의 손가락을 빨 줄이나 아는지 보면 아니까요.

[캐폴렛] 하지만 그걸로 어떻게 안단 말이지?

[하인] 그야 자기 손가락도 못 빠는 놈은 엉터리 요리사입죠. 하니까 손가락도 못 빠는 놈은 불러오지 않으렵니다.

[캐폴렛] 그럼, 어서 가 봐. (하인 퇴장.) 이번엔 준비가 충분치 못하겠는걸. 근데 딸넌은 로렌스 신부님한테 갔나?

[유모] 예.

[캐폴렛] 음, 그분이 잘 지도해 줄 거야. 고집장이 불효 딸넌 같으니.

(줄리에트 등장.)

[유모] 저것 보세요, 아가씨가 참회하고 즐거운 얼굴로 돌아오네요.

[캐플렛] 어쩐 일이냐, 고집장이야? 어딜 헤메다 돌아오는 거야?

[줄리에트] 아버님 명령에 거역한 불효 죄를 뉘우치고 이렇게 엎드려서 용서를 빌 것을 신부님께 분부 받고 왔어요. (무릎을 꿇는다.) 부디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분부하시는대로 하겠어요.

[캐플렛] 백작께 사람을 보내서 알려드려라. 내일 아침에라도 당장 식을 올려야겠다.

[줄리에트] 그 백작님은 신부님 사제관에서 뵈었어요. 그래서 처녀로서 지나

[페이지] 079

치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애정을 보여드렸어요.

[캐플렛] 거 잘했다. 잘했어. 일어서라, 도리가 그래야지. 백작을 곧 만나 봐야겠다. 여봐라, 얼른 가서 백작을 모시고 오라니까. 정말이지 우리 온 시내 사람들은 이 거룩한 신부님의 덕을 많이 보고 있거든.

[줄리에트] 유모, 내 방으로 같이 가서 내일 어울릴 차림새의 옷을 좀 골라 주겠수?

[캐플렛 부인] 아니, 목요일까지면 되잖니. 시일은 넉넉하다.

[캐플렛] 아냐. 유모, 어서 같이 가 봐요. 내일 성당에도 가야 하니까. (유모와 줄리에트 퇴장.)

[캐플렛 부인] 준비가 부족하잖을까요? 벌써 날이 저물었는데요.

[캐플렛] 음, 두고 봐요, 내가 뛰어다니면 다 잘될 테니까. 여보, 당신은 줄리에트한테 가서 옷차림이나 좀 거들어 주구료. 오늘밤은 자지 말아야지. 나를 상관 마요. 이번만은 내가 주부 노릇을 할 테니까. 여봐라! 아니, 다들밖에 나갔나? 그럼, 내가 직접 백작한테 가서 내일의 준비를 서두르도록 알려야겠군. 고집장이 딸년이 이렇게 회개를 하고 보니, 참 기분이 좋구먼.

[장] 3장

((줄리에트의 침실))

(안쪽에 놓인 침대는 커튼으로 가려져 있다. 줄리에트와 유모 등장.)

[줄리에트] 응, 그 옷이 가장 좋아요. 하지만 유모, 오늘밤은 부디 나 혼자 있게 해줘요. 유모도 아다시피 비꼬인 성미에 죄많은 이 몸이니, 하느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여러 가지 기도를 올려야 하잖아요.

(캐폴렛 부인 등장.)

[캐폴렛 부인] 그래, 바쁘니? 좀 거들어 줄까?

[줄리에트] 아냐, 엄마. 내일 식에 필요한 물건들은 죄다 골라 왔어요. 그러니 이제 부디 절 혼자 놔두고, 오늘밤 유모는 엄마가 데리고 계세요. 일이 워낙 갑작스러워서 엄마는 무척 바쁠 테니까.

[캐폴렛 부인] 그럼, 잘 자거라. 자리에 누워서 포근히 쉬어라, 잘 쉬어야 하

[페이지] 080

니까.

(부인과 유모 퇴장.)

[줄리에트] 안녕히! 언제나 다시 또 만날는지. 싸늘한 불안이 오싹오싹 혈관 속을 돌고, 마치 생명의 열도 얼어붙는 것만 같구나. 엄마를 다시 불러서 위로나 받아 볼까. 유모! --- 아니, 유모 따위가 지금 무슨 소용이 있담. 이 무서운 장면은 나 혼자 해내야 해. 자, 약병아! 하지만 이 약이 안 들으면 어떡하나, 그러면 내일 아침에 결국 결혼을 해야 하나? 아냐아냐! 그건 이 회검이 막아 주지. 회검아, 거기 있거라. (회검을 꺼내서 아래에 놓는다.) 하지만 이게 독약이라면 어떡하지? 신부님이 날 로미오와 결혼시켰으니 이번 결혼으로 그제 들통날까 두려워 날 아예 죽일 셈으로 간사하게 조제한 독약이나 아닐까? 걱정이 되는구나. 설마 그럴 리야. 오늘까지 성자로 존경받는 신부이신데. 하지만 내가 무덤 속에 누웠다가 로미오님이 날 구하러 오기 전에 눈을 뜨면 어떡하지? 아이 무서워! 무덤의 더러운 입구엔 맑은 공기도 안 통한다던데, 그 무덤 속에서 숨이 막혀서, 그이가 오기 전에 질식사 죽지나 않을까? 가령 내가 산다고 하더라도, 죽음과 어두움이 가져다주는 무서운 공상에다 장소마저 으스스한 곳이고--- . 아뿔튼 수백년 동안의 조상들의 뼈가 가득 차 있는 납골당 속이고, 게다가 피투성이인 티벌트는 갓 묻혀 수의에 감겨 썩어 가고 있을 테고, 또한 밤중에는 종종 귀신들이 나온다는 말도 있는데. -아, 내가 눈을 너무 일찍 뜨면- 저 악취, 땅에서 뿜힐 때에 그 소리만 들어도 사람이 미친다는 광인초의 울부짖음 같은 비명 때문에- 글썽 눈을 뜨면, 온통 그런 공포 속에 쌓인 나는 결국 미쳐 버리거나 않을까? 광란한 나머지 조상들의 뼈를 들고 놀기도 하고, 칼맞은 티벌트의 수의를 벗기고 하다가, 결국엔 광기에 몸부림치며 누구 먼 조상의 뼈를 몽둥이 삼아 절망한 내 머리박을 내 손으로 깨부수지나 않을까? 어머니, 저봐! 로미오 칼끝에 찢린 티벌트의 망령이 로미오를 찾아 헤매고 있나보네. 안 돼요, 티벌트. 안 돼요! 로미오님, 저도 같이 갈게요! 당신께 축배! (줄리에트, 약물을 따라 마시고 커튼에 가

려진 침대 위에 쓰러진다.)

[페이지] 081

[장] 4장

((캐폴렛 집의 큰방))

(캐폴렛 부인과 유모, 향료 식물을 들고 등장.)

[캐폴렛 부인] 유모, 이 열쇠들을 들고 가서 양념이나 더 가져오게.

[유모] 부엌에선 대추니 은행이니를 더 가져오라는데요.

(캐폴렛 등장.)

[캐폴렛] 자, 어서 해, 어서! 두 번째 닭도 올었고, 새벽중도 컸어. 벌써 3시야. 이봐 안젤리카, 군만두 좀 잘 봐요. 비용은 아끼지 말고.

[유모] 영감님은 참견 마시고 가 주무세요. 이렇게 밤샘하시면 참말로 내일은 병이 나시겠네요.

[캐폴렛] 천만에. 나도 전에는 대단찮은 일로 밤샘쯤은 해봤지. 그래도 아무지장이 없었지.

[캐폴렛 부인] 그러문요. 당신도 한창때는 계집 꿈무늬께나 쫓아다녔지요. 하지만 이젠 그런 밤샘은 내가 눈을 번득이며 감시할걸요. (부인, 유모와 함께 퇴장.)

[캐폴렛] 원, 이 샘바리 좀 보게나. (하인 2, 3인이 꼬챙이, 장작, 바구니 등을 들고 등장.) 여봐, 그건 뭐냐?

[하인1] 요리사가 쓸 물건들인데, 뭘지 모르겠는 텅쇼.

[캐폴렛] 어서 서둘러, 어서. (하인1 퇴장.) 여봐, 더 잘 마른 장작을 가져와. 피터를 불러, 장작 있는 곳은 그놈이 아니까.

[하인2] 저두 대가리가 있으니까 장작쯤은 찾을 수 있습니다. 뭐 이까짓 일로 피터에게까지 수고를 끼칠 건 없습죠.

[캐폴렛] 하긴 그래. 허허 망할 녀석! 요 통나무대가리녀석 좀 보게나. (하인2 퇴장.) 원, 벌써 날이 밝았군! 백작이 악대를 데리고 금방 올 것 아닌가. 그러라고 말했잖다. (음악 소리가 난다.) 아니, 벌써 온 모양인데, 유모! 여보, 마누라! 여봐라! 글썽 원, 유모! (유모 등장)

가서 줄리에트를 깨우고 옷을 갈아 입혀요. 나는 가서 백작을 상대하지. 어서 해, 어서. 신랑은 벌써 와 있어. 어서 서두르라니까. 글썸. (두 사람 퇴장.)

[페이지] 082

[장] 5장

((줄리에트의 침실))

(침대 위에는 커튼이 둘러쳐져 있다. 유모 등장.)

[유모] 아가씨! 줄리에트 아가씨! 원, 아가씨가 잠에 취했나봐. 글썸 원, 아기염소 아가씨! 쳇, 요 잠꾸러기 좀 봐! 아이 아가씨, 예쁜이, 새색시, 날 좀 보라니까 글썸! 원, 암 말도 없담? 이제 한푼 어치라도 더 자려는 게로군! 한 주일 뉘이라도 자구료. 내일 밤엔 패리스 양반이 단단히 결심하고 아가씨를 못 자게 하실 테니. 미안하구먼! 건 그렇구, 참 잘도 자네. 하지만 깨워야겠어. 아가씨, 이봐요 아가씨! 응, 백작님을 불러들여서 침대에서 껴안게 할까보다. 그러면 깜짝 놀라 일어날 거야! 아무렴. (침대의 커튼을 젖힌다.) 어머니, 새 옷을 입은 채 누웠나봐. 깨워야지. 아가씨, 이봐요, 아가씨! (흔들어 깨운다.) 아이구우! 이게 웬일이야! 사람살려요! 아가씨가 죽었어요! 아이구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다니! 여기 독한 술 좀 빨리! 영감님! 마나님!

(캐폴렛 부인 등장.)

[캐폴렛 부인] 웬 법석이유?

[유모] 아, 기가 막혀서!

[캐폴렛 부인] 웬일이냐?

[유모] 보세요, 보세요! 아, 이럴 수가!

[캐폴렛 부인] 아이구머니나, 생명과도 같은 내 딸이! 소생해서 눈을 떠 다오. 안 뜨면 나도 같이 죽을 테다!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어서 사람을 불러요.

(캐폴렛 등장.)

[캐폴렛] 원 창피도 유만부득이지. 어서 줄리에트나 데려오시오. 신랑은 벌써 와 있소.

[유모] 아가씨가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아, 슬퍼라, 아가씨가 죽었어요!

[캐폴렛 부인] 아, 이럴 수가. 딸애가 죽었어요, 죽었어요.

[페이지] 083

[캐폴렛] 뭣! 어디 보자. 아 이런! 차디차군. 피는 멈추고 수족은 굳어 있고, 입술에선 벌써 생기가 떠나 버렸군. 들판에서 가장 향기로운 한 송이 꽃에 별안간 서리가 내리듯 이렇게 죽음이 내렸구먼!

[유모] 아, 슬퍼라!

[캐폴렛 부인] 아, 무정해라!

[캐폴렛] 딸을 잡아가고 나를 비탄 속에 빠뜨린 죽음이, 내 허마저 묶어 놓고 말도 못 하게 할 참인가보다.

(로렌스 신부, 패리스 백작, 악사들 등장.)

[신부] 자, 신부가 성당으로 갈 준비는 다 되었습니까?

[캐폴렛] 준비는 됐으나,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오! 오, 사위, 결혼 전날 밤에 죽음의 신이 자네 아내하고 동침했네그려. 저보게, 꽃 같은 딸을 죽음이 망쳐 놓았네. 죽음의 신이 내 사위 상속자일세. 딸은 죽음이 맞아 가고 말았어! 나도 죽으면 모두 그놈이 차지하게 되었소. 생명이고, 재산이고 죄다 죽음의 차지지.

[패리스] 이날 아침을 기다리고 기다려 온 보람으로 이런 꼴을 당하는가요?

[캐폴렛 부인] 저주할 불행한 날, 증오스럽도록 끔찍한 날, 흐르고 흐르는 세월 중에 가장 비참한 이 시각! 귀엽고 귀여운 무남독녀, 단 하나의 위안 거리인 외동딸을, 무정한 죽음이 내 눈앞에서 채 가고 말다니!

[유모] 아, 서러워라! 아, 슬퍼라! 이렇게 슬프고 불행한 날을 내 생전에 볼 줄이야! 아, 이날, 원망스러운 이날! 이렇게 저주스러운 날이 또 어디 있담! 아, 서러워라, 아, 서러워라!

[패리스] 속고, 버림받고, 욕보고, 미움받아 죽었구료! 천하에 밋살스런 죽음아, 네놈한테 신세 망쳤다! 아, 생명 같은 애인이여! 생명 없이 죽어있는 애인이여!

[캐폴렛] 천대받고, 고통받고, 미움받고, 희생되어 죽었구나. 몰인정한 시각이여, 어찌자고 하필이면 지금 와서 이 혼례식을 망쳐 놓는 거냐? 아이구, 아가, 아가! 내 영혼인 아가! 너는 죽었구나. 아이구, 네가 죽다니! 너와 함께 내 기쁨도 매장되었구나!

[신부] 조용히들 하시오, 흥합니다! 그렇게 떠든다고 불행이 소멸되는 것도 아니외다. 이 아름다운 따님은 하느님과 당신의 공동소유였소. 그것을 이제는 하느님이 모두 맡게 되었으니,

따님께는 오히려 잘된 거요. 당신은 따님에 대한 당신 몫을 죽음으로부터 막아낼 수 없지만, 하느님 몫은 영원

[페이지] 084

한 생명 속에 살아 있습니다. 따님의 출세가 곧 당신의 천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님이 구름 위 하늘 높이 출세되어 간 것을 보고도 당신은 운단 말인가요. 따님의 출세를 보고도 미친 듯이 슬퍼하다니, 자식한테 그런 애정은 진정한 애정이 아니외다. 결혼해서 오래 사는 여자가 좋은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결혼하여 젊어서 죽는 여자가 오히려 최상의 결혼을 한 것이외다. 눈물을 씻고, 이 아름다운 시체를 로즈메리꽃으로 장식하십시오. 그리고 습관대로 제일 좋은 옷을 입혀 가지고 교회로 운구하십시오. 어리석은 인류의 정으로 슬퍼하지 않을 수야 없지만, 감정의 눈물은 이성의 조소 거리외다.

[캐롤렛] 잔치에 쓰려던 꽃들이 이제는 모두 불행한 초상용으로, 축하의 음악은 서글픈 종소리로, 잔치상은 슬픈 장례연으로 변하는구료. 결혼 축하도 음울한 장송곡으로 변하고, 신방용의 꽃은 매장되는 시체의 장식용이 되고 온갖 것이 정반대로 변하는구료.

[신부] 자, 안으로 들어가시오, 마나님도 같이, 그리고 패리스님도 들어가시오. 다들 이 아름다운 시체를 따라 무덤으로 갈 준비를 하시오. 무슨 잘못이 있어서 하느님이 노하신 거외다. 더 이상 하느님의 뜻을 거역해서는 안되오.

(모두 퇴장하고 유모만 남아서 시체 위에 로즈메리꽃을 뿌린 뒤 커튼을 닫는다. 이어서 악사들이 등장한다.)

[악사1] 그럼 우리는 피리를 집어넣고 물러가도 좋겠구먼.

[유모] 여러 양반, 어서들 집어넣어요! 보다시피 이렇게 딱한 판이 돼 버리잖았어요.

[악사1] 하지만 참말이지 판짚은 고칠 수 있읍죠.

(피터 등장.)

[피터] 아, 여보게, 악사들, <마음 편히>란 곡을 좀 연주해 주게. 아이구, 나 좀 살리려거든 제발 <마음 편히>란 곡을 좀 연주해 달라니까.

[악사] 왜 <마음 편히>를?

[피터] 아, 악사들, 내 마음은 <내 마음 슬프도다>를 연주하고 있으니까 말야. 아, 그러니 즐거운 곡을 연주해서 날 좀 위로해 주게.

[악사1] 싫소! 음악을 할 때가 아니니까요.

[페이지] 085

[피터] 싫다구?

[악사] 암!

[피터] 그럼 한 대 먹여 줄까보다.

[악사] 뭘 먹여 주겠다는 거요?

[피터] 돈은 아냐, 욕설 말이다. 이 거지 악사들아.

[악사1] 요 하인 놈 좀 봐라!

[피터] 하인 칼에 대가리를 얻어맞을 놈 좀 보게. 내가 악보인 줄 아느냐, 네놈 대가릴 몽땅 쳐 줄까보다. 알겠나?

[악사1] 똥땅치면 소리가 날 테지.

[악사2] 여보, 칼부림은 그만두고, 그 대신 말썽씨로 해보시지.

[피터] 그럼 말썽씨로 해보자구! 쇠칼을 치운 대신 쇠 같은 말썽씨로 갈려 줄까보다. 자, 사 내답게 받아 봐라. 쥐어짜는 슬픔에 가슴은 아프고, 구슬픈 설움은 맘을 누르고, 은소리 같은 음악은--- . 어째서 '은소리'지, 어째서 은소리 같은 음악이냐구? 여보게 제금 양반, 대답은?

[악사1] 그야 은이 달콤한 소리를 내니까 그렇죠.

[피터] 근사하군! 여보게 껥껥이 양반, 자네는?

[악사2] 그야 악사가 은전을 받으니까 '은소리'죠.

[피터] 그것도 근사해! 그럼 거기 서 있는 기둥 양반, 자넨?

[악사3] 참말이지, 난 모르겠는 걸요.

[피터] 거 미안하게 됐군! 자넨 소리꾼이지. 내가 대신 말해 주지. 글썽 '은같은 음악' 인즉 악사들이 소릴 내도 황금은 안 되니까 그런 거야. 은 같은 음악 소리에도 울화증은 단박 풀 리네. (퇴장.)

[악사1] 제기, 요 빌어먹을 자식 좀 보겠나!

[악사2] 똥쳐라, 망할 자식아! 그럼 우리네도 들어가서 조문객들이 올 때까지 빈둥거리고 있다가, 한잔 얻어먹세 그려.

[페이지] 086

[막] 5막

[장] 1장

((맨투어 거리의 상점))

(로미오 등장.)

[로미오] 달콤한 꿈을 믿어도 좋다면, 내 꿈은 무슨 희소식이 올 징조에 틀림없으렸다. 이 가슴의 주인, 사랑의 신은 그 옥좌에 살포시 앉아, 오늘 진중일 묘한 기운 때문에 맘도 들떠서, 발이 땅에 안 닿는구나. 꿈에 내 아내가 와서 죽은 나를 보고 - 죽은 사람이 생각할 거를 다 있다니, 이상한 꿈이기도 하지. - 아뵤든 아내가 내 입술에 키스하여 생명을 불어 넣어준 덕택으로 나는 소생하여 제왕이 된 꿈이었지. 아! 사랑의 그림자만으로도 그토록 기쁘니, 과연 사랑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달콤할까!

(로미오의 하인 벨더자가 승마화를 신은 채 등장.)

[로미오] 베로나에서의 소식이구나! 어쩐 일이냐, 벨더자? 아버님도 안녕하시고? 또 묻는다면, 우리 줄리에트는 어떻게 지내시느냐? 아가씨만 무사하다면 만사태평일 것 아니냐.

[벨더자] 예 아가씨 무사하시고, 만사태평인덱쇼. 글쎄 아가씨 시체는 캐폴렛네 선산에 잠들어 계시고, 영혼은 천사님들과 함께 계십쇼. 저는 아가씨가 조상 산에 깊이 묻히는 것을 보고 즉시로 이 일을 도련님께 알리려고 역마로 급히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흉한 기별을 가져와서 미안합니다만, 어쨌든 도련님의 분부대로 다녀왔습니다.

[로미오] 그게 정말이냐? 그럼 운명의 별들아, 멋대로 해라! 너 내 숙소를 알지. 가서 잉크와 종이를 가져와, 그리고 역마도 사 놓아. 이 밤으로 떠나야겠다.

[벨더자] 도련님 제발 참으십쇼. 안색이 창백하시고 심상 칠 앓으신 걸로 봐서 어쩐지 불행이 일어날 것만 같은 덱쇼.

[페이지] 087

[로미오] 쳇, 네가 잘못 봤어. 날 상관하지 말고 얼른 시킨 일이나 해. 신부님의 편지는 없단

말이지?

[벨터자] 예, 없습니다.

[로미오] 상관없다. 그럼, 어서 가서 역마를 사 놓아라. 나도 곧 가마. (벨터자 퇴장.) 그럼, 줄리에트여, 오늘밤엔 곁에서 함께 자겠소. 자, 문제는 그 방법인데, 오, 악마란 놈, 재빠르게 절망한 자의 머릿속에 들어오는구나! 글썽 그 약방 영감, 이 근처에 사는가본데, 요전에 보니 누더기 옷에 불쑥 나온 이마를 하고, 약초를 캐고 있었겠다. 가난에 지쳐 양상하게 뼈만 남고, 가게에는 궁상스럽게 거북이와 말린 악어, 그 밖에 보기 흉한 생선 껍질들이 매달려 있고, 또 시렁 근처에는 궁상스런 빈 상자, 푸른 단지, 어슴푸레 곰팡이 핀 씨앗들. 끄나불 나부랭이, 말린 장미꽃잎 뭉치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겨우 약방꼴을 이루고 있었지. 이 궁상을 보고, 난 이렇게 생각했어. '맨투어에서 독약을 파는 자는 사형이라고 하지만, 지금 누가 만약 독약을 사야 할 경우라면, 저 가난뱅이 영감은 팔아 주겠군.'하고. 그리고 보니 그것은 바로 내 처지를 미리 예고해 준 것이었구나. 아뿔튼 그 가난뱅이 영감보고 독약을 꼭 좀 팔아 달라고 해야겠다. 아마 이 집이었지. 휴일이라고 거지같은 가게도 닫혀 있군. 여보시오, 약방 영감.

(약방 영감 등장.)

[약방 영감] 누구요,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는 게?

[로미오] 여보, 이리 좀 나오시오. 당신은 궁색한 모양인데, 자, 이 돈 40더커트를 받고 독약을 좀 주오. 먹으면 당장 온 혈관 속에 퍼져서 마치 불 당긴 화약이 백발백중의 대포 배때기 속에서 맹렬히 터져 나오는 식으로, 이 육체에서 당장에 호흡을 거두어 가고, 삶에 지친 나를 금방 쓰러뜨려 주는 그런 독약 말이오.

[약방 영감] 그와 같은 독약을 가지고 있기는 있소. 그러나 그걸 파는 사람은 맨투어의 법에 따라 사형이오.

[로미오] 여보, 그렇게 궁하고 천한 인생이면서 목숨이 아깝단 말이오? 당신의 양 볼에는 굵 주름이 보이고, 두 눈에는 궁상이 더덕더덕 달려 있고, 등에는 모욕과 가난이 매달려 있잖소. 여보, 세상도 법률도 당신의 벗은 아니오. 당신을 부자로 할 법률을 만들어 줄 세상도 아니오. 그러니 가난에 빠져 있을 것 없잖소. 법을 무시하고, 이걸 받으시오.

[약방 영감] 받기는 받겠소만 가난이 죄지, 본의는 아니외다.

[페이지] 088

[로미오] 나 역시 당신의 본의에 대해서가 아니라, 가난에 대해서 돈을 치르는 거요.

[약방 영감] (약병을 내주면서) 이것을 음료수에 타서 마셔 보시오. 그러면 당신이 설사 스

무 명을 당해 내는 장사일지라도 당장에 뺏고 말 거요.

[로미오] 자, 돈 받으시오.--- 사실 돈이란, 인간의 영혼에겐 더할 나위 없는 독이요. 당신이 파는 이 하찮은 독약보다도, 사실 더 무서운 살인을 이 더러운 세상에서 저지르거든요. 독을 판 것은 나고 당신은 아무 것도 안 팔았소. 잘 있으시오. 음식이랑 사서 살 좀 썬 보구료. (약방 영감 퇴장.) 자, 독약 아닌 생명 소생제야, 나와 같이 줄리에트 무덤으로 가자꾸나. 그곳에서 너를 마셔야겠다.(로미오 퇴장.)

[장] 2장

((로렌스 신부의 사제관))

(존 신부 등장.)

[존 신부] 프란체스코파의 로렌스 신부님. 여보세요.

(로렌스 신부 등장.)

[로렌스] 오, 저 음성은 바로 존 신부의 음성이 아닌가. 맨투어로부터 오시느라 수고 많았소. 로미오의 답장을 받아 왔다면 어서 내놓으시오.

[존 신부] 사실은 동문의 신부님 한 분과 동행하려고 찾으러 갔다가, 마침 시내의 어느 환자에게 문병 온 그분을 만났는데, 때마침 시 검역관들이 우릴 그 전염병자 집에 있었다는 혐의로, 문을 봉쇄하고밖에 내주질 않아서, 맨투어 행은 그만 지체되고 말았습니다.

[로렌스] 신부, 그럼, 내 편지는 누구 편으로 보냈소?

[존 신부] 보내질 못 하구- 이렇게 도로 가져왔지요.- 당신께로 되돌려 보내자니 병에 전염될까봐 모두들 무서워하는 바람에 누구 보낼 사람이 있어야죠.

[로렌스 신부] 이게 무슨 불행이요! 정말 이 편지는 사소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중대한 용건이랴오. 잘못하다간 큰일이 벌어질지도 모르요. 존 신부님, 어서 가서 쇠지레를 하나 구해다 곧 암실로 보내 주오.

[페이지] 089

[존 신부] 예, 곧 가서 구해 오리다. (퇴장.)

[로렌스 신부] 그럼, 나 혼자서 묘지로 가 봐야지, 이제 세 시간 안에 줄리에트양이 눈을 뜰 텐데. 이 일을 로미오에게 알리지 못한 것을 알면 줄리에트는 나를 무척 원망할 테지. 아뭏튼 맨투어에 다시 편지를 보내고, 로미오가 올 때까지 줄리에트는 사제관에 두기로 하자. 가

없게도 산송장이 되어 무덤 속에 갇혀 있다니.(퇴장)

[장] 3장

((베로나, 캐플렛 가문의 무덤이 있는 묘지))

(햇불과 꽃다발을 든 시동과 패리스 등장.)

[패리스] 애야, 햇불은 날 주고, 너는 저만큼 물러가 있거라. 아냐, 햇불은 꺼 버려라, 남의 눈에 띄면 귀찮다. 저기 주목나무 밑에 엎드려 귀를 우묵한 땅바닥에 바싹대고 있어. 무덤을 판 뒤라 땅이 물렁물렁하니까, 묘지를 걷는 발자국 소리쯤은 네 귀에 들릴 거다. 들리면 누가 온다는 신호로 휘파람을 불어. 그 꽃다발은 날 주고, 시킨 대로 해. 자, 가 봐.

[시동] (방백) 무서워서 이런 묘지에 혼자 있을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봐야지.(퇴장)

[패리스] 꽃 같은 아가씨여, 당신 신방에 이렇게 꽃을 뿌려드리겠소--- . 아이구, 무덤 뚜껑은 흙과 돌이 아닌가, 밤이면 또 향수를 뿌리고, 그것이 없으면 슬픔으로 짜낸 눈물이라도 뿌려 드리리다. 당신께 대한 장례의 표시로 밤마다 이렇게 꽃을 뿌리고 눈물을 쏟겠소. (시동이 휘파람을 분다.) 휘파람 부는 것을 보니, 누가 오는 모양이군. 밤중에 이런 데를 헤매며 이 정성 어린 장례를 방해하려 들다니, 어떤 놈의 발목이지? 으음, 햇불까지 들고? 그럼, 나는 잠깐 어둠 속에 숨어 있자. (물러간다.)

(로미오와 벨더자가 햇불, 곡괭이, 쇠지레 등을 들고 등장.)

[로미오] 그 곡괭이와 쇠지레를 이리 줘. 가만 있자, 이 편지를 들고 가서, 내일 아침 일찍 아버님께 꼭 전하도록 해라. 햇불도 이리 줘. 내 단단히 이르지만, 네가 뿔을 들고 보더라도 모르는 척하고,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지 말아라. 내가 이 죽음의 장소로 들어가는 이유는 아가씨 얼굴을 보자는

[페이지] 090

것도 있지만, 실은 시체 손가락에서 보석 반지를 뽑아다가 어떤 중대한 일에 쓰자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물러가거라. 내가 하는 일을 만약에 수상히 여기고 돌아와서 엿보기만 하면, 맹세한다만, 네놈을 갈갈이 찢어서 이 굵주린 묘지 일대에 네 사지를 흩어 놓겠다. 때마침 한 밤중이고, 내 맘도 포악 잔인하기가 굵주린 호랑이나 성난 바다보다 더하니 말이다.

[벨더자] 예, 저는 물러가고, 방해도 않겠습니다.

[로미오] 그래야 떳떳하지. 자, 이걸 받아라. (돈지갑을 내준다.) 가서 잘 살아라. 그럼, 자, 잘 가거라.

[벨더자] (방백) 저렇게 말씀은 하시더라도, 난 이 근처에 숨어 있어야겠다. 안색도 심상치 않고, 어쩐지 수상하거든. (물러간다.)

[로미오] 너 이 보기 싫은 배때기, 죽음의 모태란 놈, 이 세상에 제일 가는 나의 보배를 삼켜 버리다니. 자, 네놈의 썩어빠진 아가리를 이렇게 벌리고, (무덤 뚜껑을 열기 시작한다.) 원한의 음식을 더 쳐넣어 주마.

[패리스] (방백) 저건 저 추방당한 몬타규 녀석이구나. 저자가 내 애인의 사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슬픔으로 아름다운 줄리에트양도 죽었는데, 저 패썬한 녀석이 시체에까지 폭행을 하려고 여기까지 왔구나. 체포해야지. (앞으로 나선다.) 너 이 몬타규녀석아, 고약한 짓을 멈춰라! 시체에까지 복수를 할 수 있다더냐? 이 망할 녀석아, 널 체포하겠다. 잠자코 따라와, 이 죽일 놈같으니.

[로미오] 사실 죽어야 마땅한 놈이기에 여기 온 것이요. 여보, 젊은 분, 당신도 신사니까 절망한 인간을 건드리지 말고 나를 피해 달아나오. 여기 송장 신세를 면하려거든 무서운 줄도 좀 아시오. 여보, 제발 부탁이니 제발 나를 성나게 하여 내 머리 위에 죄악을 덧신게 하지 말아 주요! 아, 어서 돌아가요. 정말 난 당신을 내 몸보다 더 아끼요. 나는 나 자신을 죽이려고 온 것이니까요. 망설이지 말고 어서 먼 훗날 미치광이 덕택으로 목숨을 건진 거라고 말하십시오.

[패리스] 그따위 청을 누가 들어줄 줄 아느냐. 임마, 당장 널 중죄인으로 체포하겠다.

[로미오] 기어코 내 부아를 터뜨려 놓겠단 말이나? 그럼 에잇, 받아라! (돌아서 싸운다.)

[시동] 아이구, 싸움이 벌어지는군. 야경을 불러 와야겠다. (달음박질쳐 나간다.)

[패리스] 아, 당했다. (쓰러진다.) 여보, 인정이 있거든 무덤 뚜껑을 열고 날 줄리에트 곁에 묻어 주요. (죽는다.)

[페이지] 091

[로미오] 그러마, 근데 어디 얼굴을 좀 보자. 이거 머큐쇼의 친적 패리스 백작 아닌가! 말을 타고 오는 도중 맘이 산란해서 귀담아 듣진 않았지만, 하인 놈이 말을 했지. 패리스가 줄리에트와 결혼한다는 말을 한 것 같은데. 그놈이 그렇게 말했지 아마? 아니면 내가 그런 꿈을 꾸었었나? 혹시 내가 광란해서 줄리에트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일까? 여보, 악수합시다. 당신도 나와 같이 불행한 운명의 명단에 오른 사람이구요! 영광의 무덤 속에 물어드리죠. 무덤? 아니지. --- 여보, 쓰러진 젊은 분, 무덤이 아니라 광명의 탑이요. 이곳엔 줄리에트가 누워 있고, 그의 아름다움이 이 무덤 속을 마치 휘황찬란한 향연의 자리로 만들고 있잖소. 고인이여, 죽기로 된 자의 손으로 매장되어 여기 고이 잠드시오. (패리스의 시체를 무덤 속에 묻는다.) 사람이 죽기 직전에는 명랑해진다는데, 임종을 지켜보는 사람

들은 그것을 임종시의 섬광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 이것을 어떻게 섬광이라 할 수 있겠는가! 아, 내 사랑, 내 아내여! 당신의 꿀같이 단 호흡을 다 빨아 마신 죽음의 신도 당신의 아름다움만은 아직도 정복하지 못했소. 두 입술과 볼에는 아름다움의 깃발이 아직도 발갛게 나부끼고 있으니, 죽음의 창백한 깃발이 거기에 못 미치고 있구료. 티벌트여, 자네도 괴물은 수의에 감겨 누워 있는가? 아, 자네의 청춘을 두 동강이 낸 바로 이 손목으로, 자네의 원수인 이 몸을 찢어 죽이겠네. 내가 자네에게 이보다 더한 호의는 베풀 수 없잖겠는가? 용서하게 티벌트! 아, 사랑하는 즐리에트, 당신은 왜 아직도 이렇게 예쁘오? 혹시나 저 망령 같은 죽음의 귀신조차 당신한테 반하여 그 말라깽이 괴물 주제에 당신을 이 암흑 속에 가두어 두고 정부로 삼자는 것이 아닐까? 그럴지도 모르니 나는 언제까지나 당신하고 있고, 이곳 컴컴한 밤의 궁전을 다시는 떠나지 않겠소. 난 당신의 시종들인 구더기들과 이곳에 있을 테요. 난 이곳을 영원한 안식처로 자리잡고, 세상에 지친 이 몸에서 기구한 운명의 명예를 떨쳐 버리겠소. 눈아, 마지막으로 봐라! 팔아, 마지막 포옹이다! 오, 그리고 생명의 문인 입술아, 정당한 키스로 도장을 찍어서, 만물을 독점하는 죽음과 영구한 계약을 맺어라! 자, 쓰디쓴 지도자, 냄새 훤한 안내자여, 지각없는 뱃사공아, 바다에 지친 너의 배를 당장 암석에 부딪혀 다오! 이건 애인을 위한 건배다! (독약을 마신다.) 아, 정직한 약방 영감! 약효는 빠르구면. 이렇게 키스하고 나는 죽는다. (죽는다.)

(로렌스 신부가 등불, 팽이, 삼을 들고 등장.)

[페이지] 092

[신부] 성프라체스코님, 도와주소서! 오늘밤 따라 왜 이렇게 자꾸 이 늙은이 발목이 무덤에 걸리려고. 게 누구요?

[בלדער] 신부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부] 너냐! 근데 구더기니 눈알 없는 해골들을 쓸데없이 비치고 있는 저기 저 햇불은? 캐 폴렛가 묘지에서 타고 있는가본데.

[בלדער] 그렇습니다. 신부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도련님이 지금 저곳에 계십니다.

[신부] 누구라구?

[בלדער] 로미오님 말입니다.

[신부] 저기 가 있는 지 얼마나 되었는가?

[בלדער] 반시간쯤 실히 댔습니다.

[신부] 그럼 나와 함께 저 무덤으로 가 보자.

[백터자] 어렵쇼. 우리 도련님은 제가 가 버린 줄만 아시는데. 만약 꾸물거리며 몰래 거동을 엿보기만 하면 절 죽인다구 하셔는 텡쇼.

[신부] 그럼, 여기 있거라, 나 혼자 가보겠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꼭 무슨 불길한 불상사가 일어날 것만 같구나.

[백터자] 제가 이 주목나무 밑에서 졸고 있을 때, 꿈결 같지만, 누가 우리 도련님하구 싸우 더니 도련임이 그분을 죽이는 것 같던텡쇼.

[신부] 로미오! (앞으로 나온다.) 아이구, 이게 웬 피냐! 이 무덤 입구의 돌을 이렇게 물들이고 있는 피가? 이걸 또 웬일이냐. 주인 없는 칼들이 피 묻은 안식처에 버려져 있으니. 로미오! 오, 창백하구나! 저런, 또 누군가? 아니, 패리스도 피투성이 아닌가? 아, 이 무정한 시간의 장난이여, 이렇게도 비통한 것을 저질러 놓다니! 줄리에트가 깨어나는구나. (줄리에트가 눈을 뜬다.)

[줄리에트] 아, 고마우신 신부님, 그인 어디 있지요? 제가 지금 어디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여기가 그곳이죠. 저의 로미오님은 어디 계세요? (무대 뒤에서 사람 소리가 난다.)

[신부] 잠깐, 사람 소리가 들린다. 자, 죽음과 질병과 부자연스런 잠의 자리에서 나가자. 사람의 힘으론 막을 수 없는 커다란 힘이 우리 계획을 훼방 놓고 말았다. 자, 어서 나가자. 네 남편은 네 가슴 위에 쓰러져 죽어 있고, 패리스도 죽었다. 자, 너에 관해서는 수녀원에 부탁하마. 야경이 오는 모양이니, 암말 말고 어서 나가자. 착한 줄리에트, 더 이상 꾸물거리고 있을 순 없다.

[줄리에트] 신부님이나 나가세요. 전 안 나가겠어요. (신부 퇴장.) 어머, 이게

[페이지] 093

뭐지? 잔이 로미오님의 손에 꼭 쥐어져 있네. 독약을 마시고 방금 돌아가신 거야. 참 무정도 하셔라! 다 따라 마시고, 뒤따라가지도 못하게 단 한 방울도 남겨 놓지 않으셨단 말인가? 그럼, 당신 입술에 키스할래요. 혹 독약이 입술에 아직 묻어 있다면 생명의 묘약같이 날 천당에 보내 주겠지. (키스한다.) 아! 아직도 입술은 따뜻하네.

패리스의 시동이 야경과 함께 묘지에 등장.

[야경1] 애, 앞서라. 어느 쪽이냐?

[줄리에트] 아, 사람 소리가! 그럼, 얼른 끝장 내자꾸나. 아, 다행히도 단도가 있네.,(로미오의 단도를 잡아 뺏다.) 이 가슴이 네 칼집, (자기 가슴을 찌른다.) 거기 꽂혀서 날 죽게 해다오. (로미오의 시체 위에 쓰러져 죽는다.)

[시동] 여기요, 저렇게 햇불이 타고 있잖아요.

[야경1] 땅바닥이 피투성이군. 묘지 일대를 수색해라. 자, 한 패는 가서 아무 놈이고 만나는 대로 체포하라. (야경 여러 명 퇴장.) 이게 웬 꼴이고! 백작은 칼을 맞아 쓰러져 있고, 이틀 전에 매장된 줄리에트는 갓 죽은 것같이 따뜻한 채 피를 흘리고 있구먼. 어서 가서 영주님께 보고하라. 캐폴렛 집에도 뛰어가고, 몬타규네 사람들도 깨워 일으켜라. 다른 패들도 가서 수색하라. (다른 야경들 퇴장.) 이 불행한 시체들이 쓰러져 있는 장소는 눈앞에 보이지만, 이 불행의 진상이야 자세히 조사하지 않고 어디 알 도리가 있나. (한 패의 야경이 뱀더자를 데리고 등장.)

[야경2] 이자는 로미오의 하인인 모양인데, 묘지에서 잡았소.

[야경1] 영주님이 오실 때까지 잘 붙들어 두시오.

(다른 야경이 로렌스 신부를 데리고 등장.)

[야경3] 이자는 신부인 모양인데, 덜덜 떨면서 한숨을 쉬며 울고 있습니다. 이자가 묘지 이쪽에서 달아나는 것을 붙들어 쾅이와 삼을 압수했습니다.

[야경1] 대단히 수상한데! 이 신부도 붙들어 두시오.

(영주가 시종들을 거느리고 등장.)

[영주] 새벽부터 무슨 변이 일어났기에 아침에 잠도 못 자게 우리를 불러내는 거냐?

[페이지] 094

(캐폴렛과 그의 부인 등장.)

[캐폴렛] 대체 뭇 때문에 거리가 저렇게 시끄럽지?

[캐폴렛 부인] 사람들이 한길에서 '로미오', '줄리에트', '패리스'하고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으며 우리 선산 쪽으로 달려가고 있군요.

[영주] 우리의 귀를 깜짝 놀라게 하는 저 무서운 부르짖음은?

[야경1] 영주님, 패리스 백작이 칼에 맞아 저렇게 쓰러져 있고 로미오도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죽은 줄리에트도 금방 죽은 듯 아직 몸이 따뜻합니다.

[영주] 잘 수색하여 이 참혹한 살인의 진상을 규명하라.

[야경1] 여기에 신부 한 사람과 로미오의 하인이 있는데, 이자들은 무덤을 파기에 알맞은 연장을 갖고 있습니다.

[캐폴렛] 아이구 이런! 이 꼴 좀 봐요. 딸애가 피를 흘리고 있구료! 요놈의 단도가 미쳤나. 몬타규 허리의 칼집은 비어 있고, 엉뚱하게 딸넌 가슴에 꽂혀 있구료.

[캐폴렛 부인] 아이구! 이 참혹한 죽음을 좀 보세요. 조종같이 이 늙은이를 무덤으로 불러대는구먼.

(몬타규 등장.)

[영주] 여보, 몬타규, 당신도 일찍 일어났소만 저것 보시오, 당신의 외아들은 벌써 잠들어 있소.

[몬타규] 아아 영주님, 처가 간밤에 죽었습니다. 자식의 추방을 한탄한 나머지 결국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또 무슨 불행이 이 늙은이를 못살게 하는가요?

[영주] 보면 알 거요.

[몬타규] 오, 버릇없는 자식! 아비에 앞서 무덤으로 가다니, 무슨 짓이냐?

[영주] 잠시 분노의 입을 닫아 주오. 우선 이 의혹들을 풀고, 그 뿌리와 원인과 진상을 밝혀야 하겠소. 불행을 당하기론 당신네들에 못지 않은 나요. 사형을 내려서라도 당신네들 원수는 갚아 주겠소. 잠시 참고 불행을 꼭 눌러 두오. 그럼, 혐의자들을 이리 불러내라.

(야경들이 로렌스 신부와 뱀더자를 데리고 나온다.)

[페이지] 095

[신부] 제가 최대 혐의자입니다. 가장 약하고 불운한 제가 때와 장소가 안 맞은 탓으로 이 무서운 살인의 최대 혐의자가 되고 말았지요. 저는 여기 서서 당연한 책임에 대해서는 스스로를 규탄하고, 정당한 사리에 대해서는 저 자신을 해명하겠습니다.

[영주] 그럼, 이 사건에 관해서 아는 바를 당장 말해 보시오.

[신부]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은 여생이라 지루하게 이야기할 여유도 없습니다. 저기 죽어 있는 로미오는 줄리에트양의 남편, 역시 저기 죽어 있는 줄리에트는 로미오의 성실한 아내였습니다. 이들의 결혼은 제가 시켰지요. 바로 그 비밀 결혼 날이 티벌트의 최후의 날이었고, 그의 죽음 때문에 식을 올린 지 얼마 안 된 신랑은 이 시에서 추방당하기에 이르렀으며, 줄리에트의 슬픔인즉 티벌트 때문이 아니라 실은 남편 로미오 때문이었지요. 헌데 당신네는 따님의 벅찬 슬픔을 달래고자 패리스 백작과 약혼시켜서, 억지로 결혼식을 올리려

고 했습니다. 그러자 따님은 저를 찾아와서 심각한 얼굴로 이 이중 결혼을 모면할 방도를 강구해 달라고 간청하며, 그렇지 않으면 제 사제관에서 자살하겠다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입수해 둔 수면제를 주었더니, 뜻대로 효력이 나타나서 줄리에트양은 가사 상태에 빠지게 되었지요. 한편 로미오한테 편지를 써서, 이 무서운 오늘밤은 마침 약효가 끊어질 시각이니 이곳으로 와서 나와 같이 줄리에트를 그 가장의 무덤으로부터 구해 내기로 했지요. 한테 내 편지를 들고 간 존 신부가 뜻밖의 사고로 길이 막혀, 어젯밤 그 편지를 가지고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아가씨가 깨어날 예정 시간에 맞춰 이 조상의 납골당에서 그녀를 구해 내려고 왔지요. 그리고 당분간 그녀를 제 암실에 감춰 두고, 로미오한테는 때를 봐서 연락하자는 것이었지요. 한테 와 보니, 그녀가 바로 눈을 뜨기 직전인데 뜻밖에 패리스 백작과 성실한 로미오가 죽어 있잖겠습니까. 마침 줄리에트가 깨어나자 저는 나가자고 권하고, 또한 이게 그의 천명 탓이니까 참으라고 달랬지요. 바로 그때 인기척이 나기에 저는 놀라서 무덤을 뛰어나왔는데, 그녀는 실망한 나머지 따라나오려 하지 않고, 결국 자결을 하고 만 것 같습니다. 이상이 제가 아는 진상입니다. 결혼에는 유모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중에 나의 과실이 있다면 어차피 얼마 남지 않은 이 늙은 목숨, 추상같이 엄한 법에 비추어 응분의 처단을 기꺼이 받겠습니다.

[영주] 우리는 평소 그대를 덕망 높은 신부로 알고 있었소. 그런데 로미오의 하인이란 자는 어디 있느냐? 네가 할말은 없느냐?

[페이지] 096

[밸터자] 제가 줄리에트 아가씨의 부고를 도련님께 전해 드렸더니 도련님은 맨투어에서 바로 이곳, 이 묘소로 말을 타고 달려왔습죠. 그리고 이 편지를 아침 일찍 아버님께 전하라고 분부하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면서 도련님을 여기 내버려두고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떠나질 않는 날이면 죽인다고 위협하셨습니다.

[영주] 그 편지를 이리 내라. 어디 읽어보자. 그런데 야경을 불러냈다는 백작의 시동은 어디 있느냐? (시동이 무대 앞으로 나선다.) 그래, 네 주인은 이 곳에서 뭘 하고 있었느냐?

[시동] 주인님은 아씨 무덤에 꽃을 뿌리시겠다고 하시면서, 저 보곤 저리 가 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곧 누군가 등불을 들고 들어와 무덤을 열려고 하자, 주인님은 대뜸 그분한테 칼을 빼드셨습니다. 그래서 전 야경을 부르러 달려갔지요.

[영주] 이 편지를 보니, 그들 사랑의 내력이며 줄리에트의 부고며, 신부의 증언이 틀림이 없군. 또한 로미오가 가난한 약방 영감으로부터 독약을 구해 가지고 이 무덤으로 와서 자살하여 줄리에트와 한 무덤에 매장되려고 한 것도 명백하고. 양편 원수네들은 어디 있소, 캐폴렛과 몬타규는? 자, 그대들의 증오에 대해서 어떠한 천벌이 내렸는가 좀 보구료. 결국 당신네들의 기쁨이어야 할 자식들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도리어 서로 파멸되고 말았잖소! 나도 당신네들의 불화를 등한시하고 있다가 친척을 두 사람이나 잃고 말았소. 모두 벌을 받았구료.

[캐폴렛] 오, 몬타규 사돈 영감, 악수를 합시다. 이것을 딸의 혼수감으로 삼겠습니다. 어디

이 이상 바랄 수야 있겠습니까.

[몬타규] 아니오, 더 이상을 드리리다. 나는 순금으로 따님의 동상을 세우고, 베로나가 개의 이름으로 알려지는 동안은 성실하고 정숙한 줄리에트의 모습이 천하 제일로 찬양 받도록 하겠소.

[캐플렛] 그럼, 그와 똑같이 훌륭한 로미오의 상을 그 아내의 상 곁에 세우겠소. 우리 두 집안의 반목에 불쌍히 희생된 기념으로서!

[영주] 우울한 평화를 가져오는 아침이군. 태양도 슬퍼서 고개를 들지 않는 구료. 자, 이제 돌아가서 천천히 이 슬픈 얘기를 나누도록 합시다. 그리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처벌할 것은 처벌하겠소. 세상에 슬픈 얘기도 많지만 이 줄리에트와 로미오의 이야기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겠소.

(모두 퇴장.)